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선정(1차년도)

2020년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공동학술대회

2020 Inha CIMS - Honam IHSS Joint Academic Conference

## 초연결사회에서의 다문화 리터러시

Multicultural Literacy in Hyperconnected Societies.

- 일시 : 2020년 5월 30일(토) 7:00~15:50
- 장소 :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다목적실
- 주최 :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 후원 : NRF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선정(1차년도)  
**2020년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주제: 초연결사회에서의 다문화 리터러시
- 일시: 2020년 5월 30일(토)
- 장소: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다목적실
- 주최: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 후원: NRF 한국연구재단

시간	내용
07:00~09:30	<b>연구소 발전 방안을 위한 조찬 토론회</b> <div style="text-align: right;">운영(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영순(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div>
09:30~10:00	<b>등록 및 접수</b>
10:00~10:10	<b>개회식</b> <div style="text-align: right;">사회: 박정환(호남대)            개회사: 운영(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지원사업 책임연구원)</div>
10:10~10:50	<b>기획 발표 1</b> 리터러시와 프락시스 변증법 <div style="text-align: right;">김영순(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div>
10:50~11:30	<b>기획 발표 2</b> 나는 너를 번역한다: 소통 행위로서의 번역 <div style="text-align: right;">이은정(숙명여대)</div>
11:30~11:50	<b>주제 발표 1</b> 독일 한인이주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생애담 연구 <div style="text-align: right;">최승은(인하대)</div>
11:50~12:10	<b>주제 발표 2</b> 중앙아시아 결혼이주여성 생애담 연구 <div style="text-align: right;">황해영(인하대)</div>
12:10~12:30	<b>자유 토론 및 질의응답</b>
12:30~13:40	<b>기념 촬영 및 점심 식사</b>
13:40~14:00	<b>주제 발표 3</b> 난민공동체를 통한 재한 난민의 생활세계경험과 사회통합 과제 <div style="text-align: right;">사회: 공하림(호남대)            박미숙(인하대)</div>

14:00~14:20	<b>주제 발표 4</b>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통합을 위한 상담의 필요성과 과제 오영섭(인하대)
14:20~14:40	<b>자유 토론 및 질의응답</b>
14:40~15:00	<b>주제 발표 5</b> 한국 문학 영역본에 나타난 문화적 오류: 과연 오류인가 이강선(호남대)
15:00~15:20	<b>주제 발표 6</b> 문화(사회) 리터러시 관점에서 본 탈산업사회에서 이민자 유입: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손동기(호남대)
15:20~15:40	<b>자유 토론 및 질의응답</b>
15:40~15:50	<b>폐회식</b> 폐회사: 김영순(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 목 차

김영순(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리터러시와 프락시스 변증법 .....	1
이은정(숙명여대)	
나는 너를 번역한다: 소통 행위로서의 번역 .....	19
최승은(인하대)	
독일 한인이주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생애담 연구 .....	41
황해영(인하대)	
중앙아시아 결혼이주여성 생애담 연구 .....	61
박미숙(인하대)	
난민공동체를 통한 재한 난민의 생활세계경험과 사회통합 과제 .....	78
오영섭(인하대)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통합을 위한 상담의 필요성과 과제 .....	106
이강선(호남대)	
한국 문학 영역본에 나타난 문화적 오류: 과연 오류인가 .....	116
손동기(호남대)	
문화(사회) 리터러시 관점에서 본 탈산업사회에서 이민자 유입: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	161



# 리터러시와 프락시스의 변증법

김영순(인하대)

“태초에 리터러시가 있었다. 이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인간다운’ 가장 큰 선물이었다.”

## 1. 리터러시 본질 탐색의 이유

늦은 감이 있지만 2018년에 들어 대학작문학회가 한국리터러시학회로 새로운 학회명을 달고 출범하였다. 비로소 한국의 학계에서 리터러시는 학문적 대상으로 설정되고 견고한 연구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리터러시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학회이건 구성 초기에 그 학회의 정체성 정립은 향후 학회의 발전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총서의 발간은 매우 중요하고 총서 1호가 어떤 내용으로 꾸며지는지는 그 학회의 방향을 갈음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필자는 이 글에서 리터러시의 개념을 문자에 갇혀 있는 기존의 관점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문자와 한 단위의 문장 이전의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중심을 두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리터러시는 초국적 이주로 인해 형성된 다문화 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고 프락시스의 초석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정한 문헌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리터러시 개념을 담고 있는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리터러시의 개념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넘어 정치 참여적이며, 인간 해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초학제적인 융합연구의 맥락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고 기술한다. 필자는 이런 리터러시 개념과 리터러시의 학문적 정체성에 동의하고 글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 글은 일단 리터러시 개념의 확장 과정을 짚어보고, 리터러시의 본질을 이해하며 리터러시와 프락시스의 역동 관계를 다문화 사회의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리터러시를 전통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으로서의 ‘읽기’와 ‘쓰기’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리터러시는 문맹퇴치의 한 방법으로 운동의 차원에서 정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리터러시를 문해력으로 이해하여 특정 분야의 지식과 역량으로 보기도 한다. 이렇듯 리터러시의 개념은 다양하며 학문 분과나 일상의 영역에서 적절하게 변용되었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수용해 그 의미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최근에 리터러시의 의미는 언어, 숫자, 이미지, 컴퓨터 및 기타 기본 수단을 사용하여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이며, 유용한 지식을 얻고,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의 지배적인 상징 시스템을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시킨다. 이와 더불어 OECD 국가들에서는 리터러시 기술을 통해 지식에 접근하는 능력과 이에 관련된 복잡한 상황을 평가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지만 원래 리터러시는 문

맹퇴치라는 인간을 위한 존엄과 해방의 차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우선 주목해야 한다. 이 지점은 바로 필자가 리터러시와 프락시스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동인을 느끼게 한 부분이다.

문맹퇴치는 독서를 통해 말로 된 단어를 이해하고 쓰인 단어를 해독하는 능력과 아울러 단어와 또 다른 단어를 연결한 문장들의 총체인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문맹퇴치는 독해력의 개발과 관계가 있는데 이는 앞서 강조한 리터러시가 지니는 학제적인 융합연구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독해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선 말소리에 관계하는 음운론, 철자의 패턴에 관련한 철자법, 단어의 의미를 연구하는 의미론, 문법에 관련을 둔 구문론, 단어의 형성 및 조어에 관련한 형태론 등 언어학의 제 분야를 비롯하여 텍스트 언어학과 화용론 등을 포함한다. 또한 독해력은 좀 더 세련된 리터러시 개념으로 변용되면서 인간이 수행하는 복합적인 언어활동과 이 활동을 둘러싼 언어와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한다.

이런 맥락에서 리터러시는 분명히 문자와 글로 이루어진 단어, 문장, 텍스트 단위의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능력’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는 인쇄 매체에 대해 독자들에게 요구되는 비판적 분석, 이와 아울러 그 속에 나타난 사건을 추론하거나 그 사건을 다른 사건과 비교 혹은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또한, 리터러시는 텍스트 읽기와 쓰기의 정확성과 일관성,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 및 창의적인 사고의 기초로서 텍스트의 정보와 통찰력을 사용하는 능력인 것이다. 그래서 리터러시는 행위로서의 ‘빠롤’이라기 보다 능력으로서의 ‘랑그’이며, 이 글에서 의미하는 이론 및 이념을 뜻하는 ‘테오리아’이다. 이는 프락시스가 가능하게 되는 전제가 된다.

또한 UNESCO(2006; 2017)는 리터러시를 다양한 상황 혹은 사건과 관련된 인쇄 자료를 식별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작성하고, 의사소통하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유네스코의 정의는 나아가 문맹퇴치 운동의 개념과 연결된다. 문맹퇴치는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고, 지식과 잠재력을 개발하며, 지역사회와 더 넓은 사회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속적인 학습을 의미한다. 또한 문맹퇴치는 자신과 세계에 대해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독서와 작문에 대한 지식을 넓혀 사고와 학습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획득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된다.

실제로 리터러시의 출발점이 된 문맹퇴치 운동은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과 관련이 있다. 흑인 인권운동의 출현으로 1970년대에 소외된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언어 학습 장려 정책이 증가하기도 했다. 미국의 민권법 제6장은 학생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미국 내 다른 언어 소수 민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례(예: Lau v. Nichols)의 기초 역할을 했다.<sup>1)</sup> 우리는 이 사건의 판결 결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이는 주정부와 연방정

---

1) 1970년 5월 26일 California 북부지역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Lau v. Nichols’소송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원고 측은 샌프란시스코 통합 교육구가 모든 비영어 사용 중국계 학생들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적 조처들은 연방헌법 제 14 수정조항의 동등 보호 구절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 측이 요구하고 있는 이중언어 교육은 부가적인 경비지출을 의미하고 중국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고려할 때 전국적 수준에서는 엄청난 과장을 일으킬 사건이었다. 이 소송은 동등 보호의 관련내용이 기존 교육 서비스에서의 일반적인 불평등이 아니라 특정집단 학생들의 특수한 필요를 인정치 못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원고 측의 요구사항은 기존의 불평등을 제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한 종류의 불평등’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



부가 학습자들에게 특수한 ‘교육적 필요’를 제기하고 이를 위한 교육 재정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보상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의 기회균등 개념을 넘어 ‘결과의 평등’에 이르는 것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판결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접하지 못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여건에도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서 소수 집단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한 중요한 판례인 것이다. 나아가 이 판례는 문맹퇴치 운동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인권 보호 정책 차원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문맹을 퇴치하고자 그 해당자가 문맹의 사실을 인지하고 과감하게 퇴치를 요구하는 것에서 리더러시는 이미 참여와 저항의 실천적인 측면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미국에서 시작된 소수민족계 학습자를 위한 공평한 교육을 보장하고자 했던 움직임은 단지 법·제도적 및 정책 변화로만 끝난 것만은 아니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커리큘럼에 반영되었다. 커리큘럼을 구안하는 과정 중에 그들의 언어나 문화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이론들이 채택되고 인용되기 시작했다. 그 것은 다름 아닌 문맹 퇴치를 위한 ‘제2방언으로서 표준영어(SESD: Standard English as a Second Dialect) 접근법’이다. 미국의 리더러시 교육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표준 영어를 제 2언어(SESD)로 읽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습자의 문맹퇴치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특히 이 지배경을 지닌 학습자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본국의 언어나 방언을 존중하면서 표준 영어(SE) 문법 구조를 도입했다(Morgan, 1999).

SESD 프로그램은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DC, 디트로이트와 같은 미국의 도시 지역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계 미국인 자녀가 다수 거주하는 플로리다 북부 및 중부에서 시작되었다. 유사한 프로그램이 카리브해 전역의 도시 지역에서도 시작되기도 했다. 초기에는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SESD 프로그램과 철학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이 등장 했다. 앤아버, 로스앤젤레스 및 오클랜드의 교육구는 이러한 문맹퇴치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은 부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언론 매체에도 보도되었지만 언어적으로 건전하다는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영어교사위원회(NCTE: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와 미국 언어학회(LSA: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에 의해 우수 사례로 UNESCO에 보고되었다.

이어진 다양한 ‘흑인 논쟁’은 사회적 논의로 확대되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고정 관념과 편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불어 Morgan(2002)은 어떻게 흑인 아동들의 리더러시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지 사례별로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리더러시 교육이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 기여한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고, 문맹퇴치 운동이 문화와 언어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강

---

다. 그러나 원고 측의 요구는 거부되었다. 사실심 재판부는 그 거부 이유로서 동등 보호 조항 하에서 비영어 사용 중국인 학생들에게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지역 내의 다른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과 꼭 같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 이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거부는 1973년 6월 18일의 연방 제9 순회 재판소의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74년 1월 21일의 연방대법원 상고에서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601항에 근거해서 연방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혹은 국적에 대한 차별은 금하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교육구는 연방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해야만 된다는 판결로 항소심의 결정을 번복하였다(한일조, 1997).

조했다.

최근에는 다문화교육, 비판적 페다고지, 심지어 힙합을 사용하는 대중문화적 접근까지 포함하는 문맹퇴치 활동이 등장했다. 이를테면, 다문화교육은 다양성을 포용하고 교육의 실천에서 다원주의를 확인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을 보장하는 학교 개혁의 과정이다. 일부 학자들은 비판적 페다고지는 다문화교육의 근본 철학이라고 주장하지만, 다양한 학자들은 개념을 다르게 정의한다. 잘 알려진 비판적 페다고지 연구자 앙리 지루(Giroux)는 “비판적인 의미에서의 교육은 지식, 권위 및 권력 간의 관계를 조명한다.”고 했다. 이 관점은 위에서 설명한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에 부합한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확장하기 위해 읽기 및 쓰기를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현재 지식 생산, 권위 및 권력 관계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지루의 주장이 합리적이려면 아마도 리터러시 교육의 미래는 대중문화를 비롯하여 힙합과 같은 청소년 문화의 측면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청소년이 경험한 흥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 교육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사실 교사는 청소년 중심의 리터러시와 이에 관련한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힙합과 같은 대중문화를 활용한 커리큘럼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한다(Morgan, 2002; Smitherman, 2000).

또한 교육학자들은 힙합 가사를 텍스트 또는 교과 간의 수업을 연계하여 연구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특정한 문학 용어와 문법 개념을 확인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를 연구하면서 이 방법 활용에 주목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교육자들은 종종 ‘번역’에서의 연습과 교실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영어(AAE) 정보에 입각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힙합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 전략은 SESD 프로그램, 다문화 교육 및 비판적 페다고지에서 앞서 강조한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을 결합하고 구축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문맹퇴치를 위한 노력을 혁신한 것처럼, 불법 이주민 가정의 아동, 흑인 가정 아동의 리터러시 증진과 관련된 교육 전문가 및 지역사회 전문가들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성취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리터러시의 지향점은 명확하다. 그래서 리터러시는 인간이 인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며,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선물 상자를 풀어헤쳐 열어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인간이 시민이 된다는 것은 바로 리터러시를 실천하는 것, 즉 프락시스의 행함에 있다. 읽고 쓰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천부인권적 권리이다. 그런데 읽고 쓸 줄 아는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문화적인 운동을 만들어 내는 것은 프락시스인 것이다.

필자는 다시 한 번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말을 상기해 본다, “21세기 문맹은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고 낡은 지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는 필경 우리에게 리터러시는 프락시스를 지향하고 있음을 일러주는 말일 것이다.

## 2. 비판적 페다고지와 프락시스

일찍이 캠벨(Campbell, 2012)과 니토(Nieto, 2016)는 자신들의 저서에 비판적 페다고지

와 리터러시를 연계한 프락시스 사례를 기술한 바 있다. 비판적 페다고지는 학습과 사회 변화를, 교육과 민주주의를, 지식을 공적인 삶에서의 행위에 연결한다(Giroux & Giroux, 2006). 이러한 비판적 페다고지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철학에 뿌리를 두었으며, 그람시(Gramsci), 프레이리(Freire) 등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지루(Giroux), 맥라렌(McLaren), 쇼어(Shor) 등의 학자들이 비판적 페다고지의 담론을 구성하였다.

비판적 페다고지의 기초를 세운 프레이리는 비판적 의식화와 실천이 연계된 프락시스를 통해 '해방'과 '변혁'을 지향하는 교육학적 기본 철학을 제시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프락시스는 성찰과 실천, 즉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고와 행동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프레이리(Freire, 2007)는 성찰이 없이 행동만 앞설 경우에는 '행동주의'로, 실천이 없이 말만 있을 때 '탁상공론'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프락시스는 자신을 둘러싼 구조와 현실에 대한 성찰과 행동을 촉구하면서 인간을 역사적 존재로 만든다. 지루(Giroux, 1994)에 의하면 인간은 프락시스를 통하여 '재현과 주체적 행동의 관계에 대한 투쟁'으로서의 역사를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비판적 페다고지에서 강조하는 핵심 개념은 바로 프락시스인 것이다.

그리스어 'praxis'는 행위 혹은 실천으로 보통 번역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용어를 인간의 다양한 생체적 활동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자유인의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활동이자 '자체 안에 목적을 가지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한다(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2008). 그는 이론 또는 이념을 의미하는 '테오리아'와 프락시스를 진정한 인간과 자유로운 삶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프락시스는 폴리스에서의 윤리적 실천에 한정되며, 테오리아보다는 열등하지만 제작 및 노동을 뜻하는 '포이에시스(노동)'보다는 상위에 놓여 있었다. 프락시스에 있어서는 바람직하게 실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데 반해, 포이에시스에서는 목적이 자기 바깥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프락시스의 개념에 대해 테오리아와 프락시스의 위계는 역전되었지만 이는 칸트에게도 계승된다. 또한 헤겔에서는 테오리아와 프락시스의 상호매개적 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이전에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포이에시스의 가치가 발견되어 프락시스의 핵심으로 격상된다. 포이에시스는 넓게는 대상의 법칙을 알고 그것에 따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내는 기술 일반을 의미한다. 또한, 좁게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참되다고 느낀 세계를 표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프락시스는 포이에시스 가치의 실현이며 주관 및 객관의 동일성이라는 진리에 접근하는 과정이다.

후설의 현상학에서는 프락시스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내면에는 이미 프락시스를 불가결한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테면, 기하학이 성립되기 위해 측량이라는 프락시스가 전제되고 있는 것과 같은 셈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대상에 대한 지각이 언제나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각(Kinasthese)을 수반한다는 사고방식 속에 테오리아를 프락시스의 전제 하에 포착한다.

물론 이 경우의 프락시스에 대한 파악은 행동주의의 자극-반응 도식과 일치하지 않고 대치된다. 그 점에서는 목적 지향적 행위를 의지적 행위의 지표로 간주하는 사회행위론을 계승한 베버(Weber), 파슨즈(Parsons), 앤스콤(Anscombe), 폰 우릭(von Wright) 등과 서로 겹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현상학에서는 목적이 자각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미 프락시스가 계슈탈트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프락시스는 가지성과 불가지성의 긴장된 접점에 놓이게 된다. 나아가 이 접점에 대한 고찰로부터 인간의 조건 일반에 대한 새로운 물음이 제기된다. 그럼으로 현상학의 프락시스 이론은 윤리적 성격을 갖는다. 여기서 목적지향적 행위는 프락시스이고 의지적 행위는 리터러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목적지향과 의지라는 측면에서 리터러시는 이미 프락시스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이고, 리터러시와 프락시스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마르크스(Marx, 1845)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인간이 해야 할 숭고한 책무이라고 강조하면서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2)</sup> 즉 세계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는 프락시스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프락시스는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행위로서 인간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자기변혁적인 행위이다. 또한 “해방의 머리는 철학이고, 해방의 심장은 프롤레타리아트이다”라는 마르크스의 명제에 의하면 그가 해방의 머리, 즉 테오리아를 심장, 즉 프락시스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채진원, 2009).

한편, 아렌트(Arendt, 1987)는 핵심적인 인간 활동으로 노동, 작업, 행위를 언급하였다. 그 중 행위를 가장 높은 위계에 놓았다. 그 이유는 인간의 행위가 인간 삶에서 정치적인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렌트가 주장하는 노동은 필요에 의해서 혹은 그 이상의 좀 더 거시적인 목적에 대해 성찰 없이 행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작업은 마음 속에 이미 존재했던 것을 현실화하는 활동을 뜻한다. 따라서 노동과 작업은 모두 주체가 ‘사물’과의 관계 맺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위는 주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노동과 작업은 인간 개인의 능력에 달렸지만, 행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 장에서 다룰 상호문화 소통은 주체와 타인과 상호작용인 행위의 미시적인 과정인 것이다.

아렌트의 관점에서 노동은 생존을 위함이고, 작업은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기에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와 소통은 개별 인간이 가진 다양성을 실현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한다. 요즘 시대의 개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하는 주체로서 노동과 작업에 집중을 한다. 이는 아렌트가 말한 행위를 가능하지 않게 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렌트가 말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에 관해 곰곰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현대에서 어떤 행위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테오리아에 의한 프락시스의 지배관계를 논의한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아렌트와 마르크스는 프락시스와 테오리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채진원, 2009).

특히 우리는 마르크스가 프락시스를 인간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자기 변혁적인 행위라는 데 비해 아렌트는 프락시스가 주체가 다른 주체들 즉 타인과 관계 맺음을 통한 소통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둘

2) 필자가 독일 유학시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본관에 위치한 마르크스의 흉상과 위의 벽면에 쓰여져 있는 이 문구를 읽고 순간 숨이 멎추었던 기억이 난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테오리아와 프락시스의 상호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의 논의의 합은 결국 프락시스가 리터러시와 같은 역량 함양을 위한 자기변혁적 행위이며 이는 사회변화를 지향하며, 이 과정에서 타인과의 소통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는 프레이리(Freire, 2007)가 주장한 이론과 실천의 통합인 프락시스와 같은 의미이다. 프레이리는 프락시스 개념을 규정하면서 인간을 인간 자체 및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간주한다. 이런 점에서 그람시의 논의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람시는 인간의 의식과 의지를 인간성의 핵심 자질로 보았는데, 이는 인간성을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사회적이고 역사적 환경의 산물로 본 마르크스의 관점과 반대 입장에 있다. 이는 그람시(Gramsci, 1971)가 평범한 인간도 교육을 통해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자본가의 헤게모니적 권력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람시는 저항이 사회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행위라기보다는 불만의 표출 행위로 간주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유기적 지식인'으로서 프락시스를 실천할 때 저항이 변혁을 위한 주체적인 행위로 변환될 수 있다고 여겼다(Fischman & McLaren, 2005). 다시 말해 저항이 불만의 표출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저항의 성격을 갖 추려면 유기적 지식인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변혁을 위한 주체적인 행위화를 강조한 것이다. 그람시가 주창한 유기적 지식인은 프락시스의 일선에 서는 지식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람시는 지식인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방법상의 오류를 지적활동의 내재적 성격에서 지식인의 기준을 찾고자 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지식인의 활동들이 사회관계의 총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관계의 총체 속에서 지식인의 기준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식인은 결국 어느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가에 따라 그 위상이 달라진다. 그람시는 지배계급을 위해 일하는 지식인을 '전통적' 지식인이라 하였으며, 반면에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를 위해 그들에게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람시가 유기적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무엇보다도 민중들이 '상식'이라는 믿고 있는 것이 실제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유기적 지식인의 역할을 "대중을 가르치는 단순한 연설자로서가 아니라, 건설자, 조직가, '영원한 설복자'로서 실제 일상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프롤레타리아트는 자기의 새로운 유기적 지식인을 창출함과 동시에 전통적 지식인도 자기에 동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새로운 지식인의 진정한 존재 방식은 대중과 깊이 연결되어 실천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 실천 활동은 비판적 페다고지의 측면에서 프락시스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고와 행동의 총합'이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쉽게 이해하자면 언행일치된 사람이 자기혁신적인 사람이며 비판적인 사람임을 말한다. 나아가 비판적인 사람은 사회정의와 해방을 추구하는 역량이 강화된 사람으로서, 부정의를 인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Burbules & Berk, 1999).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교육철학으로서의 비판적 페다고지에서는 기존의 권력 구조와 모든 종류의 차별에 저항하기 위한 유기적 지식인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저항과 투쟁의 과정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사회 내 지배 구조가 불합리하다면 시민은 이에 대해 저항하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천을 의미하는 프락시스는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그 힘의 원천은 바로 리터러시

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 3. 시민적 프락시스로서의 실천

이번 절에서 필자는 사회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시민이 지녀야 하는 프락시스의 모습을 설명할 것이다. 우리는 앞 절에서 논의한 비판적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인지적, 정의적인 측면과 실천이라는 행동적 측면의 연계 등의 내용들을 가지고 시민적 프락시스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민적 프락시스의 이론 측면에서는 비판적 의식이 필요하다. 이 비판적 의식은 비판적 사유, 비판적 사고, 정치적 효능감을 포함한다(정소민, 김영순, 2015).

첫째, 비판적 사유는 어떤 상황과 사건에 대해 ‘진실’을 찾고자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과 타인, 사회에 대하여 사유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사유를 의미한다. 이데올로기는 현실의 모순을 은폐하며 그 이면에 은폐되어 있는 실재를 보지 못하게 한다(Giroux, 2005). 이를 아렌트(Arendt, 1973)는 전체주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데, 전체주의가 과거의 산물로 그치지 않고 실천적이고 이론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전체주의의 필수적인 요소로 공포와 이데올로기의 조장에 대해 주목하였다. 아렌트에 따르면 전체주의에서는 대중화된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거짓말을 통해 주어진 현실에 대해 이데올로기를 근거로 판단하도록 한다.

전체주의 체제에서 개별 시민들은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빠져서 세상이 처한 현실을 경험하거나 사유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은 이들 개별 시민의 사유하는 능력이다. 이 사유 능력에서 리터러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학습이며 행위이자 실천인 것이다. 또한 리터러시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텍스트를 읽는 방법론이자 이데올로기를 탐색하고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아렌트(Arendt, 2006)는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면서 ‘악의 평범성’을 언급하였다.<sup>3)</sup> 이렇듯이, 비판적 사유의 부재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무능력하며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아렌트(Arendt, 2017)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타자와 공유하고 설득하는 정치적 존재가 될 때야 비로소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사유가 있어야 자신의 언어를 통해 그것을 대화로 표현한다. 이 지점에서 사유는 인간이 정치적 행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한다. 리터러시는 바로 사유의 전제가 된다. 문자와 텍스트를 읽고 여기에 감추어진 이데올로기를 들추어내는 의식은 비판적 사유의 초석이 된다는 뜻이다.

둘째, 비판적 사고는 독단적인 생각과 편견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

---

3)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나치의 박해를 받았던 독일 출신의 유대인 정치철학자이다. 그는 평생을 전체주의, 그리고 인간에 대해 성찰한 철학자로 알려졌다. 독일 나치의 친위대 중령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유대인 이주국 책임자를 지냈고, 이후 국가안보경찰본부에서 유대인 담당 관료로 일한 인물이었다. 그는 유대인들 전 재산을 몇 십 분 만에 빼앗고 해외로 추방하는 일을 담당했다. 그가 쫓아낸 유대인이 수십만 명에 이른다. 그는 법정에서 너무 평범한 중년 사내의 모습이었으며 영악한 인물도 아니었다. 그는 재판 내내 “명령에 따랐을 뿐이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라는 논리를 구사했다. 이에 아렌트는 1963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악인은 선천적으로 악마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들의 본성은 매우 평범하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 그 누구도 악인이 될 수 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어쩌면 우리조차 아이히만이 될 수 있었다.”

하고 판단하는 사고의 과정을 통칭한다.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가진 관점에 '비판적 기준(critical standards)'을 적용해야 한다(Arendt, 1989). 아렌트의 관점에서 비판적 기준은 타인의 관점, 즉 '모든 가능한 관점'이 된다. 그러나 스미스(Smith, 2001)에 의하면 타인의 관점과 자신의 것을 비교하는 범위는 그 자신의 경험, 시간, 공간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제한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육은 서로 다른 관점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장이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한 민주적인 절차, 특정 사안,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등을 갖추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은 다문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임무를 갖게 된다. 그 이유는 스미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완전히 다른 관점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의 제공을 공교육이 담당해야 한다.

비판적 사고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며 사회 변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이는 '지식을 갖춘 시민'(Westheimer & Kahne, 2004)이 강조되듯이, 지식은 고정된 사실을 암기한 결과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이는 시민적 실천이 무엇이든 간에 이를 행하기 이전에 사회에 대한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프레이리(Freire, 2002)는 일단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이해하면 가능한 행동을 인지하게 되며, 행동은 이해와 일치한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구조적인 불평등을 이해하더라도 자신들의 노력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이를 행위로 옮기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Watts, Diemer & Voight, 2011).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자신의 정치적인 결정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치적 효능감은 바로 이 믿음을 의미한다. 정치적 효능감은 비판적 사유, 비판적 사고와 함께 시민적 프락시스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프레이리(Freire, 2002)의 '비판적 의식화'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효능감을 포함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프레이리는 의식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 바 있다. 이는 순진한(naive) 의식, 마술적(magical) 의식, 비판적(critical) 의식이다. 순진한 의식은 마치 권력자들이 모든 이들을 위해 최선의 이익을 위해 기여하는 듯하고, 누군가의 일상적인 문제가 그 자신이 속한 권력 위계적 위치와 상관없이 없다고 믿는 상태를 뜻한다. 또한 마술적 의식은 부정의가 언제든지 발생하며 부정의를 인식하지만 이를 겪는 이들에게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이다. 비판적 의식은 일상의 문제와 거시적 권력과 관계가 있기에 이 관계를 이해하고 스스로 사회 변화의 주체로 믿는 상태이다(Grant & Sleeter, 2011). 우리를 이 비판적 의식의 수준으로 도달케 하고 시민성을 갖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리터러시이다. 리터러시는 글과 텍스트를 읽어내고 이를 현실에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기 때문이다.

웨스타이머와 케인(Westheimer & Kahne, 2004)에 의하면 비판적 의식에는 비판적 시민성의 요소로 강조했던 사회문제의 근원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상황에 대한 의식화'를 할 수 있으며 현실의 제 모습을 지각하고 그 속에 개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Freire, 2002). 자신의 역할과 참여가 사회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정치적 효능감을 지닌 상태이다. 비판적 의식은 일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현실을 지배하는 해석과 설명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에서 출발한다

(Grant & Sleeter, 2011).

특히 프레이리는 비판적 의식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적이고 시민적인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았다(Watts, Diemer & Voight, 2011). 비판적 분석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행함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전술한 프레이리의 ‘비판적 의식’의 범주에는 비판적 사유, 비판적 사고,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포괄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시민적 삶을 위협하기 때문에 주체로서의 개인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며, 이 책임을 위해 개인은 비판적 의식을 요구받게 된다. 이상의 논의는 시민적 프락시스로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테오리아가 비판적 사유, 비판적 사고, 정치적 효능감을 알려주는 것이다. 비판적 의식을 기준으로 시민적 프락시스의 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단계 의식의 수준으로 구분된다(정소민, 김영순, 2015).

첫째, ‘순진한 의식’의 수준은 사회문제를 깊이 있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적 사유와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 둘째, ‘미온적 의식’은 문제를 의식했다는 점에서 비판적 사유가 발생하지만, 나아가 비판적 사고와 결합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그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연민으로만 그치거나 타인의 문제를 개인적인 능력 혹은 계층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단계에서는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 수도 있고 혹은 낮을 수도 있다. 셋째, ‘비판적 의식’은 시민적 프락시스의 이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다. 이 비판적 의식은 문제의 근원을 성찰하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기여한다. 이 점에서 비판적 사유와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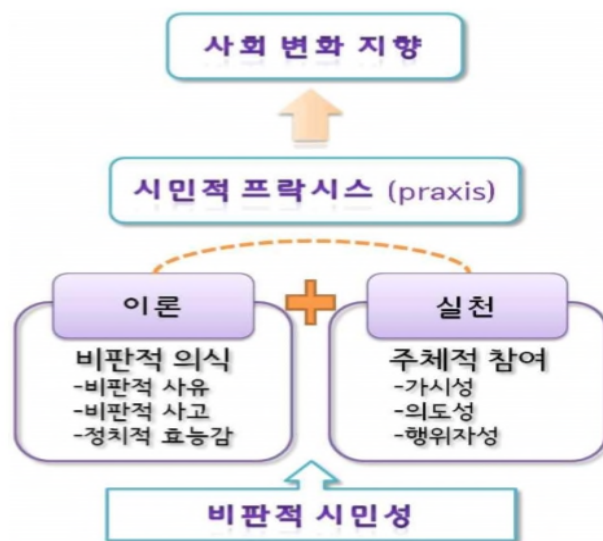
시민적 프락시스의 이론적 측면은 세 단계의 의식 수준을 가치는 데 이것이 프락시스와 연계되려면 행위자성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적 변화에 개입하는 능력을 연결하는 행위자성은 민주적인 관계, 제도적인 형태 등에 변화를 가져온다(Giroux, 2000). 데일과 스파크스(Dale & Sparkes, 2011)에 따르면 명사로서의 ‘agency’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무리 혹은 구조를 의미한다. 또한 동사로서의 ‘agency’는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동사로서의 ‘agency’의 맥락을 차용하는 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변화의 주체로서 행위자성을 ‘시민적 행위자성(civic agency)’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시민적 행위자성은 곧 시민적 프락시스를 위한 실천의 계기를 제공한다. 시민적 행위자성에는 순응의 행위, 동의하고 지지하는 행위, 반대하고 저항하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순응의 행위, 동의하고 지지하는 행위는 기존의 주류 시민성 담론이 자유주의적 시민성과 공화주의적 시민성에서 주로 강조해 온 것이다. 반면에 비판적 시민성의 진영에서는 반대와 저항에 주목한다(정소민, 2014).

이 글은 바로 비판적 시민성을 기초로 하고 있기에 시민적 행위자성의 핵심을 저항으로 놓고 본다. 푸코(Foucault, 1978)는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발생한다고 한다. 저항은 시민들이 부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 지어 자각할 때 발생한다. 저항 담론이 가진 공통적인 의미는 ‘반대하다’에서 출발한다(Hollander & Einwohner, 2004). ‘반대하다’는 저항을 유발하는 데, 저항은 바로 ‘하위의 사회 구성원들이 외부적이고 타자의 것으로 경험하는 문화 권력에 대해 맺는 방어적인 관계’로 정의된다(Barker, 2009).



그람시는 의식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저항이 실천으로 연계되며, 이 때 비로소 주체적인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점에서, 저항이 시민적 행위자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암시한다. 즉 저항은 사회변화를 위한 실천을 낳는 씨앗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시민적 프락시스의 실천으로서 저항을 강조하고 저항을 위한 전제가 리터러시 행위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저항에 대한 논의는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다. 여러 학자들의 논의들을 통하여 저항을 개념화하려고 시도한 홀랜더와 아인워너(Hollander & Einwohner, 2004)는 저항 관련 사회학적 논의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가시성'과 '의도'라고 규명한 바 있다.

우선 가시성은 특정 행위가 타인이 저항이라고 인지할 수 있을 만큼 표출되는지에 관한 여부이다. 즉 타인이 저항이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저항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보는 관점과 '일상적 저항'(Scott, 1985)과 같이 타인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항의 의도 혹은 의미를 담은 행동일 때에도 저항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상충한다. 또한 일부는 저항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행위자가 자신의 의도를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여긴다. 반면에, 일부는 의도가 감춰지거나 관찰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상으로 논의한 가시성, 의도성, 행위자성을 중심으로 시민적 프락시스의 실천으로서 내면적 저항, 소극적 참여, 주체적 참여로 구분하고자 한다(정소민, 김영순, 2015)



[그림 2-1] 시민적 프락시스를 위한 이론과 실천

우선, 내면적 저항은 비가시적이면서 사회 변화의 의도를 갖지 않은 수준의 저항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람시가 저항을 불만의 표시로 여겼던 것과 일치한다. 반면 소극적 참여와 주체적 참여는 가시적이면서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저항이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는 행위자성이 적극적으로 발현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즉 소극적 참여와 달리 주

체적 참여는 시민으로서의 행위자성에 강조를 둔다. 시민적 프락시스가 실행되려면 주체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소극적 참여와 주체적 참여는 시민적 참여 즉 ‘양가지망’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시민적 참여를 하는 동기는 매우 다양하다. 이 때문에, 마세도 외(Macedo et al., 2005)의 시민적 참여는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정치적 형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는 말에 동의를 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 목소리는 공식적인 정부 기관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또한 한 집단 혹은 단체의 일원이 되거나 항의 혹은 거부를 하거나, 심지어 이웃과 이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는 시민적 참여가 선거 제도 하에 투표 참여와 같은 선출이나 자발적 결사체를 조직하여 정치에 압력을 가하는 것 이상을 의미함을 뜻한다(정소민, 김영순, 2015).

이러한 시민적 참여의 출발은 시민으로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는 신문을 읽고 뉴스를 보거나 봉사활동 등과 같이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연대적 행동과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동호회 등 비영리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시민적 참여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비형식적인 일상 대화가 정치적 목소리가 될 수도 있다. 달그렌(Dahlgren, 2006)은 정치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대화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시민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바버(Barber, 1984)의 주장과 같이 시민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견해에 대해 깊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적 정체성과 사회문제를 위한 연대의 가치와 연대적 의지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또한 아렌트(Arendt, 1989)의 비판적 사고는 모든 타인들의 입장을 탐색하는데 열려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그의 주장은 비판적 사고가 타인과의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사고는 ‘고독한 작업(solitary business)’이지만, 개인은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그것이 공적인 맥락에서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개인 간의 상호문화 소통은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이다(정소민, 김영순, 2015).

민주적인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적 참여는 정치참여와 연계되어야 한다. 이는 곧 시민사회가 국가 및 시장과 구분되고 개인들이 시민으로서 자신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이익을 위하여 상호작용하는 자율적 영역을 의미한다(Macedo et al., 2005; Dahlgren, 2006).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에는 정치적인 것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통하여 시민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를 테면, 비정치적인 모임이나 단체에서 활동할 경우에도 개인들에게는 협동적 관계를 맺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럼으로써 시민적 혹은 정치적 행위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해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 혹은 공동체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정치참여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 시민은 비로소 사회변화의 주체로 전환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시민의 정치참여는 주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기, 투표에 참여하기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에 그러한 관습적인 정치참여뿐만 아니라 서명운동, 평화적 시위, SNS 등을 이용한 인터넷 토론, 댓글 달기 등과 같은 비관습적 참여 역시

정치참여의 예로 들 수 있다(Dalton, 2008; 김강훈, 박상현, 2011).

따라서 시민적 참여를 하는 경우 날로 다양해지는 정치참여 행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민적 참여가 이러한 정치참여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사회변화를 지향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프락시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실천에는 시민으로서의 행위자성이 요구된다. 이는 의식적인 노력, 즉 리터러시 역량이 갖추어 졌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의식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는 시민적 행위자성의 맥락에서 사회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필수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무된 동기와 의지만으로는 프락시스를 통해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여러 다양한 정치적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하여 그것에 적합하고 필요한 행동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적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리터러시와 프락시스를 연결시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을 시민적 참여 주체로 성장시키는 것은 의지와 의식적인 노력을 포함한 시민으로서의 행위자성이다. 따라서 소극적 참여와 주체적 참여의 차이는 행위자성에 있다. 소극적 참여는 보다 나은 공동체 실현과 사회정의를 위하여 시민적 참여를 하기 보다는 투표를 해야 한다는 막연한 의무감 혹은 개인적인 만족 및 경력을 위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형태를 의미한다. 이런 활동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시민적 참여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개인적인 의도만이 있을 뿐 시민으로서의 행위자성은 없다.

이 점에서 주체적 참여와의 차이가 존재한다. 주체적 참여의 경우 시민적 참여는 사회변화를 위한 실천을 행위로 옮기는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참여는 자신이 처한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을 넘어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책임을 통해 진정한 연대를 지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변화를 위한 시민적 행위자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의지와 의식적인 노력이 포함된다. 이런 프락시스적 시민을 성장시키는 바탕에, 이런 프락시스를 가능케 하는 시민 행위자성의 전제가 바로 리터러시가 있다. 이러한 리터러시는 개인의 역량을 넘어 행위로 확장하며, 특히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소통과정을 수행하여 된다.

## 4. 마무리

지금까지 읽을 줄 아는 능력에서 참여하는 실천의 능력으로 리터러시 개념을 변혁적으로 정의하고, 이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서 리터러시와 프락시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프락시스로서 상호문화 소통역량을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리터러시와 프락시스의 연관성의 복잡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 관계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앤서니 드 멜로의 <바다로 간 소금인형> 흥미로운 구절을 인용할 것이다.

소금 인형이 바다에 이르러 예전에 미처 본 적도 없고 알 수 없었던 것을 발견했다. 단단하고 작은 소금 인형은 딱딱한 땅 위에 서서 움직이고, 불안정하고, 시끄럽고, 이상하고, 알 수 없는 새로운 땅을 보았다.

바다에게 물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나는 바다야.” “바다가 뭐지?” “그건 나야.” “어떻게 하면 너를 알 수 있지?” “나를 만져 봐.” 소금 인형은 망설이듯 발을 내밀어 바다를 만졌다. 그런데 다시 발을 뺀을 때 발가락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덜컥 겁이 나서 물었다.

“내 발가락은 어디 있어?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바다가 말했다. “너는 나를 알기 위해 무엇인가를 준 거야!” 소금 인형이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바다는 그를 조금씩 가져갔다. 소금 인형은 바다를 알 것 같았지만 무엇이래 표현할 수 없었다. 마침내 파도가 소금 인형의 마지막을 녹여 버렸을 때 그는 깨달았다.

“그래 바다는 바로 나야!”

리터러시와 프락시스의 관계는 마치 바다와 소금인형의 관계일 것이다. 곧 리터러시가 바다이고 프락시스가 소금인형이다. 리터러시는 능력으로서 랑그이자 다시 빠를로서 프락시스인 것이다. 소금인형이 바다에서 나온 듯이 프락시스는 리터러시로부터 나온다. 프락시스는 곧 리터러시의 행위적이며 참여적인 속성이다. 소금으로 요리에 간을 맞추지만 바닷물로는 직접 요리를 하지 않듯이 프락시스는 생존을 위한 요리 행위에 반드시 필수적이다. 이렇듯 요리에 소금이 필요하듯 인간의 일상에 프락시스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리터러시는 그 자체에 이미 프락시스를 포함하고 있거나 전제하고 있음은 명확하다. 진정 우리의 관심은 바로 리터러시가 단지 개인이 갖는 역량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프락시스가 없는 리터러시는 공허할 뿐이라는 것이다. 바다가 소금인형을 만들 수 있도록 짜지 않았다면 바다가 아니듯 리터러시는 프락시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락시스는 인간 주체가 ‘인간다움’을 지니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이다. 프락시스는 바다가 내어 준 소금인형이고 리터러시는 신이 내린 인간에게 부여한 ‘인간다움’이란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방 한구석에 쌓아 놓는다면, 그건 선물이 아닌 것이다. 이제 선물의 포장을 뜯어 상자를 열고 그 선물을 현실에 활용하도록 하자. 소금인형이 발을 바다에 담그고 바다와 자신이 한 몸이 라는 것, 같은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듯이 우리는 리터러시 역량을 타고 태어났음을 자각하자.

우리가 아는 만큼 세상은 보이고, 우리가 실천하는 만큼 생존할 수 있다. 리터러시는 역량이며, 테오리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실천과 참여로서 프락시스임은 명백하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환경을 접하면서 이전의 다른 주체들과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자들을 접할 수 있다. 바로 그 타자와 나라는 주체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다. 나는 언제든지 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자와 나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소금인형과 바다처럼 한 몸이라는 것이다. 나는 타자이고, 타자는 나이다. 소금인형의 본질이 바다인 것처럼 말이다. 리터러시와 프락시스는 바다와 소금인형, 주체와 타자가 하나인 듯 같은 모양과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리터러시와 프락시스는 상호간에 변증법적 과정에 놓여 있다.

명제로서의 리터러시는 이런 다문화 환경에서 반명제로서 프락시스가 되며, 이 프락시스는 다시 정명제로서의 리터러시로 환원된다. 인간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텍스트가 자본과 이데올로기화로 심화되어 가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더욱 단순해지고 테크놀로지의 힘에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리터러시도 프락시스도 잃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텍스트들이 정교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리터러시는 더욱 정교화되어야 하고 프락시스는 더욱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비판적 행위의 프락시스가 타인과의 상호소통 과정에서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다양성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려면 말이다.

## 참고문헌

- 김영순(2020), 이주여성의 상호문화소통과 정체성 협상, 성남: 북코리아.
- 김강훈, 박상현(2011), 인과지도 분석을 통한 디지털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참여 형태 연구,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12(3), 47-66.
-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2008). 부록, Aristoteles, 니코마스윤리학(pp. 388-464). 서울: 이제이북스.
- 정소민(2014), 시민적 '프락시스'로서의 대학생 봉사활동 경험에 관한 문화연구적 해석.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소민, 김영순(2015), 시민교육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프락시스 개념 탐구, 시민교육연구, 47(4), 241-271.
- 채진원(2009), 프락시스 (praxis) 관점에 있어서 아렌트와 마르크스간의 횡단성 (transversality), 철학사상, (33), 275-306.
- 한일조(1997), 미국 법정판례에 나타난 교육의 평등과 재정중립의 개념, 교육학논총 제16집, pp. 1-27.
- Arendt, H. (2006),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욱 역). 서울: 한길사. (원저 1963 출판)
- Arendt, H. (1973),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edition with added prefaces. Florida: Harcourt Breace.
- Arendt, H. (1987), Labor, work, action. In Bernauer J. W. (Ed.). Amor mundi (pp. 29-42). Boston College.
- Arendt, H. (1989), 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rendt, H. (2017), 인간의 조건, (이진우 역), 서울: 한길사, (원저 1996년 출판).
- Barber, B. (1984), Strong democra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arker, C. (2009), 문화연구사전, (이경숙, 정영희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원저 2004년 출판).
- Burbules, N. C. & Berk, R. (1999), Critical thinking and critical pedagogy: Relations, differences, and limits. Critical theories in education: Changing terrains of knowledge and politics (pp. 45-65), NY: Routledge.
- Campbell, D. E. (2012), Choosing Democracy: A Practical Guide to Multicultural Education (4th Edition). (김영순 외 역), 민주주의와 다문화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원저 2009년 출판).
- Dahlgren, P. (2006), Doing citizenship: The cultural origins of civic agency in the public sphere.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9(3), 267-286.
- Dale, A. & Sparkes, J. (2011), The 'agency' of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6(4), 476-492.
- Dalton, R. J. (2008), The Good Citizen: How a younger generation is reshaping American politics. CQ Press.

- Fischman, G. E. & McLaren, P. (2005), Rethinking critical pedagogy and the Gramscian and Freirean legacies: From organic to committed intellectuals or critical pedagogy, commitment, and praxis. *Cultural Studies ↔ Critical Methodologies*, 5(4), 425-446.
- Foucault, M. (1978),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An Introduction*. New York: Pantheon.
- Freire, P. (2002), *페다고지*, (남경태 역), 서울: 그린비, (원저 1993년 출판).
- Freire, P. (2007), *자유의 교육학*, (사람대사람 역) 서울: 아침이슬, (원저 1998년 출판)
- Giroux, H. A. (1994), Doing cultural studies: Youth and the challenge of pedagogy, *Harvard educational review*, 64(3), 278-309.
- Giroux, H. A. (2000), Public Pedagogy as Cultural Politics: Stuart Hall and the 'Crisis' of Culture, *Cultural Studies*, 14(2), 341-360.
- Giroux, H. A. (2005), Cultural studies in dark times: Public pedagogy and the challenge of neoliberalism. 출처: [http://www.uta.edu/huma/agger/fastcapitalism/1\\_2/giroux.htm](http://www.uta.edu/huma/agger/fastcapitalism/1_2/giroux.htm)(검색일: 2013. 7. 6).
- Giroux, H. A. & Giroux, S. S. (2006), Challenging neoliberalism's new world order: The promise of critical pedagogy. *Cultural Studies ↔ Critical Methodologies*, 6(1), 21-32.
- Gramsci, A.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Q. Hoare & G. Nowell-Smith, Eds., Trans.). New York: International Press.
- Grant, C. A. & Sleeter, C. E. (2011), *Doing multicultural education for achievement and equity* (2nd ed.). Routledge.
- Gudykunst, W. B. (1993), Toward a theory of effective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communication: an anxiety/uncertainty management (AUM) perspective. In R. L. Wiseman, and J. Koester (Ed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eory* (pp. 72-111). *interkulturelle Herausforderung*. Frankfurt am Main: IKO.
- Gudykunst, W. B. (2002),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eories. *Handbook of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2, 179-182.
- Hollander, J. A. & Einwohner, R. L. (2004), Conceptualizing resistance. *Sociological Forum*, 19(4), 533-554.
- Macedo, S. et al. (2005), *Democracy at risk: How political choices undermine citizen participation and what we can do about it*.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Marx, K. (1845), *Theses On Feuerbach*. 출처: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45/theses/theses.htm>. (검색일: 2013. 10. 2).
- Marx, K. (1989), *헤겔 법철학 비판*, (홍영두 역), 서울: 아침, (원저 1988년 출판).
- Morgan, M. (1999), *US Language Planning and Policies for Social Dialect Speakers*. In Th. Huebner & K. A. Davis(Ed.). *Sociopolitical Perspectives on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in the USA*. John Benjamins.
- Morgan, M. (2002), Language, discourse and power in African American culture. *Social*

- Anthropology, 13(2), 237-238.
- Nieto, S (2016), 언어, 문화 그리고 비판적 다문화교육. (김영순, 오영훈 외 공역), 성남: 북코리아, (원저 2009년 출판).
- Scott, J. C. (1985),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Yale University Press.
- Smith, S. (2001), Education for Judgment: An Arendtian Oxymoron?. In M. Gordon (Ed.). Hannah Arendt and education: renewing our common world (pp. 67-92), Colorado: Westview press.
- Smitherman, G. (2000), Talk in that Talk: Language, Culture, and Education in African America, London ; Routledge.
- Watts, R. J., Diemer, M. A., & Voight, A. M. (2011), Critical consciousness: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11(134), 43-57.
- Westheimer, J. & Kahne, J. (2004), What kind of citizen? The politics of educating for democracy.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1(2), 237-269.
- UNESCO (2006), UNESCO Guidelines on Intercultural Education. Paris: UNESCO.
- UNESCO (2017), Reading the Past, Writing the Future: Fifty Years of Promoting Literacy.



# 나는 너를 번역한다

-소통 행위로서의 번역



발표자: 이은정(숙명여대)

# CONTETNS

**1. 들어가며**

**2. 소통 관점에서 번역 과정**

**3. 소통 과정에서의 오해와 왜곡  
: 오역과 리프레이밍 현상**

**4. 번역으로 되짚는 맥락 읽기**

**5. 나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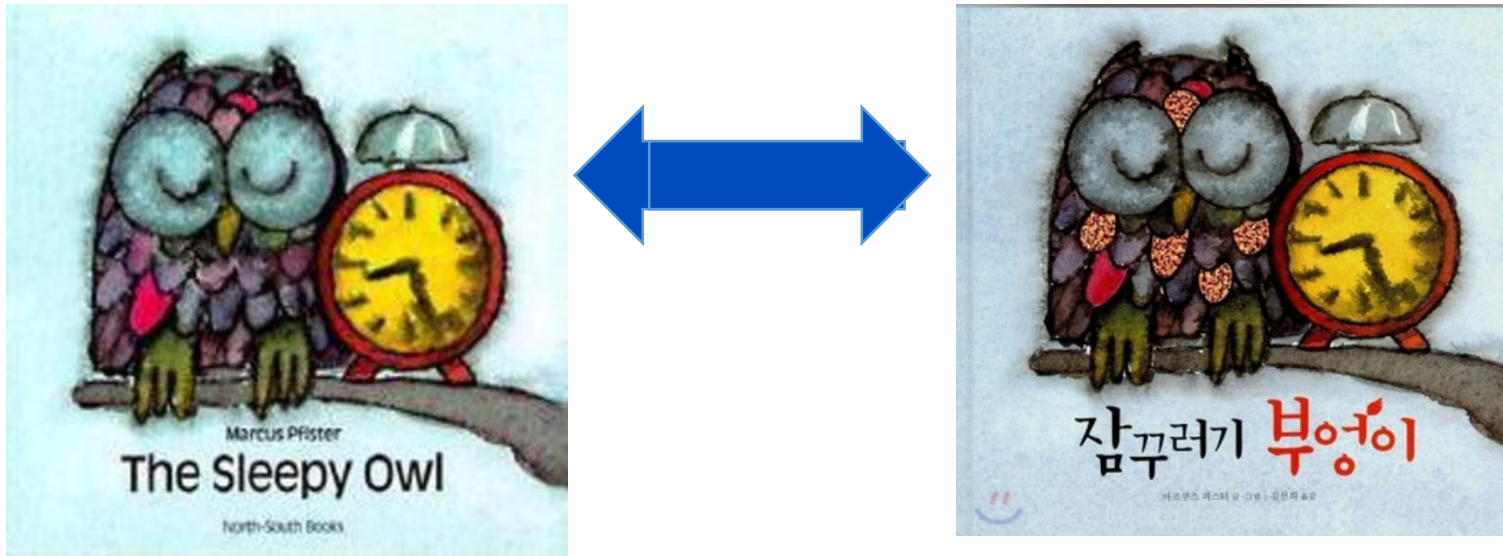
## 1. 들어가며

번역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한 나라의 말로 된 글의 내용을 다른 나라 말로 바꿔 옮김"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원문을 있는 그대로 번역어로 전환하는 것이라 인식된다. 그러나 실제로 번역자는 원문을 읽고 해석하고 번역문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와 수용자를 둘러싼 다양한 변이 요소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조율과정을 소통 행위의 관점에서 들여다봄으로써 번역 행위를 'should'가 아닌 'might'로 접근하는 동시에, 이를 인문학리터러시에 적용하여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이해(interpreting)하고 수용하는 폭을 넓힐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 2. 소통 관점에서 번역 과정

### 번역이란?

한 나라의 말로 된 글의 내용을 다른 나라말로 바꿔 옮김  
원문을 있는 그대로 번역어로 전환하는 것



이미지 출처

<https://www.scholastic.com/teachers/books/the-sleepy-owl-by-marcus-pfister/>

[http://www.yes24.com/24/UsedShop/Goods/2658968?scode=048\\_001](http://www.yes24.com/24/UsedShop/Goods/2658968?scode=048_001)

이러한 관점은 20세기 초까지  
성서와 문학을 중심으로 직역vs의역 논쟁으로 이어졌음



Should 중심

1950년대 성서학자 나이다(Nida)의 등가성(Equivalence)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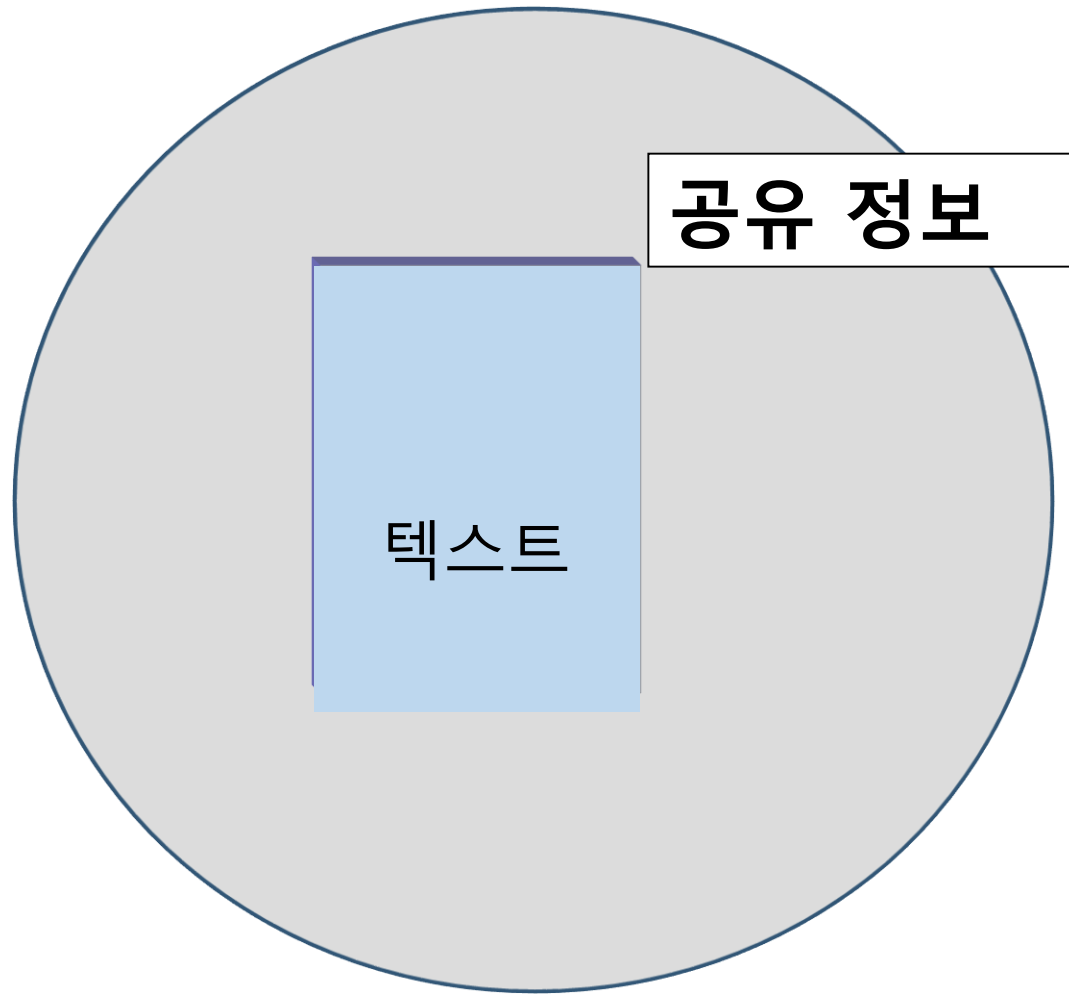
형식적 등가(ST 형식 재현) vs 역동적 등가(ST 수용자와 동일한 반응 실현)

**But,**

**번역은 정말 원문을 있는 그대로 전환하면**

**(형식을 그대로 재현하면) 실현될까?**





공유 정보

텍스트

언어공동체는 오랜 세월 함께한  
공통된 사회.문화.역사 등을 통해  
수많은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앞서 제시한 예는 염탐을 통해 랑그차원  
에서의 언어적 재현은 가능했으나 파롤  
차원에서의 의미 파악은 실패, 이는 언어  
사용자들의 공유 정보 차이에서 비롯된  
것.

문화란 역동적이며, 인간의 언어와 행동을 결정짓는 복잡한 체계이며, 특정 문화에서만 발견되는  
기능이 있어서 개별적인 문화적 특질을 갖는다(Nord 199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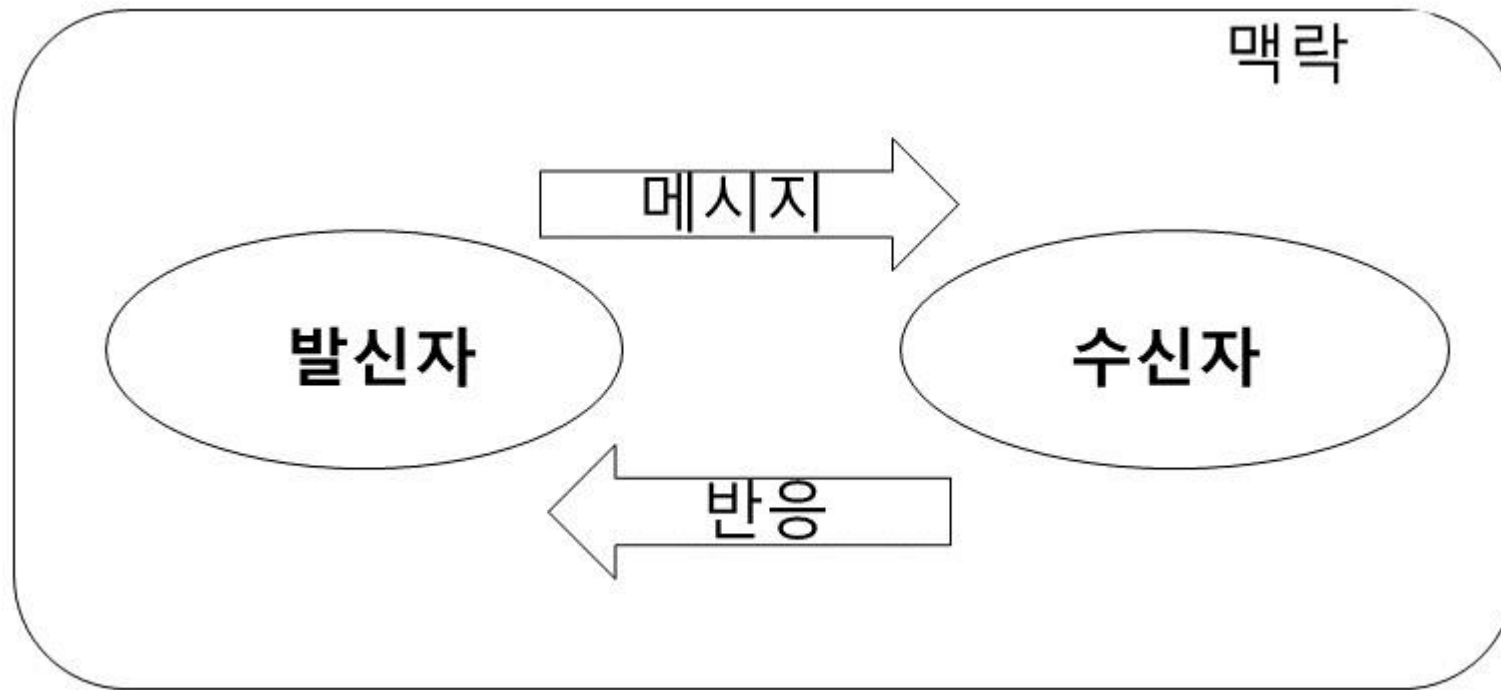


1970년대 이후 텍스트의 다양화와 세분화되면서 의사소통 기반의  
텍스트 기능에 관심을 갖기 시작, 번역 평가 기준이  
등가성에서 텍스트 목적과 기능에 따른 적절성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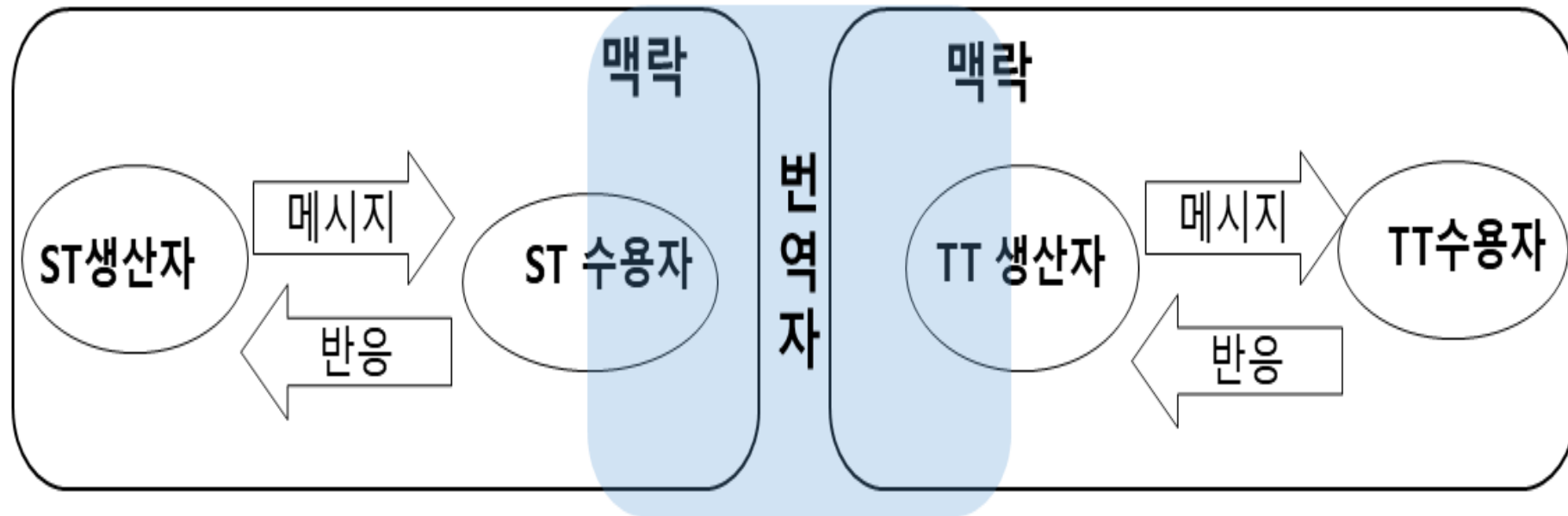


**might 중심**

의사소통행위란 기본적으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로, 이때 수신자가 발신자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발신자가 기대/의도하는 반응을 보이려면 이들을 둘러싼 비언어적 요소 즉 맥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번역에도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가 존재하고 텍스트를 번역하는 목적과 텍스트 수용자에게 기대하는 반응이 있다. 다만, 번역의 경우 ST생산자와 수용자를 둘러싼 맥락과 TT생산자와 수용자를 둘러싼 맥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번역자는 양쪽의 상이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조율하여 의도하는 텍스트의 기능과 수용자 반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 아카데미 4관왕 '기생충' 숨은 공신, 번역가 달시 파켓

영매거진

입력 2020.02.11. 16:23 | 수정 2020.02.11. 18:26

130



서울대를 옥스포드(oxford)로, 짜파구리는 람동(ramdong)으로



출처:  
한국일보 2020/02/11  
<https://news.v.daum.net/v/20200211162353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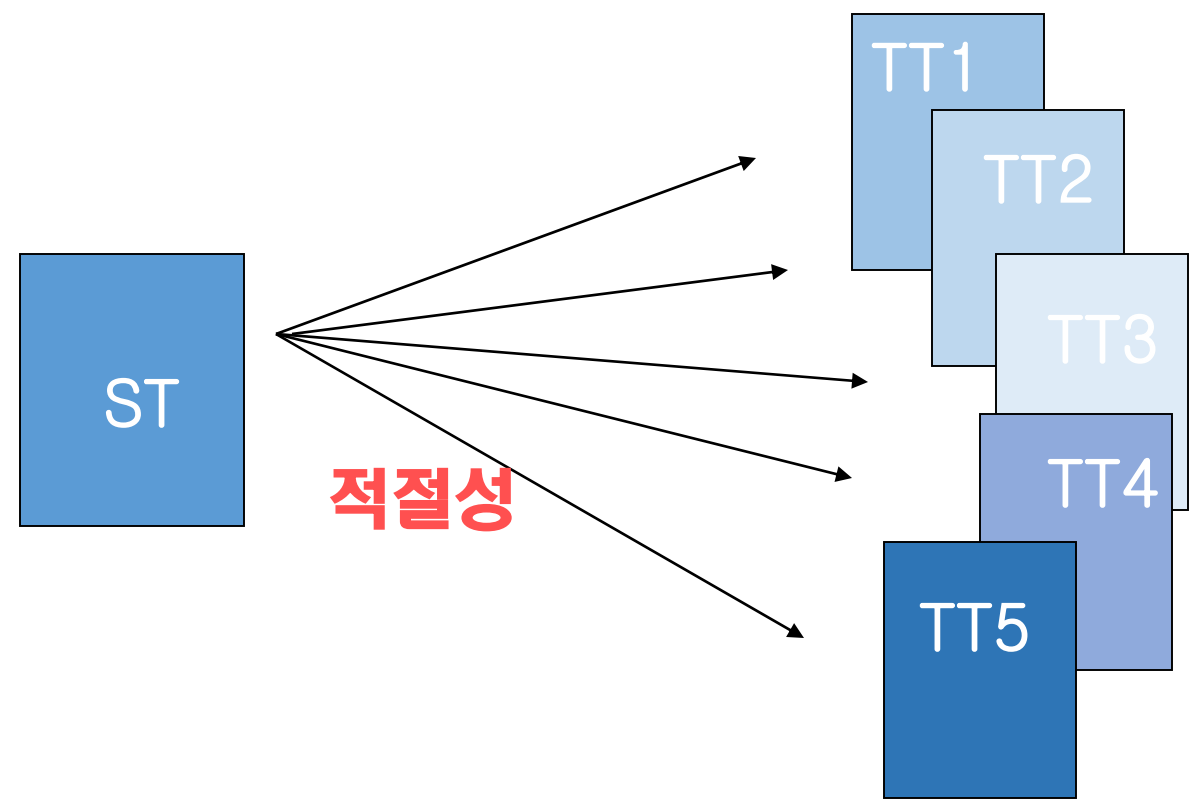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최우식 박소담 장혜진  
제공/배급 CJ엔터테인먼트 제작 (주)바른손이엔터테인먼트 15세 관람가

2019 베를린 감독 작품 | 5월 30일 대개봉  
30

# 기생충

의사소통행위로서의 번역은  
텍스트 유형과 번역의 목적, 수용 대상에 따라 다양한 번역텍스트 생산

번역의 평가 기준도 등가성에서 적절성(adequacy)로 변화



### 3. 소통 과정에서의 오해와 왜곡

소통행위에서 화자는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보다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유추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과정에서 때로 청자는 화자의 의도와 다르게 메시지를 해석하기도 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이기도 한다.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도 **원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거나(오역), 특정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왜곡(리프레이밍)할 수 있다.**

- 번역자가 오역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경우  
**불편한 영화 자막.. "내 꿀빵 얘기예요?"**

<https://news.v.daum.net/v/20150511060227415>

- 오역과 의역의 경계

# '겨울왕국2'도 피해갈 수 없는 오역 논란

박정선

입력 2019.12.03. 08:00



[일간스포츠 박정선]



<https://entertain.v.daum.net/v/20191203080049570>

# 잘못 번역했는데...오히려 극찬받고 더 대박났죠

"잘못한 번역이 오히려 극찬을?"...오역으로 대박 난 영화들

348,533 읽음 · 2020.02.03

143

- 호평을 불러온 초월번역
- 한국 정서에 맞게 일부러 오역
- 잘못 번역한 대사로 인기를 얻기도

초월번역이라는 말이 있다. 원문을 번역할 때 그대로 직역하기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바꾼 것을 의미한다. 오역과 초월번역은 한 곳 차이이다. 초월번역은 원래의 뜻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상 오역이다. 하지만 자막을 보는 사람의 문화나 정서를 고려한 경우에는 오히려 호평을 받는다. 잘못 번역한 대

<https://1boon.daum.net/jobsN/5e33e1e0f3604e7885317940>

### 3. 소통 과정에서의 오해와 왜곡

## 번역 리프레이밍 현상의 예

[ST] At Christmas time Frank Kennedy and a small troop from the commissary department jogged up to Tara on a futile hunt for grain and animals for the army.(1936: 450)

[TT] 크리스마스계절 (12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를 말함)에 식량 조달부로부터 파견된 프랑크 케네디와 한 개 소부대가 군량미와 집짐승을 징발하기 위하여 꺼떡꺼떡 말을 타고 타라까지 소득없는 사냥을 나왔다.(2000: 2-218)





## 4. 번역으로 되짚는 맥락 읽기

번역자는 두 언어/사회문화 사이의 중재자로서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을 조율한다. 이때 번역자는 대체로 번역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텍스트를 해석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상(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번역은 그 사회에 내재된 인식의 틀을 역추적할 수 있는 유용한 기재가 활용될 수 있다.

의사소통행위로서의 번역은 추상적인 언어 체계가 아닌 구체적인 발화의 문제로 상대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ST와 TT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다(Hermans 1999:30).

**Laura** I'm afraid you can't budge me

**Jim** What do you bet I can't? [he swings her into motion]

**Laura** Goodness, yes, you can!

**Jim** Let yourself go, now, Laura, just let yourself go.

**Laura** I'm—

**Jim** Come on!

**Laura** Trying!

**Jim** Not so stiff— Easy does it!

**Laura** I know but I'm—

**Jim** Loosen th' backbone! There now, that's a lot better.

**Laura** Am I?

**Jim** Lots, lots better!

[he moves her about the room in a clumsy waltz]

## 테네시 윌리엄스, 『유리동물원』 번역 비교

로오라 날 못 움직이실걸요  
짐 못할 게 어디 있오?  
[로오라를 붙잡고 방안을 움직인다]  
로오라 어찌면 잘하시네.  
짐 인저 움직여봐요. 해보라니까.  
로오라 난-  
짐 어서  
로오라 어디-  
짐 그렇게 딱딱하면 안돼  
- 힘을 주지 말고!  
로오라 그렇게 할래도  
짐 등뼈에 힘을 주지 말어.  
옳지. 많이 나아 졌군.  
로오라 그래요?

오화섭 역(1956)

로라 오코너 씨가 나를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짐 어째서 내가 못할 거라 단정하죠?  
[그녀를 빙 돌린다]  
로라 어머니, 네, 할 수 있군요!  
짐 저절로 움직이는 대로 놔두세요. 이제, 로라,  
그냥 움직이는 대로 놔둬요.  
로라 나는……  
짐 어서요!  
로라 ……노력하고 있어요!  
짐 너무 뻗뻗하지 않게요……. 편안해야 한다니까요!  
로라 알아요. 하지만 나는…….  
짐 척추에 힘을 빼세요! 그래, 이제, 훨씬 나아졌네요.  
로라 그래요?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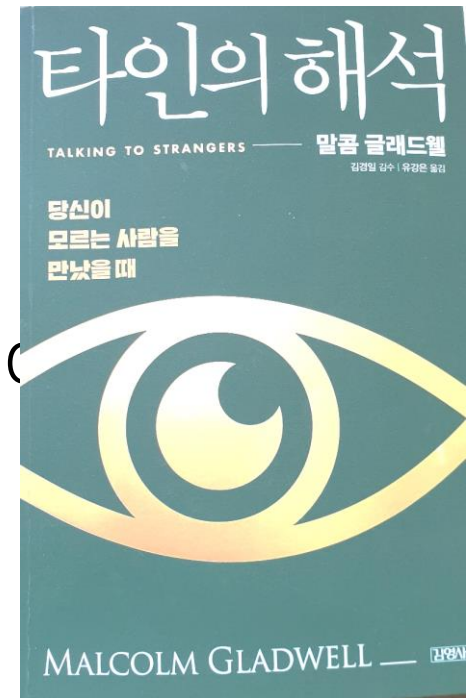
김소임 역(민음사 2010)

## 5. 나가며 - 우리는 모두 번역을 한다



번역의 첫 작업은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고, 저자의 의도를 유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읽기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과 수용자, 목적등 중첩된 요소를 조율하여 텍스트를 다시쓰기 해야 한다는 점에서 번역은 고도로 집중된 인문학 리터러시 훈련이라 할 수 있다.

일상의 소통행위에서 우리는 상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어느 정도 정보가 축적되면 상대를 안다(I know you)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역사를 토대로 해석하고 번역된 대상(I translate/interpret you)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과 유추 과정에서 오해와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는 틀을 유연하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마거레트, 밋첼.(1999).『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 박시환 역.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윌리엄즈, 테네시.(1956).『유리동물원』. 오화섭 역. 서울:수도문화사.
- 윌리엄스, 테네시.(2010).『유리동물원』. 김소임 역. 서울:민음사.
- 이효재(1990).「한국 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여성한국사회연구(역음), 『한국가족론』, 서울: 까치, 3~34.
- Hermans, Theo (1999): *Translation in Systems. Descriptive and System-Oriented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Mitchell, Margaret.(1936). *Gone With the Wind*. N.Y.: Macmillan.
- Nord, Christina.(1997). *Translating as purposeful activity*. Manchester: St Jerome.
- Williams, Tennessee.(1959). *The Glass Menagerie*. N.Y.:Penguin.
- [인터넷 자료]
- 「'겨울왕국2'도 피해갈 수 없는 오역 논란」.일간스포츠.2019.12.3.  
<https://entertain.v.daum.net/v/20191203080049570>
- 「불편한 영화 자막.."내 꿀빵 얘기예요?"」. KBS. 2015.5.11.  
<https://news.v.daum.net/v/20150511060227415>
- 「아카데미 4관왕 '기생충' 숨은 공신, 번역가 달시 파켓」.한국일보.2020.2.11.  
<https://news.v.daum.net/v/20200211162353973>
- 「잘못 번역했는데...오히려 극찬받고 더 대박났죠」.JobsN.2020.2.3.  
<https://1boon.daum.net/jobsN/5e33e1e0f3604e7885317940>

# 독일 한인이주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생애담 연구\*

최승은 (인하대학교)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인 간호여성들의 독일 이주 50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국경을 넘어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렸다. 이것을 계기로 ‘파독 간호사’에 대한 역사적인 재평가와 사회적 관심도 이어졌다. 50여년 전 독일로 이주한 한인여성들의 기나긴 역사를 반추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을 돌아보고, 한국을 떠난 이민 1세대, 특히 독일로 이주한 여성들의 삶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이 여성들에 대한 통계적 자료가 아닌, 개개인의 삶에 주목하여 이들의 생애담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문화적 혼종성에서 오는 다중적 정체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타자로서, 그리고 역동적인 주체로서 다양한 삶을 살아온 여성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렌트(Arendt, 1996)는 인간 주체의 형성에 있어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을 인간답게 존재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말한다는 것은 공적인 공간에서 행위의 주체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독일로 이주한 한인여성들의 이미지인 애국자 혹은 희생자라는 획일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 개인의 생애담이 갖는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해석할 것이다.

## 2. 이론적 논의

### 1) 초국적 이주와 정체성

독일로 이주한 한인 간호여성들은 독일에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라는 한인 소수민족의 위치와 국내에서는 해외 파견 노동자이며 현재 해외 동포라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갖는다. 분열적이며 이중적 정체성을 보이는 재독 한인 간호여성들이 독일 사회에 편입하게 된 계기는 1978년 10월 독일 정부가 행정법을 개정하면서이다. 재독 한인 간호여성들의 서명 운동과 인정 투쟁의 승리로 5년 이상의 체류자에게는 무기한 체류권과 8년 이상 체류자에게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 이들은 독일에 ‘손님 노동자’가 아닌 합법적 이주민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었다(김옥선, 2020). 이 한인 간호여성들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여성들이다. 이들은 개인적인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여성들이다. 그러나 국내 정부나 언론에서 이들의 모습은 한국인의 모습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타자로 재현된다. 독일에서는 한인 소수민족으로, 한국에서는 재외동포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이방인, 그리고 여성이라는 다중적 정체성으로 더욱 타자화되고 있다.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405802).

이러한 한인 간호여성들의 문화적 혼종성은 이들의 다중적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 바바(Bhabha, 2002)는 문화의 본질을 혼종성으로 규정하며 문화 내에 분열적인 타자성이 존재함을 강조한다. 또한 문화란 통일적이고 확정적인 경계와 함께 전승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차이들이 벌이는 교섭의 장(field of negotiation)이다(Bhabha, 1990). 이러한 교섭의 장에서 부동적이며 확정적인 정체성은 존재할 수 없다. 주체는 타자의 부단한 개입에 노출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체는 언제나 양가적인 측면을 갖는다. 이는 타자성의 간섭이 있기 때문이다(Bhabha & Rutherford, 2006). 바바는 문화 혼종성으로 생긴 사이(inter) 공간에 주목한다. 독일의 한인 간호여성들이 경험한 문화의 혼종성은 상호문화적(intercultural) 공간으로 구현된다. 특히 독일인과 결혼하여 독일에 오랜 기간 거주하며 장기간의 문화적 협상 과정을 거친 이들은 다중적인 정체성으로 문화적 교섭과 융합을 이루게 된다.

또한 한인 간호여성들은 국가와 가족의 경제를 위해 해외로 이주했다는 점에서 여성의 희생을 상징하기도 한다. 스피박(Spivak, 2008)은 이것을 '서발턴'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하는데, 주체화 과정에서 배제되는 타자들과 타자의 위상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발턴인 것이다. 한인 간호여성들을 애국자, 희생자로 프레임화 하는 것은 이 여성들을 서발턴으로 간주하고, 주체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행위이다.

## 2) 독일의 한인간호여성

한인 간호여성들은 1950년대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독일로 노동이주를 했다. 한인 간호여성 인력의 독일 이주 역사를 보면, 1959년 경부터 기독교 단체들의 중재로 간호 학생을 선발하여 국내 개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독일 파견이 시작되었다. 1966년에는 마인츠 대학의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던 이수길 박사가 주선하여 정식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통해 5차례에 걸쳐 인력수출 유형으로 파견되어 총 668명의 인원을 독일의 병원 등에 취업시켰다. 그리고 독일과 한국 양국은 1969년 8월 간호사 고용에 관한 정식 협약을 맺고 계약조건을 일원화하여 해외개발공사가 중재기관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나혜심, 2009). 정식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128명의 일진 간호사들이 정부의 주도로 1966년 독일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으며, 이후 독일의 경제 침체와 오일 쇼크로 필리핀 등지의 노동력 전환을 이루는 1977년까지 우리 간호사의 파견은 지속되었다. 당시 간호여성 인력 선발은 해외개발 공사의 신문 광고로 이루어졌다(김학선 외, 2009).

한국 간호여성인력의 독일행은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정책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손님의 지위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체류 한계가 정해져 있는 손님 노동자(Gastarbeiter)였다. 상당수가 현재는 해외 한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노동력을 판매하기 위해 3년, 최대 5년까지의 근무 기간을 허용 받고 새로운 지원자로 교체되는 교대 원칙이 적용되는 외국인 노동자였다(나혜심, 2009). 1973년 이후 독일이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을 중단하자 한국 간호 인력의 본국 귀환이 재촉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항하는 한인 간호여성들의 집단적 움직임 속에서 한국 간호 인력의 체류연장에 동의하고 서명했던 독일인들의 도움으로 이들의 체류가 연장되었다. 이들은 병원을 옮길 수 있었고 원하는 기간만큼 간호인으로 일할 수 있었다. 현재 이들은 다문화의 중심국가인 독일 사회



에서 한인 이주민인 소수자의 위치에 있으며 독일 이주 한인의 초석을 이루었다. 이만 명 정도의 간호사들이 독일행을 하였고 현재 독일에 남아 거주하는 간호사들의 숫자는 대략 오천여 명이다. 독일행을 결정한 간호사들 중 약 일천여명은 미국, 캐나다 등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고 나머지는 한국으로 되돌아왔다(김학선 외, 2009).

독일에서 이주의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외국인을 염두에 둔 정책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1970년대 이후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후 복구는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동맹 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서구 유럽의 국가들은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게 되었고 경제적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외부로부터의 노동력 유입이 필요하였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그리고 덴마크에 이르기까지 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유럽 지역과 지중해 지역 그리고 이전의 식민지 국가들로부터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도 제2차 세계대전 중 노동인구의 감소를 경험하였고 마셜플랜(Marshall plan) 이후의 유례없는 경제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소비재 생산 공정을 움직이기에는 노동력이 부족했다. 독일의 젊은이들은 노동조건이 좋은 곳을 선호하였고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곳이나 노동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는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공업화 중심의 '라인 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은 생산 분야에 노동력이 집중되면서 특히 노인과 환자들의 간호를 위한 의료 분야의 심각한 인력 부족에 처하면서 외국의 인력을 수입하기로 정책적으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한국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간호사들은 1965년부터 1978년 사이에 독일 병원협회(DKG)를 통해 3년의 고용계약으로 독일로 이주하게 되었다(이수자, 2006).

이 시기 이주한 독일의 한인 간호여성들은 반세기 가까운 시간을 독일에서 이주자로 살고 있다. 초국적 이주는 국경을 전제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행위다. 이러한 초국적 이주는 전지구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각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며 나타나고, 그로 인해 인종적·문화적·언어적 경계를 넘나드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 3. 연구방법

#### 1) 생애담 연구

생애담은 '삶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생애담 연구는 한 개인의 생애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주목한다. 이 연구는 독일로 이주한 한인 간호여성들을 연구참여자로 하기에 이주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생애 이야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를 생애사적으로 분석방법은 주관성(subjectivity), 시간성(temporality), 이야기성(narrativity) 중 이야기성에 초점을 맞춘 로젠탈(Rosenthal, 2008)의 연구방법을 활용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이야기할 때 선택되는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체험은 삶의 전체과정에서 구성된 고유의 관점에 따라 자리매김 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생애사 텍스트가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보조적 자료로만 활용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생애담 연구는 텍스트 내용과 외부의 역사적 문제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로 나아간다. 비록 생애담 연구가 사건에 대한 사실적 관계 파악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담론적

층위에서 개인 및 집단의 의식 문제를 밝혀내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나아가 개인 및 집단의 사회적·문화적·역사적 인식 연구에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 2) 연구참여자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1970년대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 이주한 한인여성들이다. 현재 연구참여자들의 나이는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으로, 연구참여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	출생 년도	이주 년도	거주지	결혼 상태	현재 직업	현재 국적	자녀
A	1949	1971	마인쯔	독일인 남편과 결혼한 상태	한의사	독일	1남
B	1952	1972	베를린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상태	화가	한국	2남
C	1944	1966	베를린	독일인 남편과 이혼한 상태	사회활동가	독일	2남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베를린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반구조화한 질문을 토대로 2시간~3시간 가량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연구 시작 전 연구참여동의서를 받고 연구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심층 인터뷰의 질문지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이주 전 생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관계</li> <li>- 아동기, 유년기, 청년기의 기억</li> <li>- 독일 간호사로 가게 된 배경</li> <li>- 부모님에 대한 기억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교육관)</li> <li>- 고향에 대한 기억</li> </ul>	
독일에서의 생애주기별 경험	이민 초 병원 및 사회생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 초기 적응해 가면서의 경험들(병원생활, 사회생활, 동료관계, 자조모임 등)</li> <li>-독일의 이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li> <li>-가장 서럽고 어려웠던 점 (언어, 음식, 습관 등 문화차이?)</li> <li>-가장 고마웠던 점(독일인이나 독일 정책 등으로)</li> </ul>
	결혼준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편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li> <li>-남편과 만나면서의 에피소드</li> </ul>
	가족형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혼생활과 임신 출산의 경험</li> <li>-시댁 식구들과의 관계</li> <li>-독일 가정의 문화 풍습이나 관습</li> </ul>
	자녀양육기 및 정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 양육의 경험(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li> <li>-독일의 교육 시스템</li> <li>-독일에서 이주민 자녀를 위한 특별한 교육정책</li> <li>-남편의 자녀양육 개입 정도</li> </ul>

		-자녀 양육, 교육 시 힘들었던 기억과 행복했던 기억 -자녀가 사춘기를 지내면서 힘든 경험
	역량강화기 또는 자립기	-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업교육 및 훈련 -결혼이민자의 자립을 위한 독일정부의 정책 -결혼이민자들의 주요 직업들 -독일인들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독일의 노후에 대한 제도
사회활동 경험		- 사회활동을 하게 된 계기 또는 이유 -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특성 (목적, 활동 사항 등) - 사회활동 경험이 주는 좋은 점 - 사회활동을 하면서 조국에 대한 생각, 조국의 의미 - 한국 사회에 대한 생각의 변화 (이민 전과 후, 국제 활동 경험 전과 후의 차이) - 사회활동을 하면서 향후 계획이나 바람
문화예술 경험		- 자신의 문화예술 영역 소개 - 예술 활동 (개인, 단체 등의 특성) - 예술 활동 경험이 주는 좋은 점 및 관계의 변화 - 지역사회와 예술인으로서 연계 - 예술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생각, 조국의 의미 - 예술인으로서 보람 - 예술인으로서의 어려운 점 - 재능 기부 활동의 여부 - 독일의 문화예술 교육 및 정책 - 예술인으로서 향후 계획이나 바람
한국 다문화사회에 바라는 점		- 한국의 이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 한국 다문화사회에 대한 시각 - 재독 경험을 통해 한국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하여 바라는 점

#### 4. 독일 한인이주여성의 생애담

연구참여자 A의 생애담 (지면 관계상 한 명의 생애담 및 중략)

##### 1) 인터뷰 내용 요약

연구참여자는 1949년 충청남도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결혼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약 결혼을 한다고 해도 한국 남자와는 절대 하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했다.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직원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기회가 많았는데, 한국 남자들이 너무나 가부장적이고 남성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부유했던 사업가 집안이었지만 6·25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10남매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졌다.

영등포에서 초등학교를, 충청도에서 중학교를, 다시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구참여자는 대학을 가기 위하여 입학금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신문에 난 파독 간호사 모집

공모를 보게 됨.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이 컸었음. 한국에서의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독일행을 선택함. 이때는 3년간 독일에 머무를 예정이었음. 2년간 한국에서 간호 관련 교육을 받고, 1971년 독일 뉘른(Dülmen)에 도착했다. 당시 한국 김포에서 출발하여 알래스카를 거쳐 쾰른 본 공항으로 도착하게 되어 있었다.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였는데, 경유지였던 알래스카에서 혼자만 비행기 밖으로 나갔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구참여자는 호기심이 많았다. 그러나 비행기가 자신을 두고 떠나버려 겨우 다음 비행기를 타고(하루 머물고) 독일에 도착하였다.

당시 같은 병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독일인 의사와 사귀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3년 후 마인츠(Mainz)로 병원을 옮겼다. 이듬해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이 4살 때 한국에서 6개월간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의사인 남편이 민속학(ethnology)에 관심이 많았고, 이때 연구참여자는 한국의 민간요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냉병’을 해석하고 치료하면서 독일에서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때 연구참여자는 한국과 독일에서 여성들을 인터뷰하여 직접 연구에 참여했다. 연구참여자의 어릴 적 꿈이 저널리스트였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독일에서 한의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현재는 자신의 이름으로 한의원을 열고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꾸준히 가르쳤다. 아들도 의대에 진학했으나, 인턴을 마친 후에는 다시 한의학을 공부하여 현재 연구참여자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처음에는 독일 시민권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머물던 곳의 시장이 외국인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옆 도시에 가서 시민권을 받고 왔음. 또한 주변의 양의 의사들은 한의를 하는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양의로 치료되지 않았던 환자들이 자신의 한의원에서 치료가 되는 현상들을 보고 신뢰하기 시작했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로부터 점점 인정을 받으며 독일의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한국에서와 달리 독일의 교육에서는 경쟁이 심하지 않다. 독일에서는 학생들의 토론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반해, 한국은 암기 위주의 입시가 주를 이루는 것이 연구참여자는 염려스럽다고 했다. 자신의 아들 또래의 한국의 조카들이나 학생들을 봐도 ‘애기’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성숙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어머니의 보살핌과 교육적 신념으로 자신이 잘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함. 오빠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자매들이 한국에 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아 왕래는 거의 끊겼지만,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가족들이 아닌, 학창시절 친구들을 만나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

독일에서 연구참여자는 꾸준히 합창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합창단에서 소프라노로 어느덧 20년을 넘게 노래하고 있다. 노래를 통해 자신이 많이 치유됨을 느끼며, 합창이 가장 즐거운 여가 활동이며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한의사로서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는 스스로 한 공부만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2) 초국적 이주의 생애담

## (1) 이주 전의 삶

### ① 비혼을 결심한 어린 소녀

유복한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난 연구참여자는 남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의 사업체에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사원으로 있었던 남자들을 남편으로 둔 아내들의 가정생활은 어린 연구참여자의 눈에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사원들은 그녀의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들을 본 것이다.

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절대 결혼 안하겠다고 그랬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4살인가 5살부터, 그때서부터 내가 그런 거 같아. 절대 한국남자하고 결혼 안한다고 그 애기때부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내 생각에 계기가 뭐였냐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집에서 아버지가 세 기업을 가지고 계셨어. 회사라고 해야 할까. 회사를 가지고 계셨는데 거기에 우리집에 종업원이 있었는데 그 시대 때는 차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회사 종업원들 집을 지어서 거기서 살게 만들어야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사는 걸 굉장히 많이 본 거 같아. 그 회사 종업원들은 거기서 결혼도 해서 살고 애기도 낳고 살고. 그런데 내가 그때 볼 때, 아휴, 여자도 두드려 패고, 막 별걸 다 봤어. 내가 그 어렸을 때. 내 생각에 아마 그게 계기였는지도 몰라.

4~5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의 폭력성은 연구참여자에게 결혼은 물론 남자들, 특히 한국 남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1950년대 중반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해 볼 수 있다. 가부장적인 모습은 비단 성인 남성에게서만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의 오빠도 그녀에게 강압적으로 가르치려하고, 위계질서의 상위를 차지하려 했다. 연구참여자와 6살 터울이었던 오빠도 사실, 그 당시에는 어린 소년이었을 뿐이었다.

가까이서 지켜본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의 모습은 연구참여자에게 결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해 주었다. 부모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았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3개월 때 세상을 떠났다. 6·25 전쟁 당시, 아버지가 살해를 당한 아픈 상처가 그녀에게 있다. 그러나 홀로 자녀들을 키운 어머니는 연구참여자에게 존경의 대상이 된다.

### ② 다양한 경험의 학창 시절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연구참여자는 초중고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 다만 각 학교는 모두 다른 지역에서 다녔다. 충청도에서 서울로, 다시 충청도로,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옮겨 다니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지만, 그러한 어머니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주거지를 옮겨야 했지만, 그러한 경험은 연구참여자에게 다양한 삶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도록 했다. 한곳에만 오래 머무르지 않았던 그녀의 학창 시절은 새로운 것,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밑바탕이 된 것이다. 이것은 후에 그녀가 한국을 떠나는 것에 대한 도전에도 영향을 끼친다.

## (2) 이주의 동기

### ① 신문에 난 파독간호사 모집 공고

연구참여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연하게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었다. 대학 입학금도 마련한 상태였다. 그러나 우연히 보게 된 신문 광고를 통해 독일이라는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려고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입학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 내 기억에 내가 돈을 이만큼을 쥐고 입학금을 내려 갔었지. 그런데 중간에 내가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뭐 간호원 어찌고, 독일 가는 기회가 있다고. 간호원 모집을 한다고 그래서 입학금 내려갔다가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왔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연구참여자는 파독간호사(派獨看護士)로서 독일로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게 되었다. 한국을 떠나 낯선 나라인 독일로 가는 것에 대한 열망이 그녀에게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 ② 어머니의 긍정적인 지지

연구참여자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찬성에 힘입어 독일로의 이주를 결심할 수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여긴다. 어머니는 막내였던 연구참여자를 믿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 주었다.

내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독일에 갈 수 있대.’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때 우리 어머니가 현명하셨어. ‘니가 원하는대로 해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 그게 계기가 된 거 같아.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나한테 결정을 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내가 가기로 한 거야.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 현재의 한국사회와 비교해 볼 때, 1960~70년대는 아직 해외로 나간다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면 독일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광고는 연구참여자에게 새로운 삶의 분기점이 된 것이다.

## (3) 이주 준비 단계

### ① 간호 보조 교육

연구참여자는 파독간호사를 신청하고, 교육을 받아야 했다. 간호 보조 교육으로 2년간 한국에서 관련 교육을 받았다. 교육 기간에도 독일로 가겠다는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국에서 전형적인 한국여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거부감이 들었다. 대학 졸업 후, 결혼하고, 남자에 맞추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당시 한국에서의 삶을 떠올렸을 때 그것에 무의식적으로 저항을 한 것이다.

그때 내가 그 교육을 간호 보조원으로 받았어. 2년 동안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했어 그때는. (2년간 교육 받으시면서 흔들리진 않으셨어요?) 아이, 안 흔들렸어. 절대! 내가 지금 왜 그때 안 흔들렸나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내가 아마 그 신문보고 그 순간 벌써 나의 무의식에서 내가 한국을 떠날 거구나. 한국에서는 안 살겠구나. 아 내가 그때 무슨 생각 했냐하면, 내가 대학을 가면 한국에서는 언젠가는 시집 잘 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때 그 시절이 그랬어. 그런데 나는 절대 한국남자하고 결혼 안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에 대학을 여기서 나와 가지고 남자들 마음에 들고 그러면 내가 일도 못 할거고. 내가 활동도 못하고. 옛날에는 여자로서의 그런 삶이 좀 틀렸잖아. 남자에 맞춰야하는 삶이 됐을 거 아니야. 그 시절에는 내가 그게 싫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부터 진짜 페미니스트! 내 생각 하는 게 그랬어.

연구참여자는 페미니스트의 삶을 살고자 하였다. 페미니스트는 젠더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페미니즘 운동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일반적인 여성관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남성과 동등한 기회와 자격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 가부장제의 방식에서 벗어나 여성의 주체적 삶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것을 계획하였다. 요즘은 전세계는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젠더와 페미니즘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지만, 1970년대 한국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연구참여자의 이러한 의식은 매우 앞서 나갔다고 볼 수 있다.

## ② 첫 비행, 알래스카 경유

2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연구참여자는 독일로 떠날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독일행 직항 항공은 없었다. 알래스카를 경유해서 독일로 도착하는 여정이었다. 국제적 이슈로 인하여 노선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기나긴 비행 끝에 알래스카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연구참여자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으나 비행 공포나 두려움은 없었다. 난생 처음 가 본 알래스카에서도 낭만을 즐기며 휴식을 즐길 수 있었다. 노래 가사에서만 접했던 알래스카에 직접 와 봤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였다. 혼자 비행기에 나와서 알래스카의 경치도 감상하였다. 달콤한 산책도 잠깐, 다시 비행기로 돌아왔을 때, 그 비행기는 떠나고 없었다.

알래스카에서 내렸는데, 그렇게 경치가 좋은거야. 그리고 그때 나는 보면 참 진짜로 로맨틱한 여자야. 그리고 그때 무슨 영화, 노래가 있었냐하면 그 알래스카의 경치에 대해서 그 로맨틱한 거에 대해서 노래가 있었어. 한국에서 그 시대에 내가 있을 때 그게 유행이

됐어. 그래서 진짜 내려서 산책을 가는데, 그 노래에서 부르는 거하고 진짜 똑같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산책을 하고서 돌아갔어. 비행기를 타려고. 그런데 내 비행기 떠나버렸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녀는 어떻게든 독일로 갈 수 있겠지 하고 침착하게 기다렸다. 그리고 다음 비행기로 독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신이 비행기를 타지 못 했는지에 대해 분석을 하기도 했다. 막내였던 자신이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사실은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잠재된 무의식으로 인하여 독일행 비행기를 놓친 것이다. 한편, 해외에 처음 나갔던 그녀는 시차를 계산하지 못 했다. 그래서 비행기의 출발 시간을 착각한 것이다.

#### (4) 이주 초기의 삶

##### ① 스물셋, 독일에 도착

1971년, 드디어 연구참여자는 독일에 도착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 독일어를 배우긴 했지만, 매우 기초적인 것만 할 수 있었다. 독일인들을 직접 만나고 처음으로 독일어를 사용하였다. 그렇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시차에 적응할 겨를도 없이 바로 다음 날 새벽부터 간호 업무가 시작됐다.

퀵른 본이라고 그래. 비행장 이름이. 그때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중학교에서 영어 배우고 했으니까 할 수 없지. (한국에서 간호 교육 받으실 때 독일어는 따로 안 배우셨나요?) 그때 조금, 구텐탁(Guten Tag) 뭐 그런 거. (기본적인 것만.) 아 그럼, 말도 못했지. 독일말은 못했는데 그때서야 써먹은거야, 그때.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데리러 왔어 그래 가지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새벽 네 시 반에 수녀들이 와서 우리를 깨웠어.

연구참여자는 뮌스터(Münster)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인 뉘른(Dülmen)에서 처음 간호 일을 시작했다. 막내였던 그녀는 한국에서 떠나기 전날 까지도 어머니의 품에서 잠을 잤다. 23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떨어져서 낯선 이국땅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간호 업무는 새벽부터 시작되었고 잔업도 많았다.

이주 초기 연구참여자는 독일어 능력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은 참지 못했다. 독일어로 할 수 없을 때는 한국어로 자신이 하고 싶은 상대방에게 전했다. 그렇게 ‘마녀’로 소문이 났다고 한다. 그러나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아직은 어린 이방인이었다.

내가 말 못했을 때 내가 그렇게 못 참았어. 내가 참 성질이 그랬나봐. 그런데 말을 못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데, 독일 애들이, 이것들이 나를 이제 무시했겠지. 날 보고 이것도 해 달라,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는 말을 못하는데, 그게 죽



도록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한국말로 다 싸워 버렸어. 한국말로 다했어. 그때 독일 말 못할 때. 근데 애네들이 이해를 했어, 그거를. (웃음) 그래가지고 내가 아마 소문이 났을거야. 한국말로 Hexe<sup>2)</sup>를 뭐라고 그래? (마녀..) (웃음) 날 보고 그랬어. 저 여자, 재는 조심해라, 재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우리 7명이서 병원에서 일 했는데, 나만 안 울고 들어왔어. 나는 못 참겠는 거야. 그런데 내가 처음에 가서 병이 또 들었잖아. 위궤양, 십이지장, 다 염증이 생겼어. 처음에는. 세상에, 아이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내가 그때 그렇게 많이 아팠었어요. (중략) 그러니까 애네들이 그때 막 나한테 재는 말도 못하고 재는 잘 몰라 그랬겠지 처음에 생각해. 그런데 나는 한국말로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그 병원에서 소문이 났었지.

## ② 운명적인 만남

연구참여자는 독일 이주 초기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그녀가 일하고 있던 병원에 실습을 위해 온 의대생이었다. 그 당시 그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잦은 만남을 갖게 되었다. 독일인 실습생이었던 그는 연구참여자보다 4살 연하였다.

뮌헨에서 우리집 남편을 만났어. 우리 같이 일했거든. (독일생활 거의 초기네요?) 그러니까 이팔청춘에 만난거야. 우리는 남편보다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남편이 그때 열여덟 거의 열아홉 될 때. (그때 그 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독일에서는 의사가 되려면 실습을 미리 해야 됐었어. 그래서 남편이 실습하러 왔었어. (실습하는 의대 학생이었을 때?) 그때 그렇지.

결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던 연구참여자였지만 남편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명적인 만남이 그녀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결혼 절대 안한다고 그러셨는데) (웃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운명이 뭔가 있나봐. (운명적인 만남이었네요.) 아휴. (웃음) 그리고 독일에 가서도 나는 절대 결혼 안한다고 그랬는데.

결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연구참여자는 결혼자체보다는 한국 남자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컸었다. 수녀가 될 생각까지 할 정도로 결혼을 반대했지만,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했다. 만약 자신이 결혼을 한다면 미국인 혹은 영국인과 할 것이라고 했을 정도였다.

## ③ 러브 스토리

연구참여자는 남편에게 첫 눈에 반했다기보다는 함께 일을 하면서 정이 들었다. 남편이

---

2) witch

한국에 관심을 보이자,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특히 같은 병원의 수간호사가 연구 참여자를 잘 챙겨 주었는데, 특별히 실습생이었던 남편에게 자신을 부탁하기도 했다. 초창기 독일 생활에서 연구참여자가 외롭지 않도록 주변의 관심과 배려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한국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서 날보고 한국말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나는 한국말 읽고 쓰고 하는 거 다 가르쳐줬었어요. (아 그래서 한국말 잘하시는 이유가 그때부터..) 읽고 쓰고 다 내가 가르쳐 준거지. 역사도 나보다 한국 더 잘 알아. (웃음) (남편분이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나봐요.) 많았지.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읽고 쓰고 하면 관심이 많아지고. 말이라는 게 그래. (두 분이 한국에도 같이 있으셨네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점이 없었어. 다른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뭐 걱정, 먹지 않아서 걱정, 우린 그런 거 없어.

한국과 한국어, 그리고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남편으로 인해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더 많아졌다. 특히 한국어를 통한 두 사람의 교류는 남편이 아내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 언어는 상호문화적 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음식도 문화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 1983)는 음식과 요리의 구조주의적 분석을 통해 날 것과 익힌 것의 대립을 자연과 문화의 대립으로까지 파악했으며, 왓슨(Watson, 1987)은 “함께 먹음(commensality)”의 행위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기제라고 했다. 이처럼 음식은 문화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며, 어떤 음식을 누구와 함께 먹는가 하는 것은 가족 내에서 의미 있는 의식(ritual)이 된다(최승은, 2019). 따라서 연구참여자와 남편이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문화와 정서를 나누는 행위가 된다.

#### ④ 연애 3년 후, 결혼

연구참여자의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은 병원에서 실습을 마치고 다른 도시로 가게 되었다. 반면, 연구참여자는 저널리즘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다. 서로 떨어져 지내야 하기 때문에 헤어질 위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그 때 독일에서 함께 있자는 남자친구의 말에 연구참여자는 결혼을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것이 독일 남자의 프로포즈였던 것이다. 그 당시 남편은 아직 학생이었지만, 그런 것은 그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남편이 이제 거기서 실습을 끝내고 울름대학(Universität Ulm)으로 갔어. 그때 무슨 과가 있었느냐하면 지금 말로 하면 컴퓨터를 배우는 시초인거야. 그런 과가 있었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배우는게 있었어. 메디씨니슈 콤퓨터(Medizinische Computer)<sup>3)</sup>라고. (중략) 결혼은 삼년 사귀고 했는데, 나는 내가 그때 사실은 뭐가 되고 싶었냐 하면 기자가 되고

3) medical computer

싶었어. 그래서 나는 저널리즘(Journalistik)<sup>4)</sup>을 공부하려고 미국으로 가려고 생각했었는데, 3년 사귀다가 정들고, 그러다가 나보고 하루는 그러더라고. 3년 되고 그랬으니깐 내가 결정을 또 해야 되거든. 독일에서 같이 있자고, 같이 살자고 그러더라고.

결혼식은 독일 스타일로 진행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거나 많은 하객을 초대하는 한국에서 흔히 생각하는 결혼식이 아니었다. 게다가 당시 연구참여자의 어머니가 별세하여 간단히 예식을 진행하였다. 당시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마음과 그리움이 크게 작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독일로 이주한지 3년 정도 지났을 때 결혼을 하고, 점점 독일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었다. 병원에서의 업무도 익숙해지고, 이후 마인츠(Mainz)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병원에서 다시 간호사로 일을 계속 해 나갔다.

## (5) 또 다른 삶의 전환점

### ① 연구를 위한 한국행

연구참여자는 마인츠로 이사를 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남편의 학교와 그녀의 병원이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한 것이다. 이곳에서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계속되는 이주의 삶 속에서도 아들의 탄생은 이전과 또 다른 세계였다. 아들이 4세가 되었을 때, 가족이 한국에서 6개월간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남편이 민속학 교수와 인연이 닿아 한국에서 관련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인츠에서 병원에 가서 또 3년 일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을 낳고. 아들 하나 낳고 그렇게 해서 지냈지. 우리 아들이 네 살 때 우리가 한국으로 왔어요. 6개월 동안.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았지. 에트놀로지(Ethnologie)<sup>5)</sup> 분야 교수가 있었어. 그 여자교수가 한국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15년 일을 하셨던 독일 분이야.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남편이 벌써 에트놀로지에 그때부터 관심이 있었어.

연구참여자의 남편은 민속학적인 관점에서 의학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학생 신분이었던 당시 남편의 사정으로는 한국에서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에서 논문을 집필하게 되었다. 특히 민속학적인 관점에서 '냉병'에 관한 연구를 한 것이다. 원래 현지연구 지원은 3개월이었지만, 연구주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6개월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기자가 되고 싶었던 연구참여자는 이 연구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남편의 연구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민간요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의학 분야에

---

4) journalism

5) ethnology

서 일을 하다 보니, 한국을 다시 찾았을 때에는 민간요법들이 민속학적 관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직접 목격한 사례들을 통해 약초나 민간요법에 대해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 ② 나의 길, 한의학(韓醫學)

6개월이 지나 연구참여자는 다시 마인츠로 돌아왔다. 그 당시 그녀는 병원 일을 쉬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러다 한의학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때도 애 키우고 일은 안하고. 그런데 하루는 산책을 갔는데, 내가 갑자기 '내가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아는데, 나는 나물도 많이 알고 꽃도 많이 알고. 이거를 뭐 직업으로 해볼게 없나.' 그 생각을 했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한의를 공부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때 한국 다녀오신 것이 계기가 되면서?) 그렇지!

연구참여자는 독일에서 한의학을 공부했다. 한국에서 한의를 공부했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독일에서 관련 분야의 공부를 꾸준히 하게 되었다. 이후 그녀는 1985년경 마인츠에서 처음 한의원을 개원했다. 시작은 편견과 무시로 쉽지 않았지만, 의술로써 자신의 실력을 입증한 그녀는 독일의 의사들도 그녀의 한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녀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녀가 어떤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지 궁금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아픈 의사들이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아픈 환자들을 그녀에게 보내기도 했다.

## (6) 자유롭지만 확고한 교육 철학

### ① 한국어 교육

연구참여자는 독일에서 아들을 키우면서 확고한 교육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다. 특히 매주 금요일에는 한국학교에서 한글은 물론,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아드님 어렸을 때 혹시 한국말로 가르치셨나요?) 그럼! 나는 한국말 했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한국말 읽고 쓰고 다 할 줄 알고. 우리 남편처럼. 아빠도 읽고 쓰고 다 하고. (그러시구나.) 그럼.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독일 같은 경우에, 그때는 금요일 오후에 학교를 갔어요. 한국학교를! (한국학교를요?) 그럼. 몇 년을 끌고 다녔지. 해야지. 그러니까 애가 지금 5개 국어, 6개 국어를 하는 거야. 그렇게 기반을 해 놓으면 말을 빨리 배우더라고.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던 어머니 덕분에 아들은 독일어와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

양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됐다. 모국어(mother tongue)는 자녀의 언어 능력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자녀와 어머니의 상호 소통과 정서적 교류에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 ② 자녀에 대한 믿음

연구참여자는 자녀 교육에 대해 그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교육의 방식은 절대 강압적이거나 주입식이 아니었다. 자녀를 믿고 지켜보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자녀의 결정을 존중해 줌으로써 자녀와의 관계에 신뢰가 쌓이게 된다. 가정에서의 충분한 사랑이 밑바탕이 된다면 자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는 아들한테 이거해라 저거해라 그런 아이디어가 말 하지도 않았거든요. 내 생각에 자기가 혼자 결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자식을 그냥 내비 두고서 기본적인 거 해 주기만하고 그러니까 되는 거 같아.

한국의 교육을 바라보면서 연구참여자는 지나친 경쟁과 '1등'만을 바라는 방식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냉혹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은 그 나이 또래에 누려야 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놓치게 된다. 독일의 교육과 비교해 볼 때, 한국 학생들은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이 월등히 많지만 풍부한 경험의 기회는 훨씬 부족한 것이다.

## ③ 성숙한 사고와 대화

연구참여자는 독일에서 독일 학생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많이 만났다. 이십대의 독일 학생과 한국 학생은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 그것은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이었다. 다양한 경험을 한 독일의 학생은 십대를 지나 이십대가 되면 스스로를 책임지게 되고, 성숙한 사고와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은 공부는 많이 했지만 진정한 교육(Bildung)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교육에서 또 다른 폐해는 부모의 문제로 연결된다. 자녀의 성공 여부에 따라 부모가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자신의 못 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위해 자녀를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 7) 안정된 이주의 삶

### (1) 사회적 활동

#### ① 한의사로서의 자부심

1985년 독일에서 한의원을 개원한 이래 현재도 한의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처음 독일로 떠났을 당시에는, '파독간호사'라는

모집 공고를 통해 직업을 갖게 되었지만, 이후 스스로의 길을 찾아 한의학을 공부하고, 지금도 연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며, 이러한 일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었다. 여성에게 일은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주체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계속 하는 거지. 지금부터 20년도하고. 욕심이 많아서 사는 게 재미있잖아. 아프지만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한 130년. (웃음) (워낙 정정하셔서, 건강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일을 하려고 그러냐하면 나는 일 하는게 나를 더 진짜가 되게 해. 내가 살아가는데 더 힘 있고, 에너지 있고. 나의 레벤스크발리테트(Lebensqualität)<sup>6)</sup>, 뭐라고 그래 한국말로? (삶의 질.) 진짜 그걸 높여주는 거 같아, 내 자신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20년 더 일할 거 같아. (선생님 말씀은 모든 여성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세상에 그게 있어. 내가 진짜 이 의학을 했잖아. 공부를 했잖아. 그건 항시 자기 거예요. 다른 건 내게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하다보니까 공부하는 내거더라고! 공부만큼은 내거야. 진짜로 그래요. 왜냐하면 나도 진짜 아 힘들었지. 애도 키우면서, 남편도 일하고. 대학 다니면서 힘들었는데, 이야, 내가 그때 진짜 부지런하게 한 게 지금 다 나타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를 한 연구참여자는 일이 자신을 더 ‘진짜’가 되게 한다고 한다. 자신의 일을 통해 주어진 내가 아닌 진정한 나로 되어지는(becoming) 것이며, 나의 진정성(authenticity)을 발현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돈이나 명예보다 ‘공부’가 자신의 것이라 확신한다.

## ② 월드키마(World-KIMWA)와 코윈(KOWIN)

월드키마<sup>7)</sup>와 코윈<sup>8)</sup>은 대표적인 국제적 한인여성 연합 모임이다. 연구참여자는 이 모임들에서 임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국 여성들의 모임의 구심점이 되면서 일년에 한 두 차례 모국을 방문하기도 한다. 특히 2019년 월드키마 행사에서는 다문화 가정 후원을 위한 기금도 전달하는 증정식을 갖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은 여성의 연대(solidarity)를 보여준다.

### (2) 문화예술 활동

#### ① 20년 넘은 합창단

연구참여자가 합창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마인츠에 있는 한인 여성들이 모임을 있을 때 합창을 배우면 좋겠다고 하여 시작한 것이 벌써 20년이 넘었다. 오랜 시

6) quality of life

7) World-KIMWA(World Korean Inter-Married Women's Association,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8) KOWIN(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간을 함께 해 온 합창단원들은 이제 하나 둘 나가기도 했지만, 20명이 넘는 단원들이 2년에 한번 씩 공연을 하고 있다. 사회생활 가운데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은 연구참여자에게 큰 활력이 된다.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선생님 합창하실 때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이렇게 노래한다는 게 운동이야. 해보니까 노래가 아주 좋아. 노래하고 나면 아주 그냥 땀도 나고 기분도 좋고!

### ③ 합창단에서 만난 부부들

한의원 일로 평소에는 바빠서 한국 사람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합창 연습을 위해서 한국 여성들을 만나게 된다. 합창단을 시작한 것도 본인의 의지에서였다. 또한 여가 생활에서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합창 연습에 집중을 한다. 이 합창단에는 독일인 남편이 있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남편을 둔 여성들도 있다. 연구참여자가 보기에 한국인 남편을 둔 여성들은 지쳐 보였다. 그녀들은 남편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들은 남편의 식사 준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남편을 위해 밥을 차리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서로의 상황에 맞게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녀는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 결혼 생활에서 아내의 역할이 단지 가사(家事)로 한정되는 것을 거부한다. 남편과는 신뢰와 사랑이 담긴 수평적 관계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3) 한국 사회에 전하는 이야기

### (1) 주체적인 삶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결혼이주여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연구참여자는 비판적이다. 이주의 계기가 자신과는 달라서 새로운 곳에서의 삶이 다를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외국인을 차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인 연구참여자는 정부차원에서 이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다문화 정책에서 이주민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도움을 주려는 태도는 오히려 이주민들을 더욱 타자화(他者化) 하는 것이다.

내 삶을 내가 다 책임지고 살아야지. 뭐 남한테 도움 받으려고. 안 그래? 말도 내가 가서 배우고 다 해야지. 뭐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도 없고. 없어! 다 메이드 인 셸프 (made in self). (스스로.) 그럼. 스스로! 도움 그런 게 어디 있어.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초창기 독일 생활을 떠올리면서 도움을 받은 경험을 거의 없다고 했다. 무엇이든 자신이 책임져야 하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하는 것을 강조했다. 초국적

이주를 통한 새로운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 (2) 보여지는 내가 아닌 보는 나를 찾기

한국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 지, 체면이 중요한 사회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에게는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화하는 것이 중요했다. 특히 한국의 결혼식 문화에서 이런 보여짐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허례허식이나 예물, 예단 문제는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에서 반지 하나씩 하고 결혼식을 했던 연구참여자에게 한국의 결혼식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누구 엄마로 불리는 것에 대해 연구참여자는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금도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연구참여자에게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긴 세월 독일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친구들을 찾으려 해도 누구 엄마인지 알아야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난감했다.

그래도 한국 경치가 좋아.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데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논 애들을 한국 와서 찾으려니까 아무도 못 찾는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여자가 결혼하면 이름이 없어져버려. 그 시절 때는 그랬어. 누구 엄마인줄 알아야해. (아, 그러네요.) 아직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바뀌야 할 게 많아. 여자들도 할 일이 많아. 남자한테 바라면 안 된다. 자기네들이 해야 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아직 그거를 잘 못하는 거 같아.

자신의 ‘이름’을 잊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여성들이 남자에게만 의지하거나 바라면 안 된다고 연구참여자는 강조한다. 나를 잊지 않는 여성으로 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 (3) 인간에 대한 예의

한국을 흔히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만 연구참여자는 오히려 독일 사람들이 더 예의가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의 이주자로 사는 것은 분명 고생스러운 일이었지만,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러한 경험을 ‘재산’으로 여기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내가 독일 갔을 때 우리 한국이 진짜 예의바른 나라고 뭐도 좋고 하는데 그게 한국남자들 하는 것 하는 행동이나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건 아니야. 그런데 나는 내가 독일에 가서 고생한 거 자체도 나는 그거를 큰 재산으로 봐요. 내가 그때 고생을 안 했더라면, 한국남자들이 그렇게 다들 진짜 예의도 있고 인간미가 되어있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돼 있을 거야.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그 고생한 거를 진짜 하나의 재산으로 보아요. 내가 그때 고생 안 했으면 내가 내 삶을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여성을 돈을 주고 사 오는 것에 연구참여자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예’와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이 가난했을 때 많은 여성들이 직업 전선에 뛰어 들어야 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내가 독일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내가 왜 독일에 갔나. 그런데 또 이유가 있어. 그때 그 시절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였고 부자나라였고 또 그랬더라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주 자신만만한 나라였다면 내가 여기 갈 필요가 없었잖아. 인간은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하나의 나의 불행이 될 수가 있어. 그렇지만 나는 그 불행을 가지고 외국을 갔지만 나는 그 불행했기 때문에 내가 발전하는 힘이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번 신문에서 보고 그러면 한국에는 뭐가 있냐하면, 여자를 사 가지고 오는 거. 그게 마치 노예라는 생각이 들어. 하여튼 그래서 나는 참 슬퍼요. 사실은 많이 슬퍼요. 한국사람 자체들도 썩어있으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나는 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도 자기나라에 부자 아니고. 가난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 마음이 아프지.

#### (4) 한국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비판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 조성된 독일마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제결혼과 독일, 한국의 문화, 정서적 측면이 융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이제 행정적인 처리의 편의성에서 벗어나, 상호문화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 5. 독일 한인이주여성의 정체성

많은 한인 간호여성들은 첫 3년간의 계약기간을 독일에서 지내며 변화된 시야를 갖게 되었고 한국 방문을 통해 이를 확인하면서 독일 체류와 결혼을 결정하였다. 독일 여권과 독일 성, 시민권을 갖게 된 후 실제 생활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의 극복은 쉽지 않고, 또한 한인끼리의 결혼생활도 독일의 생활에서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이들의 자녀들은 독일에서 태어나 독일인으로 자라는데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한국적 정서와 인습 등을 두고 부모와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독일 사회의 소수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으며, 모국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한인 간호여성, 즉 독일에 정착한 이주민으로서 독일인이지만 완전히 그 속으로 동화되지 못하고 자아/타자의 이분법적 논리 안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타자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이중적이고 다중적인 정체성을 엿볼 수 있다.

독일의 한인이주여성은 “탈 영토화된 존재, 즉 현재 거주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국민국가의 경계를 횡단하는 존재(Safran, 1991)”이다. 노동을 통한 디아스포라적 이주 경험을 갖는 한인 간호여성들은 체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독일 사회에 정체성을 협상하게 된다. 이는 거주국 사회에 이주자의 신분으로 편입되고 거주국에서 인구와 권력 측면에서 소수집단인 한인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동

화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색 소수 민족으로 다수의 지배 집단으로부터 구별되고 차별받는 상황에서 한인이 독일 사회로의 완전한 동화는 거의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주 한인은 거주국 사회의 제한된 기회구조 안에서 신분 상승을 추구하면서 모국의 민족 문화와 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수용의 전략(윤인진, 2003)을 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영구 정착을 결정한 독일에서도 자신의 모국인 한국에서도 타자들이다. 한인 간호여성들은 자신들이 수용한 독일 문화와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인 한국 문화를 동시에 공유한다.

서구의 타자로서 동양인 여성으로 한인 간호여성의 타자성은 문화적 차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한다. 완전히 동화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경계를 넘나드는 정체성의 영역에서 이주 여성들이 정치,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 개입이나 비판적인 협상, 평등한 문화교섭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독일의 한인여성들은 생활을 매개로 한 개인적 차원에서 문화적 융합과 이들이 속한 공동체 내의 문화적 교섭을 통해 다중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예선(2005). 문화콘텐츠로서의 ‘살아온 이야기’ 연구, *겨레어문학*, 34, 147-168.
- 김학선 외 (2009). 파독간호사 삶의 재조명. *한국산업간호학회지*, 18(2), 174-184.
- 나혜심(2009). 파독한인여성 이주노동자의 역사. *서양사론*, 100, 255-285.
- 이수자(2006). 지구화와 이주과정에서 발현되는 문화혼성성: 재독 한인여성과 재한 외국인 여성의 문화적응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6(2), 191-228.
- 최승은(2019)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관계에 관한 상호문화적 해석, *문화교류연구*, 8(2), 143-168.
- Arendt, H. (1996). *인간의 조건*. 이진우. 태정호 역. 한길사. 1996.
- Bhabha, H. K. (1990). *DissemiNation: time, narrative, and the margins of the modern nation*. Routledge.
- Bhabha, H. K. (2002). *문화의 위치*. 나병철 옮김. 소명출판.
- Lévi-Strauss, C. (1983). *The raw and the cook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habha, H. K., & Rutherford, J. (2006). *Third space*. *Multitudes*, (3), 95-107.
- Rosenthal, G. (2008). *Interpretative Sozialforschung. Eine Einfhrung*(2). Weinheim und Munchen: Juventa.
- Safran, W. (1991).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A journal of transnational studies*, 1(1), 83-99.
- Spivak, G. (2008) *다른 세상에서: 문화 정치학 에세이*. 태혜숙 역. 여이연.
- Watson, J. L. (1987). *From the common pot: feasting with equals in Chinese society*. *Anthropos*, 389-401.

# 중앙아시아 결혼이주여성 생애담 연구\*

황해영(인하대학교)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삶의 이야기를 그들의 문화적응과 정체성협상이라는 면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에서는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송출국과 이주국사이에서 이중적 위치로 다양한 갈등적 상황 속에서 나온 삶에 대한 열망과 적극적으로 삶에 대응하는 행위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중앙아시아는 옛 소련의 5개 공화국을 지칭하며 1992년 과거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에 포함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지역적 의미로 연구참여자 범위를 넓혀 CIS지역 출신 결혼이주여성 외에도 몽골 러시아출신 결혼이주여성까지 확장하여 총 20명의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나 그들의 이주 전, 후의 다양한 삶의 맥락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2인의 생애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사회 내 체류외국인 수는 2020년 1월말 243만명으로 이주민 비율이 전체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 체류외국인은 중국 44.2%(1,073,554명), 베트남 9.3%(226,157명), 태국 8.3%(200,951명), 미국 6.3%(152,993명), 우즈베키스탄 3.1%(75,908명) 등의 순이고 러시아는 2.4%(60490명), 몽골(2.0%(49,765명)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국가는 러시아, 태국, 미얀마, 몽골, 홍콩, 네팔,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순으로 이주민들의 출신 국가는 계속 다양해지고 있다(법무부, 2020). 또한 현재 국내 결혼 이주민 숫자는 약 30만 명이고 이들의 자녀도 20만 명에 이른다. 결혼이민자의 약 80%는 여성이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여성 10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결혼이주자 수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2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고, 각 공기관 및 시민단체가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위탁사업을 경쟁적으로 수령할 만큼 정부와 민간영역으로부터 많은 지원이 있었고,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무수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 왔다.

다양한 정책적 노력 속에서도 한국형 다문화정책은 한국사회 이주여성을 포함한 이주민들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그들의 실제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적 분포를 보이는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연합(CIS)국가, 몽골 등에서 온 이주여성들의 경우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을 심층 면담하여 개별적 경험의 독특성에 주목하였다. 즉 그들의 출신사회 맥락과 수용사회 맥락은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수용사회에서 어떻게 문화적응 전략을 펼쳐나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협상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405802).

## 2. 이론적 배경

### 1) 이주여성 현황(중양아시아계)

인류는 문명이 시작된 이래부터 안전하고 안정적인 의식주들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정주(定住)적 환경을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주해왔다. 인구의 국가 간에 이동 특히 이주여성의 증가 현상은 20세기에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서 아시아 지역인 경우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여성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김현미, 2003). 이것은 국제이주기구(IMO)에 의하면 매년 아시아의 여성 80만 명 정도가 이주자의 대열 속에 합류하고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주여성 수는 480만 명으로 집계되고 이것은 남성의 규모를 넘어서 500만 명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금연, 2003a; 이해경, 2005a).

한국은 지금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이하였다. 2019년 국내 거주 외국인은 2,481,565명으로 국민의 4.7%를 웃돌고 있고,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는 165,205명이 체류하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10월호).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우리나라의 이주여성의 수는 122,552명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들의 국적은 중국 36.4%, 베트남 26.7%, 태국 3%, 미국 6.7%, 우즈베키스탄 3.0% 등의 순이고 러시아는 2.5%, 몽골 1.5%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국가는 러시아, 태국, 미얀마, 몽골, 홍콩, 네팔,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순으로 이주민들의 출신 국가는 계속 다양해지고 있다. 이 중 중양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국민의 배우자 국적별 지역별 현황(2019. 9.30) 재구성

	총계	우즈베키스탄	몽골	러시아(연방)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총계	<b>162,392</b>	<b>2,468</b>	<b>2,446</b>	<b>1,462</b>	<b>502</b>	<b>343</b>
경기도	47,527	728	888	401	155	107
서울	27,927	291	473	336	67	57
인천	10,795	201	189	135	39	35

\* 이 표는 중양아시아 지역 출신 결혼이주여성 통계자료임

이밖에도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혼인귀화자는 2019년 10월 133,815명으로 국내 거주 결혼이주민 숫자는 약 3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의 자녀도 20만 명에 이른다. 여성가족부(2019)의 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남성 17.3%이며, 결혼이민자·귀화자 85.2%, 기타 귀화자는 14.8%이며,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19.7%, 30대 35.1%, 40대 23.7%, 50대 15%, 60세 이상 6.5%로, 2015년에 비해 29세 이하 연령층은 감소, 30대 연령층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체류기간별로 10~15년 미만 3%, 15년 이상 27.6%로 10년 이상 거주 비율이 절반은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체류 장기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이들의 이주가 자발적 의사에 기반한 독립적인 동기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의사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주 과정에서 이미 국가 간의 위계적 관계와 불평등한 젠더관계에서 이주를 선택하게 되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주여성의 위치는 국가 또는 출신 지역의 지위에서 비롯되고, 이주자와 여성이라는 사회적 지위로 인해 이중으로 불리

해질 수 있는 조건에 처하게 된다. 여성이 처하는 사회적 조건은 사회경제적 배경에서부터 이주자를 차별하는 사회적 인식과 관행, 그리고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부여하는 법적 권한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 위치한다.

## 2) 이주여성과 다문화 정책(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제결혼의 증가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라는 새로운 인구구성을 가져왔으며,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에서 그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한국 사회로 순조롭게 통합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과제가 되었다(설동훈, 2013).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체류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결혼이민자 등 국내 정착이민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의 저하 및 평균 수명의 연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함으로써의 외국인에 대한 국가정책이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통제·관리 위주의 외국인정책은 참여정부 들어 치우 개선과 인권보호에 무게를 둔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됐다.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정책을 프로그램으로 전환 시키는 기관으로 다문화가족서비스 핵심 전달 체계이며,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 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한다(여성가족부, 2019). 2019년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 218개소로 시·도 및 시·군·구 중심으로 설치·운영되고 있고, 서비스 대상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이 이민자의 적응과 정착, 자녀 성장과 부모역할 등 가족생활과 관련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 이들은 60.9%로 2015년에 비해 6.0%p 증가하였다. 그중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 교육(51.8%)에 참여한 이들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임신·출산 지원(45.5%),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교육(4.0%), 일자리교육·일자리 소개(32.9%)의 순으로 드러났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일자리교육·일자리 소개(3.51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교육(3.2점),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교육(3.17점), 각종 상담(3.14점)의 순이었다(여성가족부, 2019). 결혼이주여성들의 서비스 기관, 단체에 대한 인지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91.5%)를 알고 있는 이들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80.3%)를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밖에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회복지관을 알고 있는 이들도 60% 가량으로 드러났고, 기관·단체별로 이용 경험율은 주민센터 이용(7.0%)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47.6%)를 이용한 이들이 많았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이들은 5.3%p, 주민센터를 이용한 이들은 3.1%p 증가하는 등 이 두기관은 이용자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이용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상황으로 나타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적극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체적으로 한국 사회 적응을 시도해 나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 3) 선행연구

2006년부터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논문들도 많아진다. 2010년부터는 해마다 100여 편의 논문들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논문은 많지 않다. 이는 그들이 한국사회로 이주한 기간이 다른 국가 여성들에 비해서 짧고 숫자도 적기에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만 함께 연구되었었다.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주 과정 그리고 적응을 주제로 한 논문들을 볼 수 있다. 김현미 외(2008)에서는 몽골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과 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제이주의 특성상 결혼이주자들의 한국에서 처하는 어려움 중 많은 부분이 출신국으로부터 이주과정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서승현(2019)은 러시아, CIS국가 출신 이주여성(몽골사례 포함)연구에서 해당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유학 또는 취업 등 목적으로 이주하여 왔다가 결혼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출신 이주여성들보다 상대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의 상이함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으며 한국인 선주민들이 혈통주의에 기반한 동화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또 인권실태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여성들은 잠재적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그들은 체류문제에 묶여 폭력을 당해도 혹은 당할 줄 알면서도 침묵한다고 했다.

선행연구 중에는 몽골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가 많은 편인데 한국사회에서 몽골 이주민들은 외모로 구분되지 않는 같은 황인종이자 몽골인종에 속하며, 다른 문화권 이주민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고 여겨진다. 이러한 언어적·인종적 유사성에 더해 한국의 기후가 몽골에 비하여 따뜻하기 때문에, 이는 몽골 여성들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감 없이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몽골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은 그들이 겪는 차별성, 폭력성을 지적하여 왔다. 반자락츠 난딩쨌쩍(2010)은 몽골 결혼이주여성을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보호하려다 그 여성의 남편에게 살해당한 고(故)간체첵 사망 사건을 다루었다. 채옥희 외(2009)는 연애와 중개를 통해 결혼한 몽골 결혼이주여성 18명을 심층면접하여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화적 어려움 등을 살펴보았다. 잉흐볼드 차츠랄(2001)은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몽골 여성 9명을 심층 면접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를 탐구하였는데, 몽골에서의 빈곤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한 시골 출신의 여성들이 선진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기대하였으나 한국에서 그 기대를 성취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윤희중(2013)은 무슬림 이주여성의 이중문화 스트레스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무슬림 이주여성의 외국인 차별에 대한 인식,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도 핵가족 중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차별이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무슬림 이주여성의 인식이 높으면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낮게 나타난다고 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학력이 높은 경우에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이주여성의 이중문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사회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교육 또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이다. 문석우(2010)에서는 광주 전라도지역의 러시아 및 CIS국가 출신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한국어실태조사 그리고 한국문화적응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한국어 교육 실태조사 결과로는 한국어교육 수업을 오전시간대(10-12시)에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했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수업횟수를 늘려주길 원했다. 한국어 구사능력에서는 결혼 후 소통능력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편이었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능력에서 여전히 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국문화 적응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 전에 한국문화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없으나 결혼 후 러시아 및 CIS국가 이주여성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와 적응도는 대체로 높은 편으로 드러났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 대상 연구는 숫자적으로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태조사 그리고 질적연구도 일부 있음을 발견하였다. 양적연구는 대부분 실태조사에 머물러 결혼이주여성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질적연구들도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갈등을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삶을 향한 열정, 그리고 주체적이 삶에 대한

조명이 부족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들의 다양한 삶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생애담의 연대기적 흐름에 따라 행위주체로서 능동적 대응 양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2장 문화적응과 정체성 협상

### 1) 문화적응

적응은 주어진 환경조건에 맞추어 자신을 변용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써 개인의 주체적 의지와 능동성이 강조된 개념이다(김귀옥, 2000). 결과적으로 적응이란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문화변용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롭게 접한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 한다(Berry & Sam, 1997)

문화란 믿음, 태도, 가치, 이상 등을 포함하는 한 특정 사회의 관념과 행동으로 구성된 집합체이다(Carol, R. & Melvin, E., 2012). 인간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화는 특정한 집단과 다른 집단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이주민과 이민의 증대, 그리고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서 각 문화들 간의 만남이 일반화되었다. 이는 여러 가지 문화의 변형과 접촉을 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화접촉은 사회내 접촉과 사회간 접촉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Bochner, 1982). 사회내 접촉이란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접촉이고 사회 간 접촉이란 특정한 사회, 혹은 특정한 문화권에 속한 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회, 혹은 다른 문화권 개인이나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이집단 간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문화접촉은 문화적응(acculturation)의 개념의 토대가 되었다. 문화적응의 개념은 많은 학자에 의해 조금씩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이주민들의 이주국에서의 생활과 적응을 다루는 연구들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문화적응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정진경, 양계민, 2004). 그러나 문화적응에 관한 논의는 그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Redfield, Linton & Herskovits (1936)에서는 ‘문화적응이라 함은 두 개의 구별되는 문화 집단 사이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에서 비롯되는 문화 변화’라고 정의하였다.

Berry (1988, 1991)에서는 문화적응을 이미 가지고 있던 문화 경험에 이차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개인집단들이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박정하, 2014 재인용). 문화적응을 새로운 문화를 접한 결과 나타난 집단의 문화적 변화라고 정의한 정진경, 양계민(2014)에서는 심리적 문화적응과 적응은 개인의 심리에 일어나는 변화를 일컫는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배선식(2016)에서는 문화적응은 이미 집단들이 지니고 있던 원문화 경향에 새롭게 접하게 되는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과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논의한 바가 있다. 그리고 김현주 외(1997)에서는 문화적응을 개인의 가치관 또는 신념, 행동 등을 주류사회의 구성원들의 보편적인 방식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모든 정의의 공통점은 문화적응은 집단적 차원이든 개인적 차원이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주체들의 접촉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문화적응 과정 및 그 양상에 작용하는 요소와 관련해서 Berry(1980)는 자문화와 타문화의 성격, 그리고 이주자 개인의 열의와 희망에 따라서 문화적응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김영순·이미정, 2011 재인용). 한편, 문화적응 과정이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또는 소극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은 개인적 요소 이외에는 주류 집단의 문화의 성격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만약 주류문화가 개방적이지 못한다면 이때 이주자는 주류사회에 순응해야만 하는 압력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Nwadiora & McAdoo, 1996). 문화적응의 정도는 원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의지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접촉과 받아들여려는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주자들의 건강한 문화적응 과정을 위해서는 원문화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배선식, 2016).

본고에서는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총체적 삶에 대해 기술하기 위하여 생애사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즉 개별적인 생애사를 분석하여 그들의 문화적응양상을 살펴보고, 그들의 정체성 협상 형태와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영역분석, 분류분석법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생애담에서는 생애주기별 발달과정에 주목하여 결혼준비기, 가족형성기, 가족확장기, 자기 개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행위 양상과 적응형태를 기술하였다.

<표 2> 문화적응 생애담 분석틀

대주제	소주제
결혼 준비기	이주 동기
	남편과의 만남
가족 형성기	부부관계
	시댁과의 관계
가족 확장기	자녀 양육
	학부모 경험
자기 개발기	학습 경험
	취업경험
	자립경험(이혼 또는 사별)

## 2) 정체성 협상

사회학의 관점에서 정체성(identity)은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집합이다. 그것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정의들로 구성된다.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정의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동일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이 주체화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이진경, 1997: 14). 정체성에 관한 사회학적 관점은 정체성이 자신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기능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테일러(1989, 1991)는 개인이 타인들과의 대화를 통한 상호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자신의 진실 된 내 면의 모습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자아정체성이 확립된다고 하였다. 즉 스스로에게 진실한 개인은 자신의 고유한 언어로 세상과 자기 자신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해 개인의 자아정체성이 형성된다(성지영, 2018: 30). 이와 같이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정의이며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특성을 가진다. 즉 개인의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는 것이다. Tajfel(1974)은 개인의 정체성이 사회적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통해 형성되며, 다른 집단과 차별되는 특정 사회집단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위치를 찾고, 형성하고,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김가연, 2018: 21).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사회는 사회구조와 시공간의 틀 속에 뿌리를 둔 사회 결정과 문화 기획에 따라 재료들을 가공하여 의미를 재배열한다. 이런 과정은 집합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그것은 정당화 정체성, 저항적 정체성, 기획적 정체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정의에서 이주와 관련하여 주목할 정체성은 기획 정체성이다. 기획 정체성은 “어떠한 사회행위자들이든 간에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재정의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고 개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전체적인 의미에 도달한다”는 것



이다(Castells, 1997; 박신규, 2009: 18). 즉 이주자는 새로운 언어와 문화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 정의하는 환경에 처한다. 그러므로 개인 사회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재 정의하며 정체성 협상을 실행한다.

사람은 동시에 여러 개의 상호보완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다(Norton, 2000). 또한, Sarup(1996: 15)은 정체성을 “계급, 국가, 인종, 민족, 성, 종교와 같은 사회적 역할들의 영향력에 대한 선택, 강조, 고려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하나의 서사”로 정의하였다. 즉 사회적 관계와의 상호작용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나 행위의 구체적 결과를 우리가 성찰을 통한 이야기로 나타내게 될 때 정체성이 구성된다는 것이다(조진경, 2016: 25-26). 이러한 정체성은 생애 동안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해체되고 경쟁하는 것으로 특히, 지리적, 심리적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할 때 개인은 기존의 정체성과 새로운 정체성 사이에서 투쟁을 통해 균형을 찾는 과정을 반복한다(Block, 2007a). 여기에서 Block(2007a)이 말한 투쟁을 통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체성 협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홀(Hall, 1996)은 정체성 형성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에겐 자아와 외부의 구성요소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홀은 사회인 사실과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였고, 개인의 해석과 행위 의미에 강조점을 두었다. 이러한 점에서 정체성 형성과정은 개인들의 주체화 과정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박신규, 2009: 22). 이주자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협상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홀(1996)이 말한 개인의 주체화를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앞서 제시한 정체성과 정체성 협상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정체성을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규명이며 개개인은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속에서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신을 새롭게 규정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국을 떠나 거주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는 국제결혼이주 여성 역시 그들의 삶에서 지속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협상하고 새롭게 형성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는 정체성 협상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협상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다양한 정체성이 협상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공존과 화합에 필요한 적절한 지혜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체성 협상의 여러 양상을 기술하기 위하여 분류분석과 영역분석을 진행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개인적, 사회적, 초국적 영역에서의 행위양상을 살펴보고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3> 정체성 협상 분석 틀

대분류	소분류
개인적 차원(감정)	열정
	정체성
	향수
사회적 차원(행위)	문화적응
	자아실현
	종교활동
초국적 차원(참여)	초국적 단체
	본국과의 왕래
	이중언어 교육

### 3장 연구방법

## 1) 생애사 연구의 특성

생애사는 한 개인의 삶을 자신의 언어로 나열한 것을 연구자가 재해석한 것이다. 다시 말해 생애사는 구술자의 생활담을 연구자가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 방법은 내부자의 관점에서 개인의 경험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적합하다. 이처럼 생애사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주관적 의미세계는 그 사람이 속한 문화를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그러므로 생애사 연구에서 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것은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가 속한 보편적인 문화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최영신, 1999). 이러한 생애사 연구(Life history research)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학에서 Campbel(1999), Haglund(2004), Kang & Kim(2016), 여성학에서 Becker Schmidt(1987), Diezinger(1991), Krueger(1991), Alheit & Dausien(2002), 교육학에서 Cole & Knowles (2001), Godson & Sikes(2001), Vithal(2009), Harnet(2010) 등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민성은 외, 2017).

이러한 생애사 연구의 특징은 생애사가 사회 구성원의 행위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자신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 가는 사회적인 규칙의 세마, 지평, 미래를 보는 시각을 하나의 열려진 삶의 계획으로 본다는 점이다(박성희, 2004). 또한 이동성(2015)은 맥락성, 내러티브, 관계성, 인간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조주희(2013)는 삶이 직면한 사회적 제약, 삶의 기회와 전환점 등 일련의 생애 사건 등에 반응하고 그러한 선택과 의사결정이 삶의 질에 연관되고 반영하는지 생애사를 통해 탐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박성희(2008)는 생애사 연구를 통해 생애사적 맥락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게 하고 생애사를 통해 확인한 자기주도적 성장의 잠재력을 발견하며 지나온 삶의 재구성을 통해 또 다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생애사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중앙아시아결혼이주여성들의 총체적 삶을 조망하고 그속에서 그들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양상을 고찰하고 그 경험들의 의미를 기술하고자 생애사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연구참여자

본고에서는 중앙아시아결혼이주여성들의 생애담 연구를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 인터뷰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모두 20명이고 디아스포라 연구소, 사할린 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소개, 그리고 이중언어강사 인력풀을 이용하여 직접 소개 또는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연구참여자를 섭외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이 끝난 후에는 전화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보았다. 본 연구에서 주된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이며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본국에서의 삶, 이주 동기, 이주 후 삶의 모습에 대하여 상세히 질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10년 이상 생활하였기에 한국어 소통에 무리가 없었으며 다양한 삶의 굴곡을 경험하였다. 그들은 연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였고, 자신의 힘들었던 경험들에 대하여 스스로없이 토로하고 면담과정에 공감하는 연구진의 반응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하였다. 자신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들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이혼경험을 한 여성도 있었다. 인터뷰는 연구참여자와의 합의 하에 일정을 정하고 장소는 참여자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주로 이루어 졌으며 경우에 따라서 연구참여자 집에서 진행하기도 하였다. 면담은 2회 정도 진행되었고, 1인당 회당 120분 이상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하였고 녹음자료는 연구참여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기록을 할 때 영문과 숫자가 혼합된 코드를 부여하여 구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의 중첩을 피하고, 풍부하게 기술된 생애담 사례를 10건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기술하였다. 본고에 수록된 연구참여자 정보를 간단

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연구참여자 기본정보

연번	나이	체류자격	거주기간	출신국적
1	45세	귀화	20년	카자흐스탄
2	44세	귀화	18년	우즈베키스탄

연구참여자 1은 옛 소련 시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출생한 45세 여성으로 부모는 모두 재외 동포이다. 12살 때 키르기스스탄으로 이주하였으며 부모님이 13살 때 이혼해서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았다. 러시아에서 동양어과 한국어를 전공했고 대학 졸업 후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직장생활을 하던 중 현재의 남편과 연애결혼 해 중학생 딸을 두고 있다.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당했고 친한 친구가 유태인이라 유태인의 생활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할아버지는 교장선생님이셨고 부모님이 모두 대학을 나왔으며, 자신 또한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해 한국에 정부 초청 장학생 1등 자격으로 유학을 왔다. 이처럼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한국에서의 결혼 이후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대통령 통역을 하는 등 커리어를 쌓았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포크레인 기사와 결혼한 이후에는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다. 유난히 가부장적인 전라도 섬 출신 남편과 시댁과의 갈등이 깊어져서 우울증을 앓았고, 그로 인해 자살충동을 느끼기도 했고 그로 인해 아이를 학대하기도 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목 졸라 죽이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그 트라우마로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기도 했으나 현재는 극복했다. 종교(개신교)와 부부상담으로 가정불화를 극복했으며, 현재는 아이가 중학생이라 엄마 손을 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거리를 찾고 싶으나 통역 쪽에서는 젊은 사람을 선호해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참여자 2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44세 여성으로 현재 한국에서 우즈벡 출신 남편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슬하에 아들 둘 딸 한명을 키우고 있다. 한국에 온지는 2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연수로 그 다음에는 한국남자와 결혼하여 한국에 온다. 전 남편과는 딸 한명을 낳고 이혼하였고 현재 남편과는 아들 둘을 낳아서 자녀 셋을 함께 키우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스킨라니아에서 태어난 연구참여자는 고려인 어머니, 우즈벡 아버지 슬하에서 5남매 중 장녀로 성장한다. 그녀는 장녀로서 책임감을 늘 지니고 있었고 강한 성격과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학구적인 영향력으로 집안 거실은 책으로 가득 차있었고 연구참여자를 포함한 5남매는 모두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을 즐기게 된다. 지금은 막내인 남동생만 우즈베키스탄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의 다른 4명의 여동생들은 모두 한국에서 살고 있었고, 한명은 한국인과 결혼하였으나 지금은 이혼하였고, 다른 한 여동생은 한국 사람과 결혼하였다. 막내 여동생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셋째 여동생 빵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초등학교(11년)동안 성적이 우수하였고, 반장도 역임하여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붉은색 졸업장을 수여받았다(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졸업장). 법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연구참여자는 타슈켄트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교 법학과로 가려고 2번이나 재수를 하였지만 번번히 낙방하고, 그 뒤로 마음을 접고 근처에 있는 직업전문학교로 진학한다. 직업전문학교에서 회계, 재무관리를 배운 그는 졸업하고 마을에 있는 은행에서 2년간 근무한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 연수의 기회를 알게 되었고 어머니의 고향인 한국에 대한 동경의 마음을 가지고 2000년 한국 수원에 있는 회사로 연수를 오게 된다. 그때 그는 마을에서 첫 여자 연수생으로 한국에 오게 됨으로 동네 사람들의 선망

의 대상이었다.

연구참여자는 3년간의 한국 연수생활을 통해 어른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삶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3년간 한국에서 열심히 번 돈을 알뜰하게 모아 3년 뒤 귀국하면서 우즈베키스탄에 아파트 4채를 구매한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연수생들은 월급을 받으면 27만원을 나라에 기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연수기간을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간 연구참여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다시 가고 싶었고 한국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싶었다. 그는 직접 근처에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찾았고 강원도에 있는 시골에 있는 12살 연상의 재혼남과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오게 된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그가 꿈꾸었던 아름다운 한국생활이 아니었다. 일손씨가 좋은 그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남편은 그를 돈 주고 사온 여인, 못사는 나라 사람으로만 취급을 하였다. 첫 딸을 출산하고 그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1년간의 치열한 과정을 거쳐 합의이혼을 하고 딸의 양육권을 취득할수 있게 되었다.

이혼 후 연구참여자는 쉼터 등을 전전하면서 많은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주중에는 식당알바, 주말에는 부자 집 청소 등을 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갔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건축자재 회사에 취직하면서 그 회사 러시아 수출을 이루어 낸다. 그는 그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현재의 남편을 만난다. 결혼이후 현재의 남편과 두 아들을 출산하고 회사와 러시아 무역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 늘어나는 생활비, 그리고 본인의 나이도 적지 않아서 회사에 취직하기보다 창업을 결심한다. 그는 중앙아시아 출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음식점을 차리고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는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고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 실천을 하는 주체적 행위자임이 분명했다.

## 4장 사례간 분석

### 1. 문화적응 생애담 분석

#### 1) 결혼동기

연구참여자들의 결혼 동기는 개인별로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한국 땅에서 삶에 대한 동경, 국경을 초월한 사랑 등 두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하나는 연애결혼인데 연구참여자 1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취직하면서 개인적인 꿈을 이루었지만 이국타향에서 혼자라는 외로움이 두려워 가정을 이루고자 결혼을 한다. 결혼이후 삶은 많은 어려움을 주었지만 종교적인 힘으로 치유 받고 회복하고 부족한 남편이지만 끌어안고 가려고 노력한다. 연구참여자 2는 중개업소를 통해 결혼한 경우인데 한국에서 연수생활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과, 경제적인 풍요를 동경하게 되었고, 한국으로의 안전한 이주형태로 결혼을 통한 이주를 선택한다. 연구참여자의 바탕에는 본국 생활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깔려 있었다. 따라서 여성성과 젊음을 자본으로 과감하게 외국생활을 도전한다. 그녀는 흔히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낙인 되는 가정부양을 위한 희생양이 아닌 새로운 더 나은 삶에 대한 동경이 이주를 결정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품고 결혼하였고 이러한 자신의 주도적인 선택의 결과인 적응의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극복하고 견뎌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본국 가족의 희생양으로 가족부양의 의무를 가지고 한국으로 이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또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이주 동기는 그들에게 한국사회에 융합되고 적응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목

표로 설정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목표는 그들의 적극적인 동화적인 적응형태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그들에게는 한국은 잠시 머물다 떠날 곳이 아니라 내 가정을 이루고, 돈을 벌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인 것이다.

## 2) 가족형성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이 자라면서 익숙해진 환경과 역할이 있는 문화로부터 결혼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로 옮겨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언어, 대인관계 역할기대 등 다양한 수준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습득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이주이기에 한국사회의 가정 속에 깊숙이 진입한다. 따라서 결혼과 동시에 남편과 관계,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망 속에 포위된다. 소수자로서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해온 그녀들로서는 기존의 모든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가치관을 배워가면서 정립해 나가야 하는 국면에 부딪힌다. 한국의 가족들은 흔히 외국에서 왔기에 잘 모를 것이라는 일관된 편견을 내세우면서 집안 어른이라는 이유로 한국 남자라는 이유로 가르치고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불편하더라도 내 생각을 수시로 수정하면서 다양한 불편한 현실들을 경험한다. 이렇게 참고 적응해 나감은 그들에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현실의 난관을 더 어렵게 인지하면서 초기 적응의 어려움 속에서 다양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너무나 바쁜 한국 남편들, 이국땅에서의 독박육아, 한국문화만 강요하는 시댁식구들은 모두 그들이 경험하고 견뎌내야 하는 가족형성단계에서의 어려움들이었다. 즉 개방적이지 못한 시댁이라는 주류문화와 공존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순응해야만 하는 압력 속에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은 높은 학력, 뛰어난 능력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다가 결혼이후 출산과 더불어 가정 주부로 전락하면서 그녀의 모든 능력은 가정생활에서는 별거 아닌거로 치부된다. 남편의 무시, 방치, 외도 등 다양한 폭력 속에서 혼자 육아를 경험하면서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된다. 자살, 이혼 다양한 결심을 해보았지만 결국 그녀는 종교적인 도움으로 다시 심신을 달래가며 삶의 의지를 키울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2도 시댁 그리고 남편의 인정의 부재로 자신과 딸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선택한다. 이혼이후 그녀는 홀로 자녀양육을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자신의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녀는 무역회사에서 일하면서 우즈베키스탄 남성과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지금은 딸 하나 아들둘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가 중요한 요인이다.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을 중심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공 받는 정서적 도움(사랑, 돌봄, 이해, 격려, 긍정, 신뢰, 관심 등의 태도 및 행동), 정보적 도움(사건 해결과 관계된 여러 가지 정보제공 행위를 포함), 물질적 도움(금전, 시간, 생활용품, 음식 등 제공)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자원인 시댁과의 관계가 어려운 연구참여자들은 초기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 3) 자녀양육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를 향한 열정과 달리 익숙하지 못한 낯선 한국문화에 대한 더딘 적응으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은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역할 영역설정과 실천에서는 한계점을 보이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이영애, 2012). 실제로 본연구의 참여자 1번의 경우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높은 학력,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출산으로 인해 독박육아를 경험하면서 심한 우울증을 경험한다. 우울증은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미쳤고 본인도 자멸시킬 뻔 한 끔찍한 경험이었다. 연구참여자가 우울증이라는 늪에 빠져있을 때 그의 주변에는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 남편의 외도, 방탕, 시댁의 무관심, 이웃, 친정, 친구 모두 없이 그녀는 집에서만 고립되어 시들어가고 있었다. 다행의 삶에 대한 의

지로 다시한번 마음을 다잡고 종교를 통해 마음을 다잡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을 받으며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서서히 삶에 대한 희망을 걸어보기 시작한다. 연구참여자 2는 자녀와의 시간보다 홀로 서기를 위하여 일을 한다. 자녀가 어렸을때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주말에는 아이를 데리고 청소가 가사일을 하였다. 주변인들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의 손길도 있었고, 그녀 역시 성실함으로 보답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연구한 유가효(2008)등은 초기의 적응 성공요인을 개인적인 자원인 한국어 능력, 긍정적인 가치관과 노력, 자존감, 자기개발, 결혼동기로 보았으며 가족의 지원은 남편의 지원, 시부모 및 기타 가족원의 지원, 경제력으로 보았다. 한편 사회적지원은 모국인 친구, 종교기관의 지원, 정부 및 기관의 지원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 시댁, 그리고 지역사회지 등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고, 자신들이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했을 때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4) 자기개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기개발은 결혼 전, 결혼 후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학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나 사회적 요구에 맞춰 적응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자기개발의 변화양상도 삶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성장욕구의 조정과 변화의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고의 연구참여자들도 본국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도 한다. 연구참여자 1은 본국에서 높은 학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어느정도 자신의 학력에 기초하여 능력을 펼칠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 그리고 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가족의 지지체계가 없이 혼자 육아를 감당하여야 하였기에 경력 단절, 학업중단을 경험한다. 이러한 결혼 전에 자기개발 욕구가 강했던 그들은 끝도 없는 육아로 고립되고 다시 사회진출이나 취업이 어려워짐을 느끼면서 육아에서도 우울증을 경험한다. 연구참여자 2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속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찾아가 음식점 경영을 성공시킨 경우이다.

본고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결혼이후 자기개발에는 공동되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들은 자녀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강사, 이중언어강사, 고등교육 기회 제공의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하고, 창업에 도움을 받는다. 그들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큰 지지체계였고, 차별의 상처 없이 육아기간동안의 짬을 이용하여 어려움을 상담 받고, 자기개발을 하고, 학습경험을 축적하여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만드는 요람 같은 곳이었다. 즉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의 평생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한정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미를 발견하고 관계성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사고와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또한 그들은 취업교육, 취업 경험을 통해서 사회 문화적 적응의 면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 2. 정체성 협상 사례간 분석

### 1) 정체성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협상 형태는 자신의 민족성, 처해있는 가정환경 그리고 이주 후 한국에서 적

응경험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먼저 고려인 출신 연구참여자 1은 본국에서 고려인으로서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외모적인 차별이나 어려움을 어린 시절에 경험했지만 본국에서는 똑똑하고 자랑스러운 민족이라는 강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은 같은 민족이 사는 나라였기에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고 동경의 대상으로 그리고 자랑스러운 모국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그들을 타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생각하고 같은 한국인으로 대접하지 않았기에 이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과 상처를 경험한다.

연구참여자 2는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결혼이주여성으로 이주를 하였지만 이혼을 하고 자립하여 혼자 아이를 키웠다. 그녀는 재혼은 우즈벡 출신 남성과 하면서 자녀 둘을 출산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그녀는 한국사회의 이주민 즉 한국사람이지만 민족은 우즈벡 민족이라는 복합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주민이지만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이나라를 위해 기여하고 부강하게 만드는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체성의 형성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줄 한국사회가 더 좋아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 2) 자아실현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실현의 목표는 국제결혼 그리고 자녀의 출산과 더불어 경험의 다양성에 따라 조정과 협상을 거듭한다. 결혼 전에 그들은 이주를 통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자아실현의 형태도 드러난다. 그러나 자녀 출산이후 이국땅에서 자녀 양육의 도움이 부족한 현실에서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자아실현 목표를 조정하기까지 위기와 극복의 형태를 거듭한다. 자녀양육시간은 그들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재 형성해나가고 아이를 통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조정하는 기간들이었다. 연구참여자 1은 자녀가 커가면서 육아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자 자신을 위한 새로운 목표설정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사업가로 자신의 사업을 건강하게 운영해 나가고 한국에서 자녀들과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주의 국가 출신으로 독립적이고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따라서 그들은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고, 직업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단 현실의 벽은 높았고, 그들이 극복해야 할 언어적, 문화적, 관계적 어려움도 끊임없이 나타난다. 그들에게 취업현장은 새로운 배움터이기도 하다. 그들은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 땅에서의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학습을 통한 성장과 노력을 거듭하고 있었다.

## 3) 초국적 차원

본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본국과 정착국의 두 사회에 위치하면서 이주여성은 초국가적 가족유대를 경험한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참여는 그들의 현실적 제약을 많이 받고 있었고, 초국적 참여에 대한 실천은 욕망은 있지만 행위로는 많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초국적 차원의 행위양상은 SNS를 통해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자녀들과 함께 친정방문을 하는 것을 통해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모국을 소개하는 등 형태로 드러나고 있었다. 또한,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하면서 본국에서 온 아이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뿌듯함을 느낀다. 거주기간이 오래된 결혼이주여성들에게서는 국내 결혼이주여성 소규모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국 이미지를 높이고, 본국 문화를 한국에 알림을 통해 두 국가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에 있어서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보편적으로 어머니 나라 언어에 대한 관심은 소극적으로 드러났고, 그들은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신감을 잃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바라고 있었고, 고향방문이나 어머니의 출신국을 정확히 알려주는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출신국의 영향력이 영어권이나 중국어권 나라에 미치지 못하기에 자녀의 언어선택에서 영어 그리고 한국어에 중심을 두고 있기에 자녀의 더 나은

발전을 생각하여 모국어교육보다는 한국어, 영어교육에 치우쳐 있었다.

## 5장 요약 및 제언

### 1. 요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탐색하고 문화적응 경험과 정체성협상 경험을 전체적인 삶의 맥락을 통하여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사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경험을 전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조망하였다. 연구 속 다양한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삶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들의 삶이 단순히 구조의 강제에 놓인 수동적인 피해자라기보다는 보다 나은 삶을 열망하거나 다양한 동기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협상하는 역동성을 지닌 주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이론과 정체성 협상이론을 이용하여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을 생애사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그들의 관점에서 한국사회를 바라보고 목소리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행위와 경험의 의미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었다. 두 연구참여자는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삶에 대한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에 대한 생애사적 소개를 통해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누군가에게는 도전을 줄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노렸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 출신이고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되어 풍부한 삶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결혼경로를 통해 이주의 시대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한국으로 이주한다. 그들은 이주와 동시에 자신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 그리고 자녀 양육과정에서의 적응과정, 자기개발을 위한 취업활동 적응이라는 다양한 환경을 경험한다. 그들은 결혼하면서 한국의 가부장제적 구조 속에 편입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그들은 강제로 부여받은 젠더 역할 속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불평등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위치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빈약한 자원을 활용하여 어려운 현실에 적응하고 바꾸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이용한 다양한 취업노력과 구직경험들은 그들이 가정에서 경제권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지위 상승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적극적인 행위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 그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출신 배경별 차별화된 전략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적 목표 설정에 있어서 단계별, 대상별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다문화가정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제언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장 어려운 시기는 바로 출산과 육아시기이다. 친정의 부재와 한국형 남편들의 비 가정 중심의 바쁜 사회생활은 그들을 외롭게 하고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 특히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극심한 육아 우울증을 경험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기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들의 육아 어려움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 자조모임을 적극 활용하여 육아 멘토제, 전문 통역인을 동반한 자녀 양육 상담 등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학구열이 높고 취업욕구가 높게 드러났고, 고학력자도 많이 있었다. 이는 본국에서부터 양성평등의 영향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욕구가 높았기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 양육기 이후 취업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삶 이야기를 통해 다시한번 그들이 수동적 피해자거나 시혜적 동정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구성원으로 인정, 그리고 그들의 적극적인 행위에 대한 정서적 보상이었다. 물론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10여년의 한국생활 속에서 어려운 터널들은 통과하고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시댁과 소통하며 자기개발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에 상처에 대한 아픔보다는 앞날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 면도 없지 않다. 우리가 만나지 못한 아직도 가정에서 시댁의 무시와, 남편의 폭력, 자녀 양육의 우울증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 센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그러한 점에 주의를 기울여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적극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가연(2018).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한국어 학습자의 정체성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귀옥(2000). 월남인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밑으로부터의 월남인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영순, 이미정(2011). 강화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언어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201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4차 전국학술대회.
- 김현미, 김민정, & 김정선(2008). '안전한 결혼 이주': 몽골 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과 경험. 한국여성학, 24(1), 121-155.
- 김현미(2003). 여성의 빈곤화와 이주여성.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2.
- 김현주, 전광희, 이해경(1997). 국내 거류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문화간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연결망을 중심으로. 40, 105-139.
- 문석우(2010). 다문화가정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 조사: 광주, 전라지역의 러시아 및 CIS 국가출신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 민성은, 최성호, 김영천(2017). 생애사 연구의 개념적 모형에 대한 이론적 탐색. 교육문화연구, 23(1), 465-50.
- 박성희(2008). 생애사 연구와 노인교육의 의의, 한국교육인류학회-노년교육연구회, 1-21.
- 박신규(2009).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이주경로별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 : 구미시 결혼이주여성의 이주과정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정하(2014). 다문화이주민의 문화적응에 대한 심리적 접근. 글로벌문화연구, 5(1), 61-88
- 배선신(2016).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정중화 현상과 문화적응-여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승현(2019). 러시아· CIS 국가, 몽골 출신 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적응 및 인권 실태에 관한 질적 연구.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66, 181-217.
- 설동훈(2014). 국제결혼이민과 국민 민족 정체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자아 정체성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3, 278-312
- 성지영(2018). 탈북청소년의 삶과 정체성에 관한 예술기반연구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 여성가족부(2019).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 2019-01
- 윤희중(2014). 다문화사회 적응에 대한 국내이주무슬림의 인식분석-한국사회를 중심으로. 중동연구, 32(3), 155-178.
- 이금연(2003).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 이동성(2015). 생애사 연구. 과주: 아카데미프레스
- 이진경(1997). 경제와사회-근대적 주체와 정체성-정체성의 미시정치학을 위하여. 경제와사회, 35, 8-33.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정진경, 양계민(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조주희(2013). 경도 뇌성마비인 생애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조진경(2016).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의 방과후 영어수업 참여경험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영신(1999). 질적 자료 수집. 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2), 1-2.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www.immigration.go.kr, 2019년 10월호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9, 25.
- Berry, J. W. (1988).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for Primary Prevention. Santa Fe, New Mexico, Working Group on Refugee 'l Mental Health

- Berry, J. W., & Sam, D. L.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 291-326.
- Block, D. (2007a). The rise of identity in SLA research, post Firth and Wagner(1997). *Modern Language Journal*, 91(5), 863-876.
- Bochner, S.(1982). Coping with unfamiliar cultures: Adjustment or culture learning?.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38, 347-358.
- Castells, M. (1997). *Nuevas Perspectivas Críticas En Educaci'on*.
- Hall, S. (1984). Culture, the Media and the 'Ideological Effect'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Eds. James Curran, Michael Gurevitch and Janet Woollacott. London: Edward Arnold. 315-48.
- Kang, E. S. & Kim. K. S. (2016). Life History Research on the Developmental Proces of Mothers Rearing Children with Down Syndrom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ociation*, 34(4), 89-109.
- Norton, B. (2000). *Identity and language learning: Gender, Ethnicity, and Educational Change*. Harrow, England. Pearson Eduation Limited.
- Nwadiora, E. & McAdoo, H. (1996). Acculturative Stress among Amerasian Refugees: Gender and Racial Differences. *Adolescence*, 31(122), 477-487.
-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J. (1936).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 149-152.
- Taylor, C. (1994).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A. Gutmann, Ed..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난민공동체를 통한 재한 난민의  
생활세계경험과 사회통합 과제**

---

**박미숙 (인하대학교)**

# 목 차

- 서론
- 난민의 이해와 난민공동체
- 연구방법
- 연구결과
- 결론
- 사회통합과제



# 서론

---

## ➤ 연구의 필요성

- 1994년 이후 한국으로 난민신청 하는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
- 난민은 일반 이주민과 다른 양상을 보임
- 난민들도 한국의 다양한 영역에서 생활세계를 구축하고 살아가고 있음
- 생활세계 적응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고 사회통합에 필요한 니즈를 정확히 알고 효율적으로 지원이 필요함
- 난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개선 되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구성원

# 서론

---

## ➤ 연구의 목적

- 난민들의 한국생활적응을 위한 생활세계를 인지정서적, 사회제도적 경험 탐색
- 난민의 사회통합 방향 모색

## ➤ 연구의 기대효과

- 난민에 한국인의 인식제고
- 난민의 사회통합정책의 기초자료

# 선행연구 분석

## ➤ 난민 연구(국내)

- 난민과 관련된 법과 정책연구(고문현, 2008; 황필규, 2010; 오승진, 2012; 김종철, 2014; 박인현, 2016; 송영훈, 2016; 장복희, 2017)
- 난민 인권 연구(김종철 외, 2008; 김현미 외, 2010; 진주, 2017; 송효진 외, 2018)
- 민족 별 난민 생활연구. 박진숙·전혜정(2010)은 콩고난민, 유승무 외(2013)와 최영일(2019)은 줌머 난민, 이상국(2016)과 박봉수·김영순(2019)는 카렌족 난민
- 재정착난민에 관한 연구(이지은, 2019; 한영란, 2019; 정공심, 2020)



# 선행연구 분석

## ➤ 난민 연구(해외)

- 난민의 재정착과 통합과 관련한 연구(Hughes, 2019; Hyndman, 2011; Smyth, 2010; Ager & Strang, 2008; Sigona, 2005)
  - 난민에 대한 처우와 사회 공공서비스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IntegraRef, 2008)
  - 난민 인정절차에서 법률상 입증책임 문제를 다룬 연구(Sweeney, 2009; Kagan, 2010)
- 
- 난민연구는 아직 확산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
  - 한국사회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난민의 이해

---

-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이 다른 이유로 박해 받을 위험이 처하였거나 박해 받을 것 같은 공포로 인해 다른 나라로 탈출한 사람
- 2012년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난민정책 포함
- 2013년 7월 난민법 제정하고 난민의 최소한 인권을 보장
- 2015년부터 재정착난민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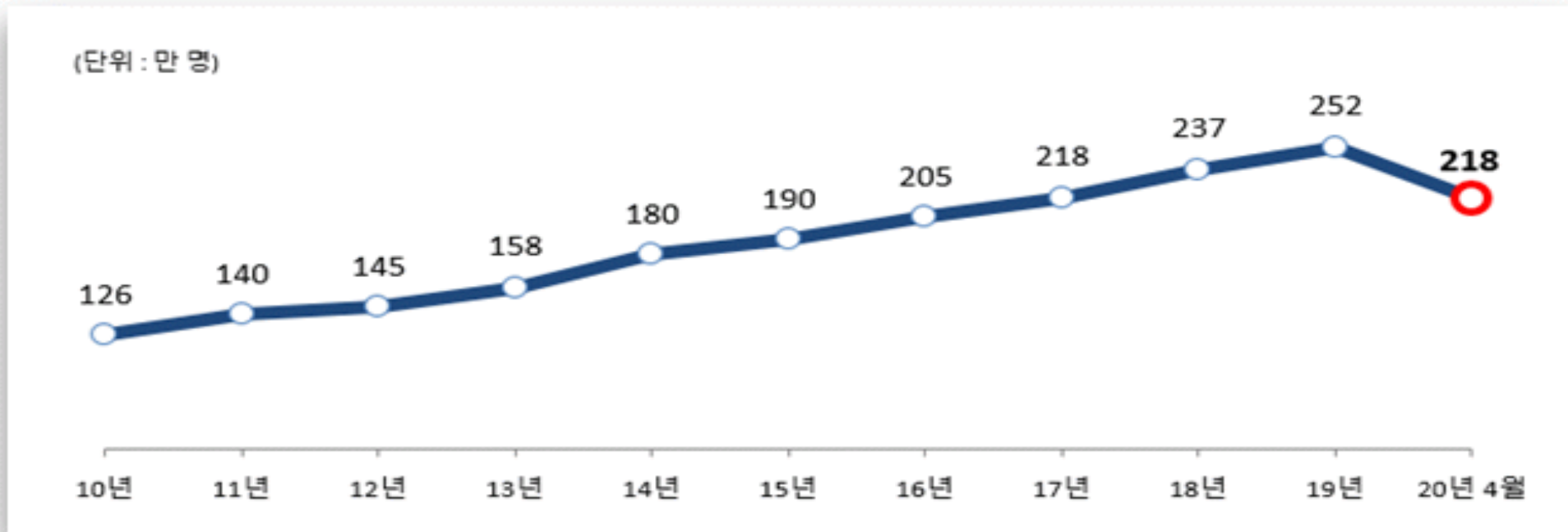
# 난민의 이해

## ▶ 난민의 유형

구분	내용	지원
난민인정자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	생계급여, 주거시설, 의료지원, 교육 지원
인도적체류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있어 따로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음
난민신청자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	취업활동 할 수 없음
재정착난민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	생계급여, 주거시설, 의료지원, 교육 지원

# 난민의 이해

## ➤ 이주민 현황(법무부, 2020.04)



# 난민의 이해

## ▶ 난민신청 현황

	심사완료	난민인정(보호)					불인정
		소 계	인 정	인도적체류	인정률	보호율	
<b>총 계</b>	<b>29,463</b>	<b>3,346</b>	<b>1,052</b>	<b>2,294</b>	<b>3.6%</b>	<b>11.4%</b>	<b>26,117</b>
'94년-'12년	2,646	495	324	171	12.2%	18.7%	2,151
2013년	523	63	57	6	10.9%	12%	460
2014년	1,574	627	94	533	6%	39.8%	947
2015년	2,755	303	105	198	3.8%	11%	2,452
2016년	5,665	350	98	252	1.7%	6.2%	5,315
2017년	5,876	438	121	317	2.1%	7.4%	5,438
2018년	3,964	652	144	508	3.6%	16.4%	3,312
2019년	5,102	310	79	231	1.5%	6.1%	4,792
<b>'20년 1~4월</b>	<b>1,358</b>	<b>108</b>	<b>307</b>	<b>78</b>	<b>2.2%</b>	<b>7.9%</b>	<b>1,250</b>

# 난민의 이해

## ▶ 국가별 난민신청자

1994년~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4월	
총 계	22,791	총 계	9,942	총 계	16,173	총 계	15,451	총 계	4,404
파 키 스 탄	3,601	중 국	1,413	카 자 흐 스 탄	2,496	러 시 아	2,829	러 시 아	927
이 집 트	2,503	카 자 흐 스 탄	1,223	러 시 아	1,916	카 자 흐 스 탄	2,236	카 자 흐 스 탄	559
중 국	2,227	이 집 트	741	말 레 이 시 아	1,236	중 국	2,000	이 집 트	417
나 이 지 리 아	1,345	러 시 아	692	중 국	1,200	말 레 이 시 아	1,438	인 도	367
시 리 아	1,221	인 도	691	인 도	1,120	인 도	959	말 레 이 시 아	349
방 글 라 데 시	1,073	파 키 스 탄	667	파 키 스 탄	1,120	파 키 스 탄	790	중 국	189
네 팔	1,067	나 이 지 리 아	486	이 집 트	870	방 글 라 데 시	491	네 팔	154
스 리 랑 카	802	말 레 이 시 아	448	방 글 라 데 시	608	베 트 남	381	방 글 라 데 시	140
우 간 다	645	방 글 라 데 시	383	예 멘 공 화 국	602	모 로 코	365	파 키 스 탄	130
인 도	587	타 이	296	필 리 핀	507	터 키	320	터 키	126
기 타	7,720	기 타	2,902	기 타 <sup>88</sup>	4,498	기 타	3,642	기 타	1,046

# 난민의 이해

## ▶ 국가별 난민인정자

1994~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4월	
총 계	678	총 계	121	총 계	144	총 계	79	총 계	30
미얀마	230	미얀마	35	미얀마	36	미얀마	34	수단	7
방글라데시	98	에티오피아	23	에티오피아	14	방글라데시	6	파키스탄	7
에티오피아	88	예멘공화국	11	부룬디	13	에티오피아	6	이집트	6
파키스탄	47	이란	11	파키스탄	13	이란	6	부룬디	5
콩고 D R	32	파키스탄	9	예멘공화국	8	예멘공화국	4	예멘공화국	3
기타	183	기타	32	기타	60	기타	23	기타	2

# 난민의 이해

## ▶ 난민의 신청사유

구 분	소 계	종 교	정치적 사유	특정사회 구성원	인 종	국 적	기 타
총 누계	<b>68,761</b>	16,473	12,139	7,034	4,042	397	28,676
당해 연도	<b>4,404</b>	710	666	346	114	87	2,481



# 연구방법

---

➤ 연구기간

- 2019년 5월 - 2020년 3월

➤ 연구방법

- 현상학적 연구

# 연구방법

## ➤ 연구 대상자 선정

구분	성별	나이	모국	민족	체류기간	자녀	직업
연구참여자 1	남	48	방글라데시	쑤머족	19년	1명	다문화센터 강사
연구참여자 2	여	49	방글라데시	쑤머족	12년	1명	음식점 알바
연구참여자 3	여	33	방글라데시	쑤머족	10년	2명	음식점 알바
연구참여자 4	남	31	방글라데시	쑤머족	2년	1명	공장 생산직
연구참여자 5	남	46	미얀마	카렌족	3년	5명	공장 생산직
연구참여자 6	남	34	미얀마	카렌족	3년	2명	공장 생산직
연구참여자 7	여	26	태국	카렌족	2년	2명	공장 생산직
연구참여자 8	여	31	태국	카렌족	2년	4명	공장 생산직

# 연구방법

---

## ➤ 자료수집

- 연구참여동의서 작성
- 심층면담 실시(1-2회)
- 반구조화된 면담 및 개방형 질문
- 면담내용은 녹취 후 전사

# 연구방법

## ➤ 자료분석

구분	내용
인지정서적 경험	언어, 문화, 여가, 상담, 가족 영역
사회제도적 경험	미디어, 복지, 경제, 인권, 교육 영역

# 연구결과

## 1. 인지정서적 경험

### ➤ 모국 음식과 풍습 지키기

“한국으로 올 때 카렌 전통 옷과 카렌 국기 가지고 왔어요, 카렌국기를 집에 달아놓은 것은 저희 부부는 물론 자녀들에게 우리는 카렌사람이다, 그리고 한국사람들이 오면 카렌국기냐고 다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카렌사람이고 이것은 카렌국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전통 옷은 꼭 명절에 입어야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카렌 역사를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연구참여자 5)

“김포 난민촌에서는 김포시의원과 같이 난민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난민절에는 저희들의 가장 큰 축제예요, 이때는 한국의 사회단체들도 모두 함께 행사를 해요, 그때는 우리나라 전통 의상도 입고 시가행진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해요.” (연구참여자 1)

# 연구결과

## 1. 인지정서적 경험

### ➤ 모국어 사용과 자녀에게 가르치기

"소통을 해야 되니까 아이에게 방글라어 가르쳐 줘요, 왜냐면 우리말 못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가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말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아빠 말 꼭 배워야 한다고 말해요" (연구참여자 2)

"우리 카렌사람 모이면 언니가 아이들에게 카렌어 가르쳐줘요, 언니가 대학교 나왔잖아요, 아이들이 카렌사람인데 한국어만 잘하면 나중에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못하면 그렇고 하니까 그래서 매주 가르쳐줘요," (연구참여자 7)

# 연구결과

## 1. 인지정서적 경험

### ➤ 한국어와 한국문화 배우기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어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도 안배우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와서 줌머족 사무실에 와서 선생님에게 배웠어요, 여기 센터가 우리 등지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2)

"카렌은 한국문화와 비슷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할아버지, 아버지 같이 식사하면 아버지 어머니 먼저 드리고 우리 먹어요, 카렌사람들이 모여서 추석엔 어울림센터에 만나서 같이 송편 만들어요, 우리끼리 모여 송편 만들면서 카렌이야기 많이 해요," (연구참여자 8)

# 연구결과

## 1. 인지정서적 경험

### ➤ 종교를 통한 여가활동

"저희 집에는 작은 법당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한국의 절도 자주 가요, "저희 줌머족 센터가 교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 볼 때는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참여하지 않고 그냥 응원만 합니다, 저는 근처의 절에 다니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1)

"일요일에 7시반에 교회차가 와서 데리고 가요, 그러면 같이 가서 속상한 일 있으면 교회가서 사람도 만나고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괜찮아져요," (연구참여자 7)



# 연구결과

## 2. 사회제도적 경험

### ➤ 공동체를 통한 같은 민족돕기

"처음에 한국에서 저희 줌머족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한국정부에서 난민으로 인정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사비를 모아서 전문가를 보냈어요, 현지에 가 보고라고, MBC 기자도 가보고 수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도왔어요, 그렇게 난민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줌머족 공동체에서 노력을 했어요," (연구참여자 1)

"○○씨가 우리 카렌족 대표예요, 그래서 한국생활에서 고민이 있으면 ○○씨에게 얘기해요, 카드를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 ○○씨에게 전화했어요, ○○씨가 도와주웠어요, (연구참여자 6)

# 연구결과

## 2. 사회제도적 경험

### ➤ 다양한 정보 공유하기

"일하는데 우리 줌머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일 저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로 와라 저기로 와라 이렇게 해요," (연구참여자 2)

"제주도 예멘 사람들 온 이후 한국사람들은 난민에 대한 생각이 더욱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 사장님들은 난민은 일 없다고 해요, 어딜 가든 난민이라고 하면 안 좋게 취급 받아요, 그럴 때 공동체를 찾아가요, 사람 뽑는 곳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해요," (연구참여자 4)

# 연구결과

## 2. 사회제도적 경험

### ▶ 한국에서 난민아이 함께 키우기

"자녀들이 공무원하고 싶은데 난민으로 태어났고 대학교도 안 나왔다면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도 한국국적을 취득하려 해요, 난민신분이면 공무원 시험도 볼 수 또 난민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노후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돕지요," (연구참여자 1)

"난민 허가 받고 가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생기고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학교 들어가고 이제 대학까지 나갔어요, 그러다보니 아이들 교육문제, 한국에서 지원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것 찾아주고...." (연구참여자 2)

# 연구결과

## 2. 사회제도적 경험

### ➤ 종교기관을 통한 상호교류

"교회를 저는 종교적으로 보는 것보다 줌머족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고 있어요. 종교는 개인적인 문제이고 이곳에서는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우리들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학교 공동체같이 만들어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이 마음에 들어요." (연구참여자 3)

"우리가 가는 교회는 카렌사람들만 있어서 카렌말도 이야기해요, 교회에 가면 20명 정도 모이는데 기도도 하고 우리민족도 만나고 하니까 좋아요" (연구참여자 8)

# 결론

- ▶ 난민들은 민족공동체를 통해 인지정서적, 사회제도적 다양한 생활세계를 경험하고 있음
- ▶ 난민들은 한국사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여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재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음
- ▶ 이들의 한국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난민들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고 있음
- ▶ 공동체가 게토화를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보다 공동체를 활용하여 난민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

# 사회통합과제

---

- 난민들의 공동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 난민공동체에 대한 내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난민들의 특성과 한국사회 어려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난민을 위한 집중식 언어교육은 물론 체계적인 취업준비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난민의 경제적 자립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감사합니다.**

#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통합을 위한 상담의 필요성과 과제

오영섭(인하대)

## 1. 들어가기

2019년에 집계된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은 160,165명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4년 연속으로 10%이상 증가하였다(교육부, 2019).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에 12,314명에서 16년 만에 유학생의 수가 13배가 늘었으며, 2016년에 10만 명을 돌파하였고, 이러한 추세라면 조만간에 20만 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의 91%는 아시아지역 출신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44.4%), 베트남(23.4%), 우즈베키스탄(4.7%), 몽골(4.6%), 일본(2.7%)의 순서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중국인 유학생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지만, 베트남과 우즈베크 유학생들의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전체 재적학생 수가 3,326,733명임을 고려할 때, 외국인유학생의 비중이 4.8%에 해당한다(교육통계서비스, 2019).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가 대학의 붕괴로 이어지는 한국의 현실에서 국내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재한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국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이해영, 박수정(2019)는 지난 10년동안 발표된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학술지 논문 105편을 분석하였다. 연구주제에 있어서 대학생활적응, 학업적응, 심리적응 등 적응에 관한 연구(64%)가 가장 많았으며, 지원방안(28%), 정책(7%)의 순서로 연구가 되었다.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으로 적응의 주제를 넘어선 연구주제의 다변화, 적응이론 등 관련이론 연구의 정교화, 출신국가 및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 대학의 실제적인 지원방안 및 정책 연구를 제안하였다. 박소연(2018)은 국내 학술지 52편을 분석하여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Baker와 Siryk(1984)의 대학생활적응 모델을 토대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 환경적 적응 등 총 60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중에서 개인-정서적 적응요인이 30개가 될 정도로 대학생활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담개입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김영순, 오영섭(2017)은 외국인 유학생 상담과 관련된 국내학술지와 국내학위논문 79편을 분석하였다. 논문에 대한 내용분석의 결과로서,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가 38%, 심리적 건강에 대한 연구가 26%, 진로에 관한 연구가 13%를 차지하였다. 특히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 직접적으로 심리건강을 다룬 연구가 절반 이상이 차지하였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상담연구의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이상의 연구결과에 보듯이 외국인유학생 정책과 지원에 있어서 기존의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차원에서 이제는 상담 및 돌봄이라는 보다 미시적인 차원으로 논의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학업, 진로, 심리정서 등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상담, 진로상담, 심리상담 등의 세밀한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계 유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상담의 필요성을 어떻게 진술하는지를 살펴본다. 더 나아가서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통합되기 위한 상담의 필요성과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 2. 이론적 배경

### 1) 외국인 유학생 정책

한국은 중국, 인도와 더불어 유학생의 최대 송출국들 중의 하나이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용국으로서 본격적인 정책을 마련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부터였다(김한나, 우한솔, 이승호, 2016, 317). 2004년에 교육부는 Study Korea Project 추진 계획을 통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국내 인프라 개선 및 홍보강화를 추진하였다. 2008년에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유학생의 선발절차 및 학업지도 등에 관한 대학의 업무처리를 표준화하여 안정적인 유학생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2008년에는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을 통해서 2012년까지 10만명 유치의 중장기 목표를 재설정하고 기존의 정책의 미흡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하고자 하였다. 정부초청장학생을 확대하고, 유치국가의 다변화, 선발절차의 강화, 한국어연수 및 영어전용강좌의 확대, 문화 및 생활적응 지원 등의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2009년 외국인 유학생지원관리방안과 외국인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을 발표하여, 유학생 정책의 초점을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질적인 관리로 전환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실대학에 사증발급을 제한하고, 외국인유학생 콜센터 설치 및 대학 내 유학생 전담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글로벌교육서비스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 대학수학, 정주, 졸업 및 귀국 등의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유학생 유치와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였다(교육부, 2010). 2011년에는 ‘우수 외국인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여 유치, 관리, 시스템 측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도입하여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하여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모범적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선정하고 인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수대학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부실대학은 비자발급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였다(교육부, 2011). 2012년에는 ‘Study Korea 2020 Project 추진계획’을 통해서 지속적인 양적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GKS)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의 활성화, 유학생 정주여건개선 등을 추진하였다(교육부, 2012a, b). 2014년에는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지원 방안’을 통해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2014). 2015년에는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 통해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2023년까지 20만명을 유치하고,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대학의 유학생유치·관리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사업을 통한 우수지방대를 지원하며, 유학생의 가족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국내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유학의 매력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국내 정책에 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유지연(2015)은 유학생 관련 정책의

쟁점과 개선과제로서 유학생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 사이의 모순해결, 장학금 수혜액과 기숙사 수용율의 유지에 대한 방안 검토, 유학생 중도탈락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대한 학업·생활·취업 대책 마련 등을 제시한다. 이현주, 이미정(2019)는 2001년에서 2016년까지 교육부와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을 양적확대, 질적관리, 통합관리의 시기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정부와 대학의 향후 과제로는 한국유학홍보 및 정보지원 강화, 생활 및 학업환경개선을 위한 행재정 지원강화, 취업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를 제안하였다. 김성은, 이교일(2019)은 1967년부터 2019년까지 유학생 교육정책의 내용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유학생 유치확대와 관리강화 사이에서 교육정책이 딜레마를 겪었으며, 유학생 증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향후 정책적 과제로서 인지도 높은 학문과 취업연결을 통한 한국유학의 질적 수준 제고, 외국인유학생들의 유학경험 및 본국에서 교육경험의 교육자본으로서 축적 및 활용, 해외 유학선진국의 유학생 정책의 한국화 등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정책과 연구를 살펴보면,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수준을 강화하거나,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외적환경을 마련하기 보다는 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다시 말해서 결과 중심, 양적확대 중심의 정책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김명광, 2019). 현재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아직까지 거시적 수준의 정책, 정부중심의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향후에는 유학생 송출국의 상황, 외국인 유학생의 내재적 동기, 취업시장 및 진로개발, 교육에 대한 만족도 등을 고려한 미시적 수준의 정책, 교육서비스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학생 중심의 정책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김명광, 2019).

## 2)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세계

이러한 한국의 정책과 지원 속에서 외국인유학생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과제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다음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생활세계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요구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주요 연구를 소개한다.

최승은(2020)는 아시아계 유학생의 문화적응경험의 현상학적인 의미를 탐구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의 문화적응 경험의 의미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 '경계에 선 이방인', '언어의 높은 장벽', '인정받기 위한 노력', '커뮤니티를 통한 정서적 유대감', '다양한 관계 맺기', '상호문화적 매개자'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경제적, 학업적 어려움을 위한 대학의 도움, 우수인력 유치 및 정주 방안 강구, 왜곡된 미디어 이미지의 개선, 자조모임을 통한 케어 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정지현, 김영순(2020)은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계 유학생의 소수자 미디어 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소수자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차원으로서는 '제노포비아 조장', '수혜자 삶 클로즈업', '지배적 담론의 순응강요'이라는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소수자 미디어를 통한 실천적 차원으로서는 '저항적 주체', '정체성의 정치', '능동적 구성원'이라는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서 한국사회가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소수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비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필

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미정(2019)은 중국인 유학생의 대인관계 경험에 초점을 두고 탐구하였다. 연구결과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인관계에 도움을 주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 대인관계 형성시의 어려움에는 정치, 교육, 미디어, 언어, 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서 먼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인정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오세경, 김영순(2018)은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생활에서 부딪히는 사회문화적 갈등과 사회통합을 위한 여가경험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사회문화적 갈등으로 차별, 외로움, 관계맺기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친구들과 함께 문화활동을 통해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있으며, 여가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중국인 친구들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고 한국인들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지지체계를 형성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호문화학습기회의 제공, 자기효능감의 향상, 양국인의 학습공동체 형성, 문화적응프로그램의 개발, 사회적 지지체계의 향상을 제언하였다.

정경희, 김영순(2018)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교육 서비스경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한 주요 어려움으로서 교육행정서비스의 불편함, 웹서비스 접근성의 한계, 팀별과제의 어려움, 취업문화체험에 대한 아쉬움, 소수자에 대한 우대정책의 부족 등이 있었다.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적제고, 강의 품질의 제고, 양국학생과 양국교육체제 간의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를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 3) 외국인 유학생 상담의 주요 담론

다문화상담의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오은경 외, 2016), 최근 23년간(1993-2016) 생산되었던 다문화 상담에 관련한 429편의 국내 논문들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2.1%로(8편) 게재 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상담심리에 관련한 9개의 주요저널에서 생산된 최근 34년 동안(1980-2014)의 연구동향을 참고하면(Pendse & Inman, 2017),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가 전체 연구의 1.37%(85편)에 불과하지만, 1980년에 비하여 2014년도에 127% 증가하였다. 유학생 연구의 주요 내용 10가지 중에서 문화적응(34%- 문화적응스트레스, 세계관, 언어능력 등), 심리적 건강(18%- 우울/불안, 적응관련 등), 도움활용 및 도움추구 태도(12%)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은 연구내용이었다.

이런 점에서 김영순, 오영섭(2017)은 최근 20년 동안 국내 외국인 유학생 상담과 관련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담론 지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Pendse & Inman(2017)의 분석틀을 참고하였지만, 미국의 연구와 다른 점은 연구내용 중에서 문화적응(36.55%), 심리건강(24.83%), 진로 및 직업(13.5%)이 가장 많은 연구내용이었다. 미국의 연구내용과 다른 점은 진로 및 직업관련 상담이 세 번째로 많다는 점이었다.

첫째, 문화적응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상담에서 가장 주요한 담론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Berry(1997)의 문화적응이론, Baker와 Siryk(1984)의 대학생활적응이론을 활용하여 외국

인 유학생들의 적응문제를 분류하였다. 다시 말해서 문화적응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제의 진단 및 처방의 주요 요소로서 상담에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심리건강은 유학생 상담에서 두 번째로 주요한 담론이다. 심리건강은 발달적인 관점과 병리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각각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지표를 통해서 측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유학생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등의 긍정적 지표를 향상시키거나, 우울감, 외로움, 중독,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지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담에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진로 및 직업은 유학생 상담에서 세 번째로 주요한 담론이다. 진로 및 직업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궁극적이고 실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진로 및 직업은 개인적인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한국과 모국의 취업환경 등 구조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진로 및 직업관련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상담에서 필수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주요 담론인 문화적응, 심리건강, 진로 및 직업을 연구분석틀로 활용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세계를 검토한 후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회통합을 위해서 어떠한 상담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사례연구방법을 수행했다. 사례연구는 동시대의 현상 즉, 사례를 깊이 있게 그리고 실제 세계의 맥락에서 탐구하는 연구방법이며, 특히 현상과 맥락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방법이다(Yin, 2014). 본 연구는 한국 유학이라는 공통적인 맥락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들에 요구되는 상담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질적 사례연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자료수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2차례의 심층면담을 실시했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자료는 A4용지 기준으로 330여 페이지에 달한다. 연구자는 심층면담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반복비교분석법을 통해서 외국인유학생의 상담적 과제에 대한 내용을 범주화했다(유기웅 외, 2012).

본 연구를 위해서 경인지역에 소재한 대학교들에서 유학하는 21명의 아시아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연구 참여자	국적	나이	성별	전공	학위 과정	이주 연도
1	중국(한족)	26	남	문화경영학	학사	2013
2	중국(조선족)	35	여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박사	2016
3	중국(조선족)	29	여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석사	2010
4	베트남	30	여	다문화교육	박사	2012
5	베트남	24	남	농업경영학	학사	2017
6	필리핀	23	남	언론정보학	학사	2016
7	캄보디아	22	여	건축공학	학사	2016
8	스리랑카	34	여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석사	2015
9	중국(한족)	21	여	아태물류학	학사	2015
10	중국(조선족)	29	여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박사	2010
11	중국(한족)	25	남	기계공학과	학사	2012
12	중국(한족)	27	여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박사	2012
13	중국(한족)	37	여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석사	2013
14	중국(한족)	26	여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석사	2015
15	중국(한족)	30	여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박사	2008
16	중국(한족)	27	여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박사	2014
17	중국(한족)	37	여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박사	2006
18	중국(한족)	28	여	국어국문학	박사	2010
19	베트남	31	여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박사	2012
20	베트남	26	여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박사	2015
21	캄보디아	22	남	정보통신	학부	2016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 유학생은 13명이며, 이 중에서 조선족은 3명이다. 베트남 유학생은 4명, 캄보디아 유학생 2명, 필리핀 및 스리랑카 유학생이 각 1명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16명, 남성이 5명이다. 연령은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에 걸쳐 있으며, 한국에 이주한지 1년 이하로 부터 10년 이하의 학부 및 대학원과정 유학생들이다.

#### 4. 외국인 유학생의 상담적 과제

본 연구에서 외국인유학생의 문화적응을 살펴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적응에 있어서 언어적 어려움, 수업준비의 어려움, 교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적응에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 친구만들기, 자조모임, 여가활동, 미디어활동을 통해서 적응하고자 노력하였다. 개인정서적응에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팀과제의 어려움, 아시아 학생에 대한 편견, 수직적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대학환경 적응에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외교관계의 영향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육서비스에서 불친절한 행정으로 인해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제적인 문제와 의식주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외국인유학생의 심리건강을 살펴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기효능감증진, 여가활동, 배려 경험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했던 반면에, 외로움과 미디어의 편견으로 인

한 충격, 상담접근제한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외국인유학생의 진로 및 직업을 살펴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개인적으로 한국과 모국의 사이를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였지만, 한국 직장교육의 부재, 모국과 다른 취업 혜택의 부재로 인하여 한국보다는 모국이나 국제무대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상담적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상위 주제	하위 주제	주요 내용
문화적응	학업적응	언어	외래어 표기, 실수에 대한 부담, 발음과 읽기의 어려움, 사전의 부재
		수업	발표수업, 이해하기 어려운 수업, 암기만 하는 시험준비
		교수	교수의 관심과 자질, 외국인 교수
	사회적응	친구	한국인 친구의 도움받기, 술자리
		자조모임	자조모임, 협회 및 대사관 모임으로 극복
		여가활동	음악, 여행, 동아리, 학교축제를 통한 교류
		편견해소	팩트체크를 위한 미디어 활동
	개인정서적응	교육문화	팀과제에서 고아같은 나
		편견	서양학생과 동양학생의 차이
		관계	수직적 관계
	대학환경적응	정치	외교관계로 인한 영향
		교육서비스	스스로 해결하기, 불친절한 행정
		경제	장학금의 부족,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음식		학교식당메뉴	
심리건강	긍정적 요소	자기효능감	주변의 도움으로 학업적 성취
		여가활동	여행, 동아리, 독서로 스트레스해소
		배려	병원과 학교에서 배려받은 경험
	부정적 요소	외로움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같이 여가를 즐길 친구가 없음
		미디어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상담	언어적 제약으로 상담접근의 어려움
진로 및 직업	개인	진로도움	한국과 모국 사이의 다리 만들기
	환경	한국	직장문화에 대한 교육의 부재, 모국의 취업정책과 비교하여 혜택이 없는 한국, 한국보다는 모국으로, 국제무대로 진출

## 5. 나가기: 외국인유학생의 사회통합을 위한 상담의 필요성과 과제

본 연구는 국내 대학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대량 유치 위주로 진행된 정책적 관점에서 벗어나, 외국인 유학생들을 고등교육서비스의 고객이자 한국사회의 일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이들을 위한 보다 미시적이고 세밀한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상담이라는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문화적응, 심리건강, 진로 및 직업이라는 차원에서 실제 생활세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지인들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나 지역사회, 정부의 조직적이고 세밀한 관심과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없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조만간 20만 명을 돌파할 것이며,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이주민 집단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홀대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서비스의 고객이면서 한국과 세계를 위하여 준비된 인재라는 점에서 이들을 환대하고 지식적으로, 인성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 상담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들은 다양한 차원의 생활세계에서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미 대학마다 상담소가 있긴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들을 대하는 상담사는 태도, 지식, 기술에 있어서 문화적 유능성을 가진 다문화상담인력이어야 한다(Sue & Sue, 2011).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대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말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전문상담기관을 대학이나 지역사회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담기관은 단계별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상담기관은 입학-재학-졸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학업, 생활, 취업 등의 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배상률 외, 2017). 뿐만 아니라 상담기관은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대학 부서인 국제협력처, 교무처, 학사관리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원화된 학사 및 생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다. 상담기관은 학습상담, 심리상담, 진로상담, 취업상담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10).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교육부 보도자료. 2010년 8월 11일자.
- 교육부(2011).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실시. 교육부 보도자료. 2011년 8월 12일자.
- 교육부(2012a).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보고.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2b). 2020년까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 교육부 보도자료. 2012년 10월 29일자.
- 교육부(2014).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 교육부 보도자료. 2014년 3월 6일자.
- 교육부(2015).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 교육부 보도자료. 2015년 7월 7일자.
- 교육부(2019). 2019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79011&lev=0&m=0309>

교육통계서비스(2019). 「2019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https://kess.kedi.re.kr/post/6684864?itemCode=04&menuId=m\\_02\\_04\\_02](https://kess.kedi.re.kr/post/6684864?itemCode=04&menuId=m_02_04_02)

김명광(2019). 2019 ICME(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 Proceeding Book

김영순, 오영섭(2017). A Discourse Map on Counseling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Education and Research* 10(2), 10-16

김오숙(2015). 국내외국인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예측모형검증. *다문화교육연구* 8(3), 109-131

김성은, 이교일(2019), 한국 정부 유학생 교육정책의 계보와 과제. *교육문화연구* 25(5), 61-78

김한나, 우한솔, 이승호(2016),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7(4), 311-337

박소연(2018),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국내 학술지 중심으로, *상담과연구*, 1(2), 13-28

배상률, 이경상, 이창호, 고은혜, 이재희(2017),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7-49-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은경, 최미, 최한나(2016). 국내 다문화 상담 연구 동향: 학술지 및 학위 논문 분석(1993~2016.7). *상담학연구* 17(5), 223-242.

오세경, 김영순(2018). 사회통합적 접근에서 본 재한 중국 유학생의 여가 경험의 의미 분석, *여가학연구* 16(2), 45-65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유지연(2015).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황 및 정책 과제. *이슈와 논점* 1011호

이미정(2019). 9장. 대인관계영역: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인관계 양상. (p.330-353) *사회통합총서2. 중국계 이주민의 다문화생활세계연구*. 경기: 북코리아.

이현주, 이미정(2019).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국내 지원 정책 연구. *인문사회* 21 10(4), 235-250

이혜영, 박수정(2019).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2007~2016), *글로벌교육연구* 10(4), 119-145.

정경희, 김영순(2018).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교육 서비스 경험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역의 A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3), 547~566.

정지현, 김영순(2020). 한국 내 유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경험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1), 61-104

최승은(2020).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열린교육연구* 28(1), 143-167

Baker, R.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Berry, J.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Sue, D.W. & Sue, D. (2011) 다문화 상담 - 이론과 실제 - 서울: 학지사

Pendes, A. & Inman, A. (2017). International student-focused counseling research: A 34-year content analysis.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30(1), 20-47.

Yin, R. (201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TRANSLATION LITEARACY

# 한국 문학 영역본에 나타난 문화적 오류: 과연 오류인가

Cultural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lation Literacy

2020 SPRING CONFERENCE



# TRANSLATION LITERACY



# 목 차

01 번역이란

02 대상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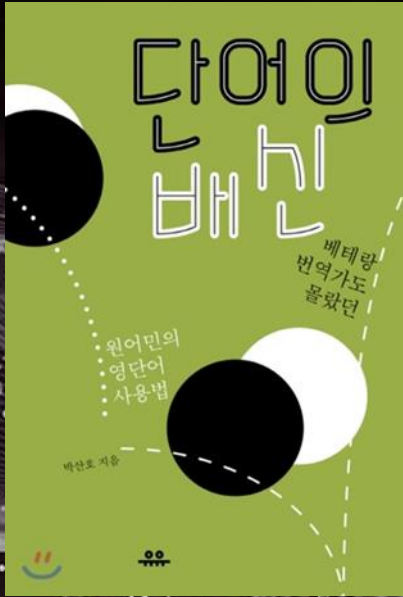
03 한영번역 전략

04 한영 번역본에서 나타난  
문화적 오류

05 번역 리터러시: 수용자를  
고려한 의미화 수행

# TRANSLATION LITERACY

- 대상독자
- 번역의 과정: 읽기-1-해석, 분석 -2-쓰기(다시 쓰기)
- 의미의 수행화: 실천
- 번역 리터러시: 원전 텍스트를 읽고 독자의 입장에서 양문화 차이를 깨닫고, 관찰한 바를 대상 문화에 적용, 수용자 입장을 고려한 실천 행위(재창작)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막상 번역하려면 힘들다. 왜 그럴까  
‘단어의 배신’? No!  
단어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단어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다른 문화권 사람이 특유의 감정, 이념, 역사등의 배경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 다양한 뜻이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 하는 말.  
못해 하는 말.

# 서양의 번역

## Translation

영어: Translation 불어: traduction 독어: Übersetzung

어원: 라틴어 Translatio=>Trans + latio

러시아 перевод (to carry across)

‘건너서’ 혹은 ‘넘어’+ ‘나르다’ 혹은 ‘운반하다’

떨어져 있는 두 공간 사이를 가로질러 어떤 물건을 실어 나르는 행위. 짐을 싣고 배를 저어 강 건너편으로 가는 행위

# 동양의 번역

한자: 翻譯/翻 譯



翻 = 番 + 飛

番 차례 번      飛 날 비

田 (밭 전)+ 采(분별할 변)

논밭(田)에 씨앗을 뿌리고 지나간 농부의 밭자국 모양(采)이 차례로 나 있다 하여 「차례」를 뜻함



# 대상 독자는 누구인가?

대상 문화 독자 네 가지 층위: 독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Savory)

1. 원천 언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내용에만 관심 있는 독자들: readability
2. 원천 언어를 배우고자 하며 관련 번역 작품을 통해 익숙해지고자 하는 독자들
3. 과거에 원천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잊어버린 독자들
4. 원천 언어에 능통한 전문가들



## 번역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언어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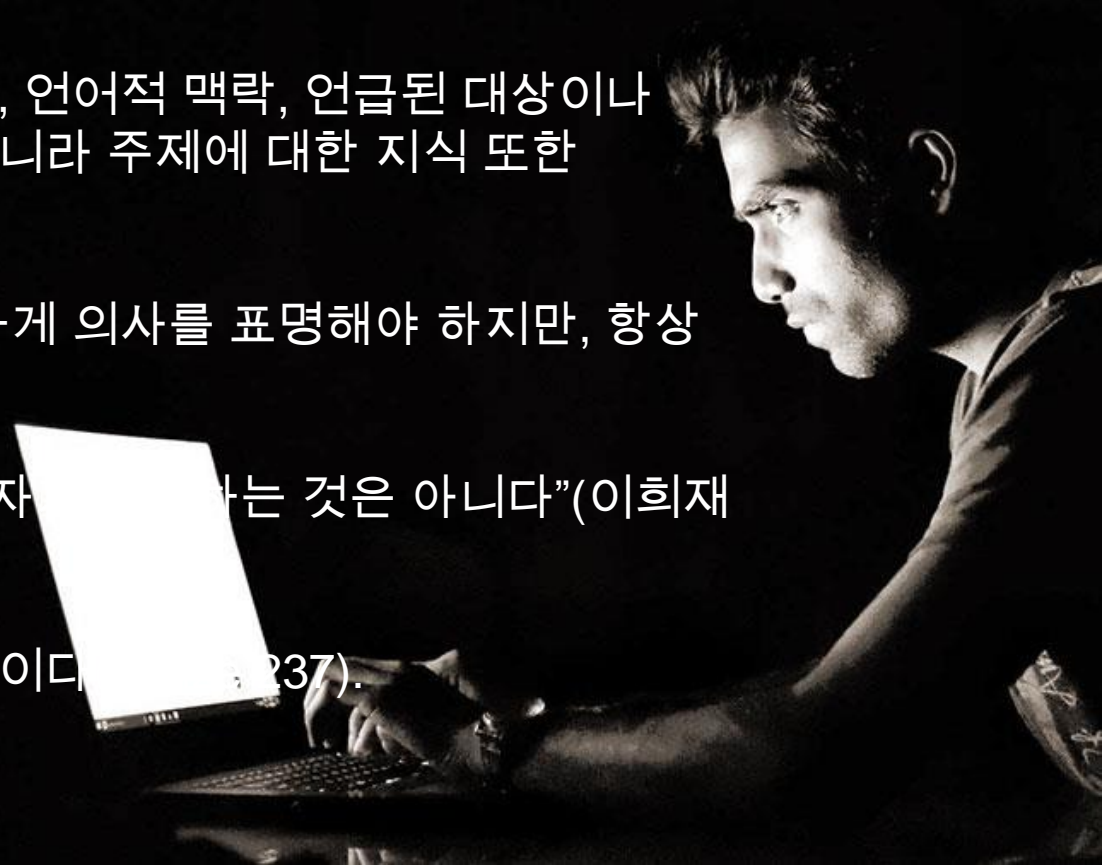
언어외적 요소(의미)

번역자: 텍스트 이해를 위해 언어적 지식 외에 발화상황, 언어적 맥락, 언급된 대상이나 전문영역에 대한 배경지식 필요. 원어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주제에 대한 지식 또한 필요(Stolze 237).

저자: 화자는 듣는 이의 지식을 고려해, 적절하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해야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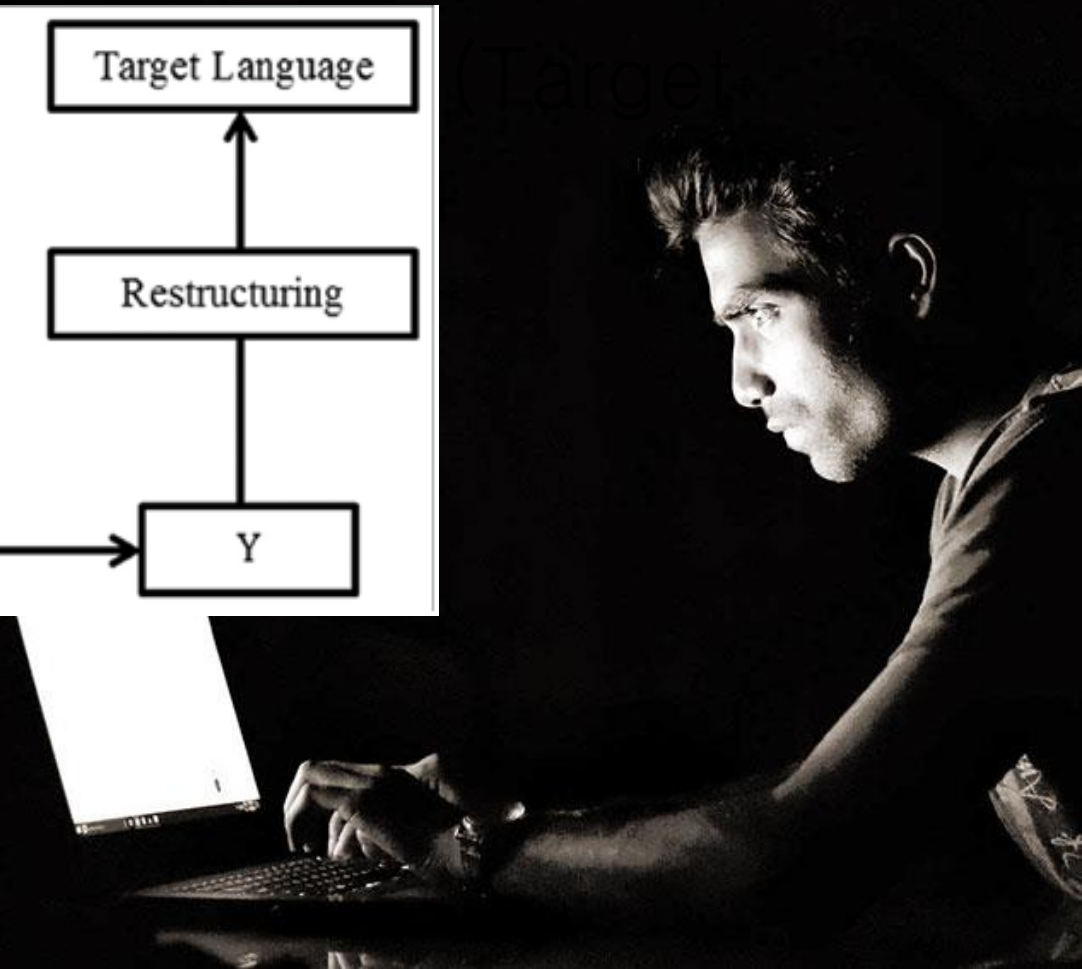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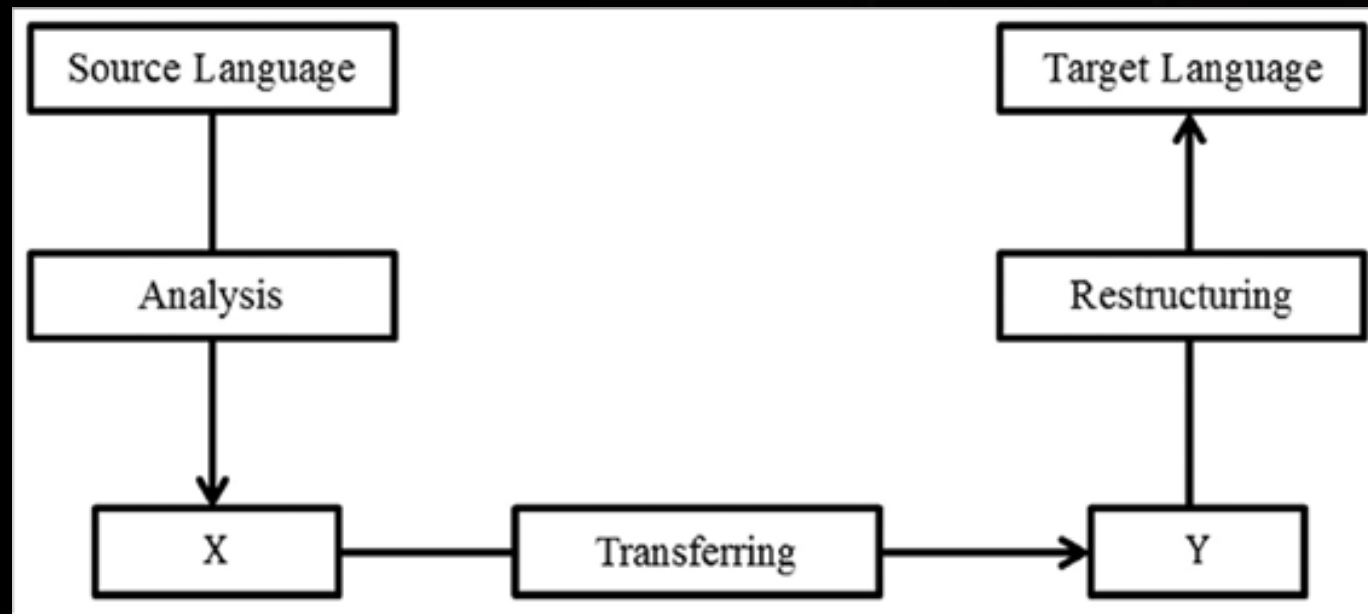
“더욱이 원작을 직역으로 충실하게 번역한다고 해서 저자가 화자는 것은 아니다”(이희재 255).

결국 모든 이해는 주관적으로, 읽는 이가 해석하기 나름이다.(Stolze 237).



# 번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Nida 의 번역 과정 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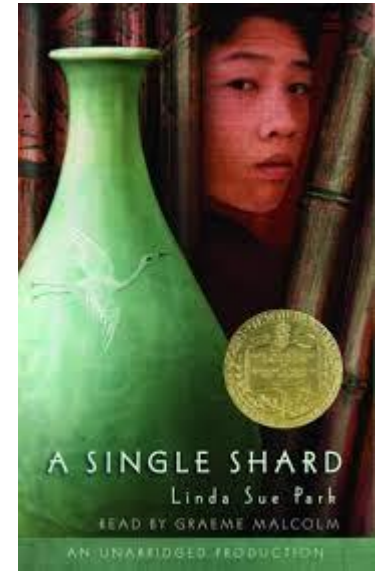


# 문화 건너기



## *A SINGLE SHARD*의 경우

- 저자 Linda Sue Park.
- 미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한국인 2세
- 2002년 전미국 도서관 협회 뉴베리상 아동문학분야 최우수 작품상 수상
- 동양인 최초로 세계 최고의 아동문학상 수상.
- 12세기 한국(고려) 배경. 한국인은 잘 알지만 서양인은 알지 못하는 사항들
- 줄포는 송도에 가까운 도자기 빛는 마을. 고아이며 거지인 목이는 도예가가 되고 싶어 마을의 유명한 도공에게 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 도자기 빛는 법을 배운다.



### Falling Rice



A man's jiggeh is leaking rice and Tree-ear tells him.

### Kang and the two bowls



Kang is working with two clay bowls.

### A different mate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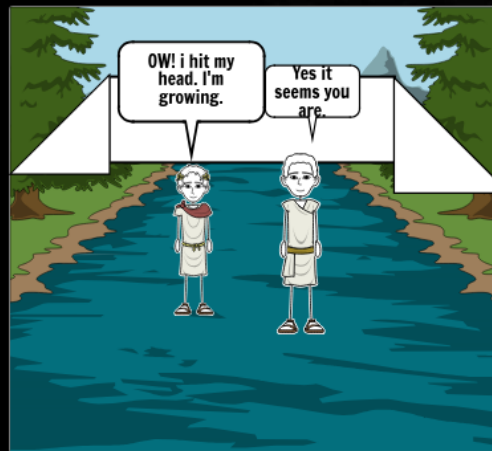
Min needs clay to make pots instead of wood.

### A Bowl half f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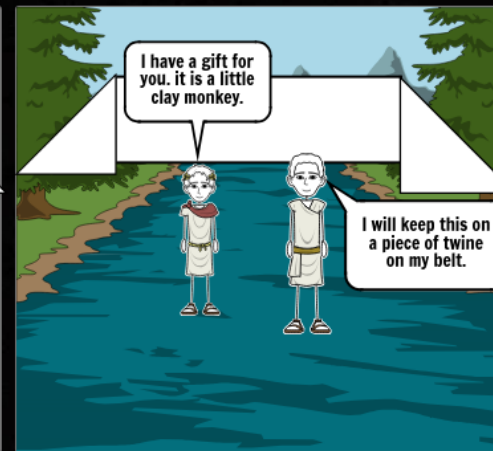
The bowl tree-ear leaves hidden starts to fill everyday.

### Growing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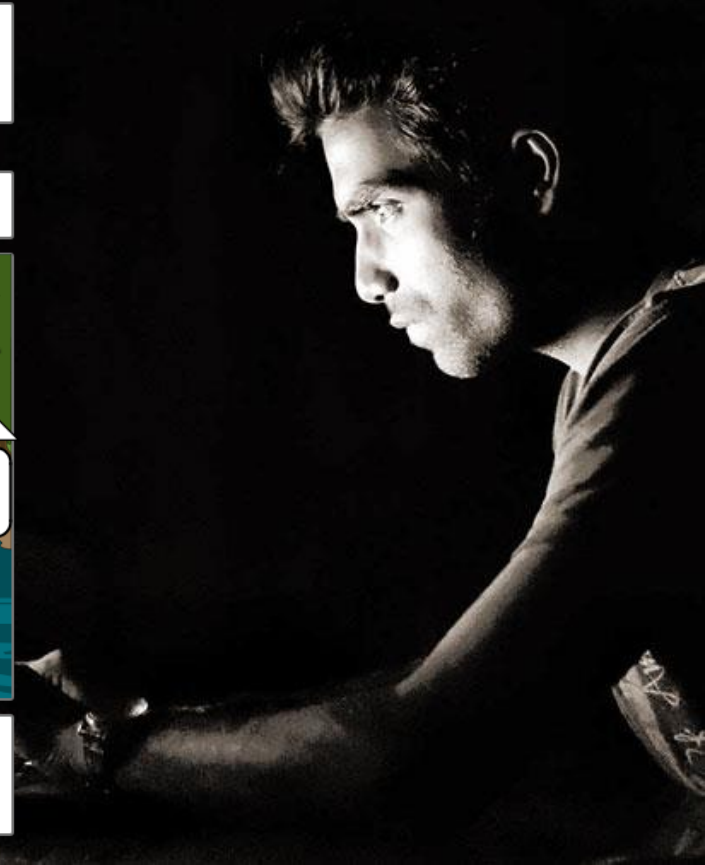


Tree-ear is growing taller and can hit his on the bridge when he stands up.

### Little clay monkey



Tree-ear give crane-man a little clay monkey as a gift.



## Introduction



In the story "A Single Shard" the main character is Tree-ear, an orphan who live under a bridge with his friend, Crane-Man in ancient China. Tree-Ear want to learn how to make a pot from potter Min.

## Climax



Tree-Ear will never give up on anything he sets his mind too. After Min's pottery broke, he decided to show the emissary a single shard of Min's work.

서양인이 본  
사금파리 한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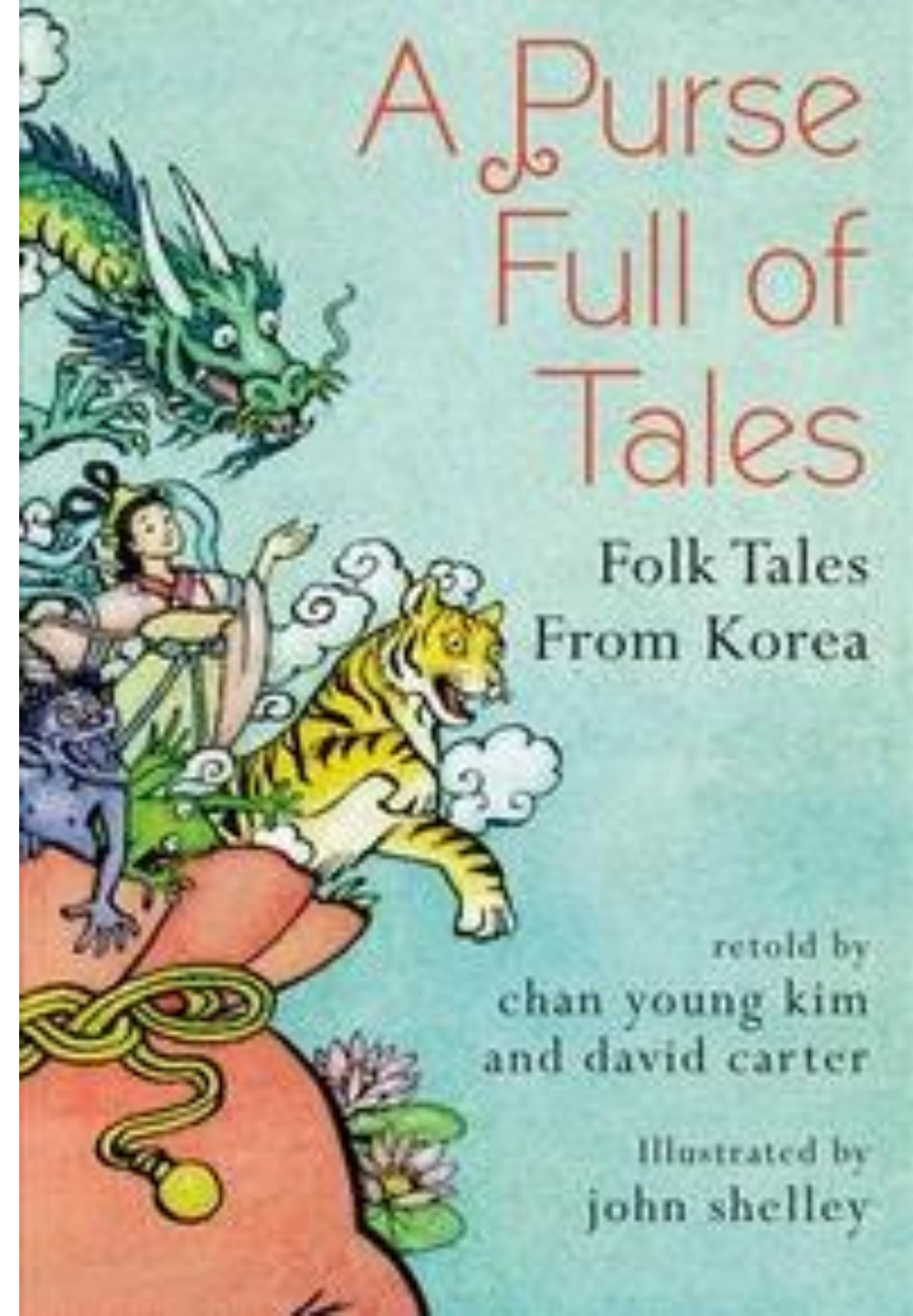
한국인이 본한  
사금파리 조각



---

## *A PURSE FULL OF TALES*의 경우

- A Purse Full of Tales: Folk Tales From Korea
- retold by chan young kim
- and david carter
- Herperus Press Limited, 2019



## 어휘, 문화, 자연

- 어휘
- 청개구리의 경우
- A green frog? A tree frog, a green tree frog  
A tree frog
- A squirrel, a striped squirrel



## 호칭

- ST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 아침부터 종일토록 일을 한 어머니는 떡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 **타박타박 한 고개를 넘는데** 커다란 호랑이가 떡하니 길을 막는 거야. “**할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 TT Soon it started to get dark. And as she was about to go over the first hill, a tiger appeared **out of the woo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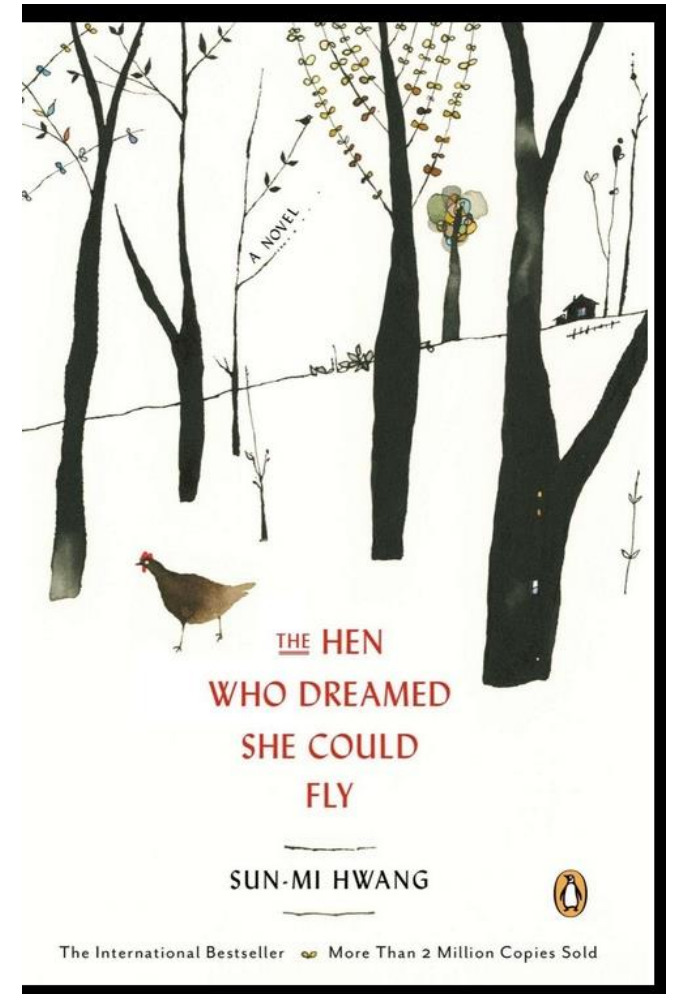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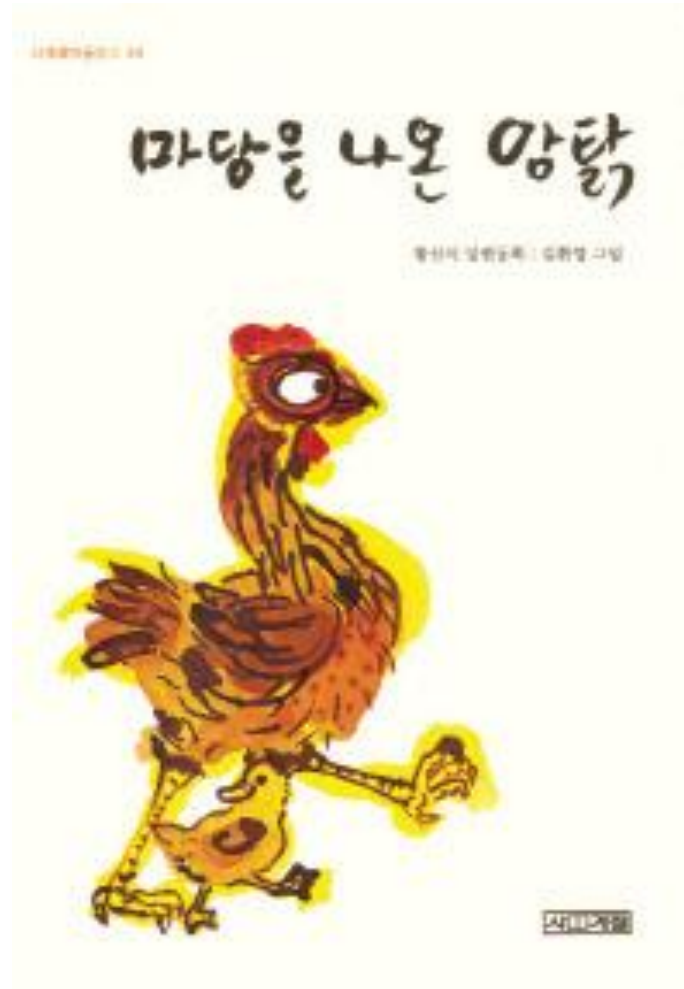
He blocked her way, and, opening **his great red mouth**, said: “**My dear lady**, if you give me a rice cake, I won't eat you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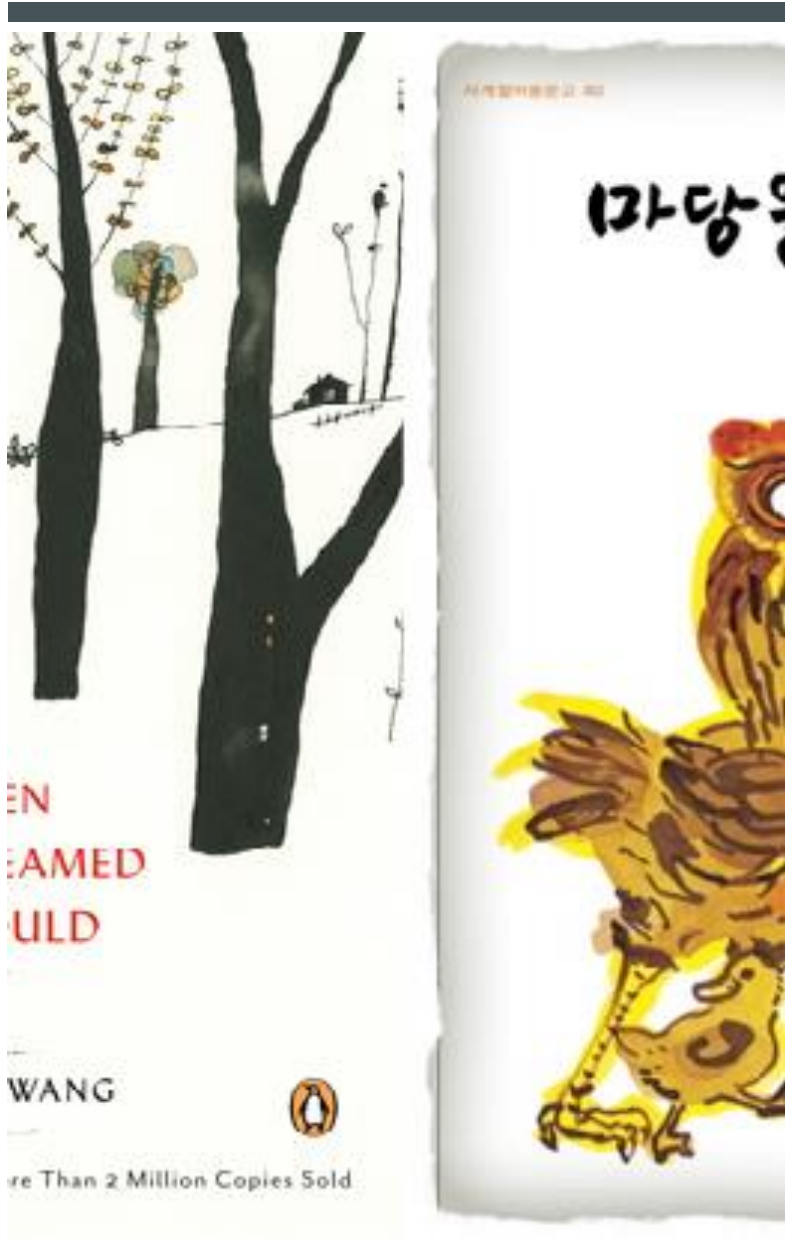
관습적인 호칭.

## THE SUN AND THE MOON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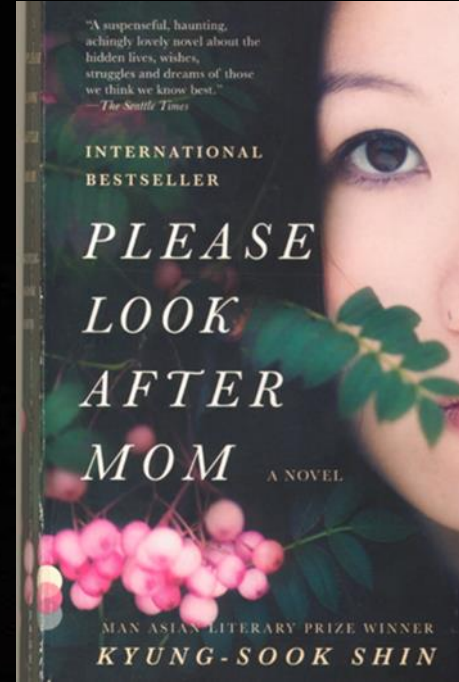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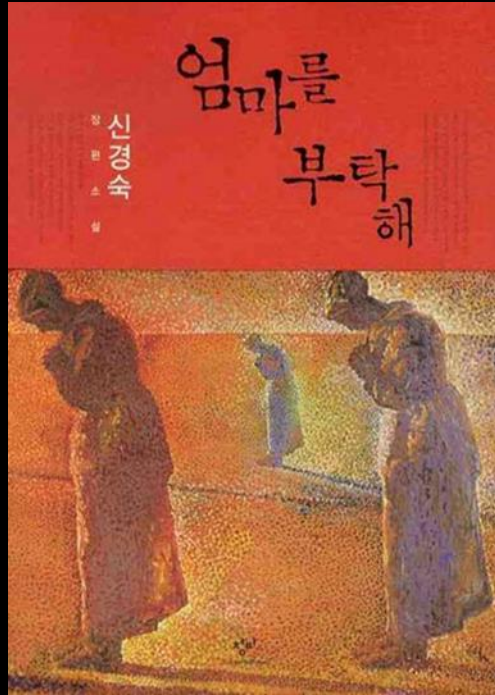
- 배경 지식: 문화적 사고방식
- ST: 이웃 마을 **잔칫집의 일을 도와주고 떡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 TT: **On the farm** she worked very hard. And for this **the farm owner** gave her **some rice cakes for her children.**
- RT: 엄마는 **농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 농장 주인은 그녀에게 아이들 주라고 떡을 약간 주었다.
- ST: 이웃 마을 잔칫집, 혹은 떡장수 Some rice cake : 떡은 특별한 경우, 생일, 잔치나 제사 때 하는 음식, 혹은 부잣집
- TT: on the farm,
- 합리적 추론: 서양 독자들은 떡을 하는 경우에 관한 지식이 없다.
- 또 다른 판본의 경우 어머니가 떡장수, 팔다 남은 떡을 갖고 온다는 게 자연스럽다.
- 관습 차이

# 마당을 나온 암탉





- ST: 잎삭은 목소리를 따라 구덩이 끝으로 갔다. 그곳은 구덩이 벽이 낮아서 쉽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 “다행이야.”
- 침착하고 다정한 목소리였다. 잎삭은 젖은 몸을 부르르 떨며 앞에 있는 친구를 보았다. (27-28)
- TT: Sprout followed the voice to the edge of the grave. The hole was shallower there, so she was able to hop out easily.
- “Good job,” her new friend said in a calm, kind voice.
- Sprout shuddered and took a good look at her friend. (19)
- ‘다행’과 ‘good job’ 운이 좋은 것과 노력한 뒤의 결과=> 앞은 운, 뒤는 노력의 결과.



## 해외 독자 수용도

2011년 미국에서 *Please Look After Mom* 출간.

- 출간 직후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2012년 '맨 아시아 문학상(Man Asian Literary Prize)'을 수상. 35개국에 판권, 현재 31개국에서 번역본 출간.

2020년 5월 현재 소설 공부 가이드 사이트 'bookrags', 'bookreview'(PLAM 공부에 필요한 사항과 소설 속 한국문화에 관한 해설 제공)도서관 사서를 위한 사이트 (RA For All) <http://raforall.blogspot.kr/>, 학생들의 발표 준비 사이트 'Prezi', Supersummary와 같은 스터디가이드를 비롯, 독서클럽에서 리뷰 계속.

- **한국 문학의 태생적 한계: 사용 인구 세계 13위(Ethnologue 2018/4), 사용 국가 6개국(제 2언어 포함).**

- 다년에 걸친 정부(한국문학번역원)와 기관(대산문화재단)의 노력에도(2001년 이후 70편이 넘는 작품 영역 안선재 Web), 여전히 세계인들은 한국 문학에 대해 무지(이구용 2017 Web).

- 미국의 한해 출판물 중 번역물의 비율은 3퍼센트, 미국인들은 번역물을 좋아하지 않음.





# 표지

## 『엄마를 부탁해』

먼 들판을 배경으로 띠지에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의 그림 ‘새벽, 한낮, 해넘이, 해질녘, ‘기도’에 중점. 다른 부분은 여백, 전체적인 분위기를 중요시하는 동양식 사고. 사건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관점, 부분보다는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사물과 전체 맥락을 연결시켜 지각하는 경향.

### *Please Look After Mom*

표지의 절반 정도가 젊은 동양 여인의 얼굴. 노골적으로 동양 소설임을 드러내는 한편, 낯섬의 매혹. 뻔하고 노골적인 의도. 동양에 대해 지닌 고정관념과 환상을 자극. 서양인들은 사물에 초점을 두고 주변 맥락은 무시,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편. 사물 자체의 속성으로만 설명하려 함(Nisbet 106).

# 내용

주인공 박소녀는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로,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여인(ST 72)이며 시골에서 평생 살았고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자식의 집에 가려고 서울에 올라온 어머니는 치매로 실종된다. 어머니의 철저한 희생을 딛고 살아온 자식들과 남편은 엄마와 아내를 찾거나 기다리는 동안 각자가 받은 것들을 생각하며 죄의식을 느낀다. 가장 수동적인 인물은 박소녀의 남편, 그는 기다릴 뿐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에 살고 있으며 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은 큰 딸인 지현이다.

엄마의 삶에 대한 세계인의 공감. 가족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 삶을 당연하게 만든 것은 한국이라는 장소, 그 장소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지닌 가치관.

어떤 사회에서 태어난 개인의 대다수는 그 사회의 제도 특질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항상 그 사회가 지시하는 행동을 몸에 지닌다(Benedict 276).

한국문화는 고맥락 문화 (Dionysian culture).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거나기보다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지적인 면보다 정적인 면 중시. 아폴로적 유교문화도 있지만 일반적인 대중 성향은 디오니소스적인 무교 영향을 많이 받음(이원규 96-7). 머리보다는 몸으로 행하는 종교적 표현에 더 익숙. 한국 종교의 기복성, 무속신앙인 무교는 선사시대부터 존재한 한국 본래의 신앙. 외래종교들이 우리 문화를 지배한 후에도 여전히 한국문화사의 근간에 남아 영향력을 유지(이원규 101)

# 문화간 차이를 극복한 방식

## 1. 소 같은 눈

ST “그때 네가 엄마! 하고 부르면 뒤돌아보는 너의 엄마의 우직한 소 같은 눈엔 눈물이  
그렇그렇 고여 있었다.”(23)

TT “If you called to her at moment, she would turn around with tears welling in her big,  
guileless eyes.”(17)

‘소 같은 눈’은 크고 둥글며 순박한 눈, 농경문화, 번역은 의미만 살림.

## 2. 토방

ST 아버지는 엄마가 열어둔 대문으로 걸어 들어와 흄흄, 소리를 내며 토방에 눈 묻은 신발을 탁탁  
툰 뒤에 방문을 열었다.(108)

TT Father walked in the open gate, cleared his throat, took off his shoes and smacked them against  
the wall to get the snow off, and opened the door.(102)

한국 고유의 구조물로 공적 영역과 개인 영역의 중간 지대, 벽으로 대체, 전통적



## ‘덕이 많은 사람’에서 ‘친절한 사람’으로

ST - 나 만나 못나게 살았지만 **덕이 많은 사람**이게 살어는 있을 것이여. 살어 있으면 뭘 소식이 오지 않겠냐.(136)

TT “...Your mom met me and had a hard life. **But she is a kind person. So** I'm sure she's at least alive.(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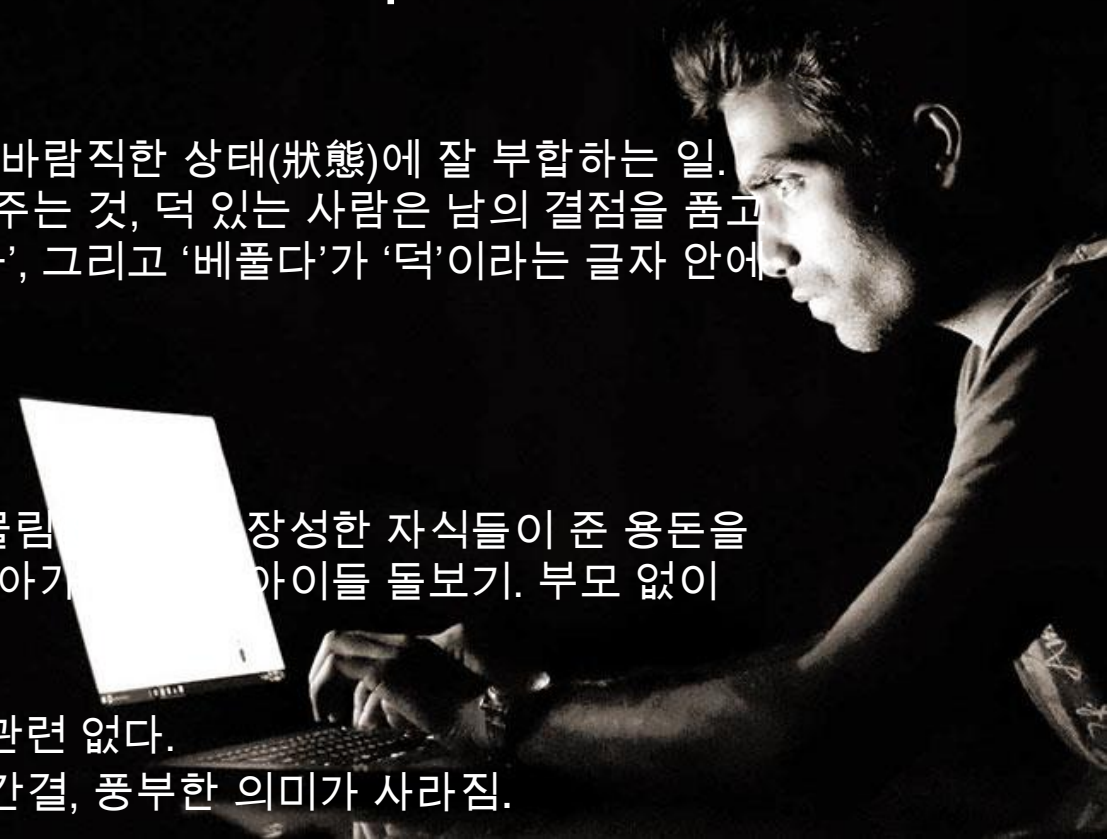
한국인에게 덕(德)은 행실이 바른 일로, 남이 보나 스스로 생각하나 바람직한 상태(狀態)에 잘 부합하는 일. 원래‘덕’이라는 글자의 함의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해 주는 것, 덕 있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품고 가는 사람,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 선행’과 ‘옳다’와 ‘바르다’, 그리고 ‘베풀다’가 ‘덕’이라는 글자 안에 포함.

덕: 유교와 불교적 의식

시동생인 균을 학교에 보내고 싶어함. 엄마를 잃은 아이에게 젖을 물림. 장성한 자식들이 준 용돈을 십년 동안 모두 고아원인 소망원에 기부(ST 144). 매주 소망원을 찾아가 아이들 돌보기.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자라는 이웃집 아이들에게 끼니 주기(ST 164-5).

공덕을 많이 쌓으면 보답을 받는다는 가치관=>살어는 있을 것이여  
친절은 태도에 관한 일, 선행이 관련될 수는 있으나 자기 희생과는 관련 없다.

유교적 가치관 + 불교적 가치관에서 직선적 가치관으로. 단순하고 간결, 풍부한 의미가 사라짐.



### 3 '머리 검은 짐승'에서 '사람'으로

ST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배반을 허고 개는 거두면 보답을 한다고 안허디. 아무래도 그 개가 내 대신 갔는가봐아. (63-64)

TT "They say that if you take in a person, he will betray you, and if you take in a dog he will pay you back. I think the dog went in my place."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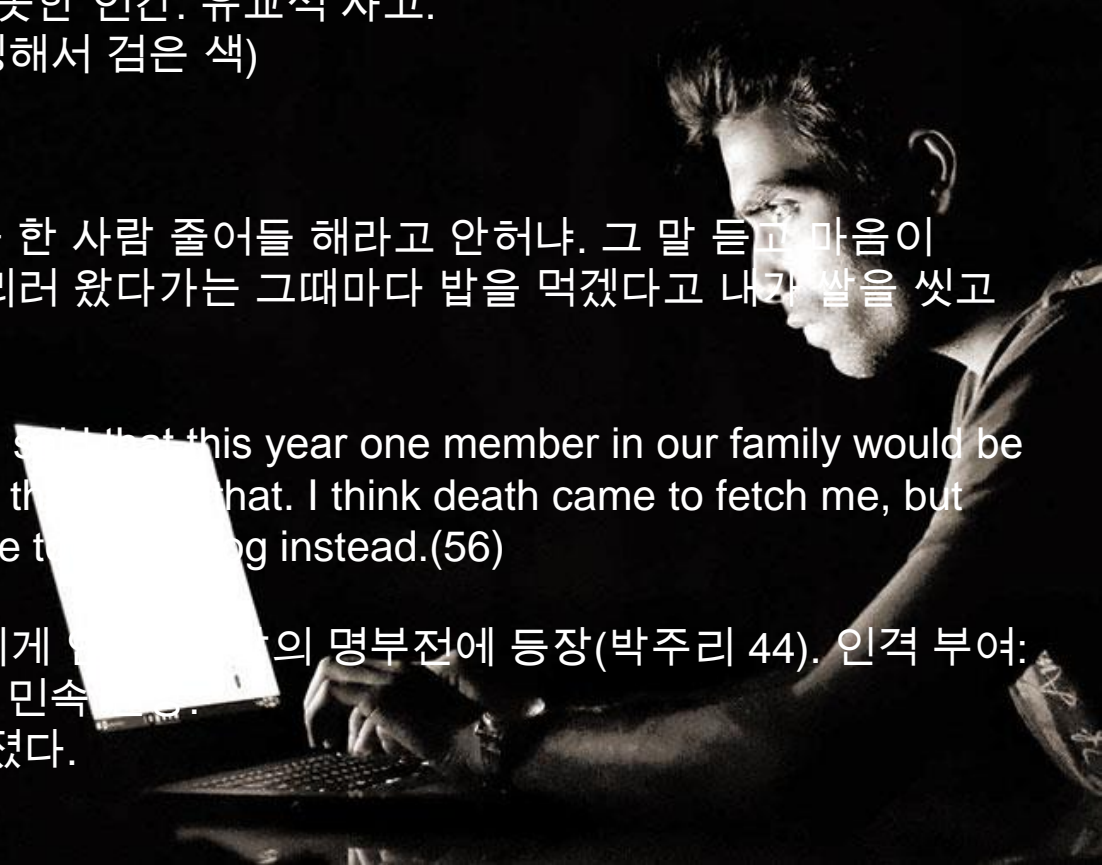
도덕성은 인간의 기준. '머리 검은 짐승'은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인간. 유교적 사고. 의미만 살림. 지역적 색채 사라짐(한국인의 머리 색깔은 통칭해서 검은 색)

### 4 '저승사자'에서 '죽음'으로

ST 지난봄에 지나가는 스님헌티 시주를 했드니 올해 식구가 한 사람 줄어들 해라고 안허냐. 그 말 듣고 마음이 뒤숭숭했다. 일년 내내 그 말이 걸렸어야.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왔다가는 그때마다 밥을 먹겠다고 내게 쌀을 씻고 있음게 나 대신 개를 데려간 모양이야.(64)

TT "Last spring, I donated money to a passing monk and he said that this year one member in our family would be gone. When I heard that, I was anxious. For an entire year I thought about that. I think death came to fetch me, but because I was washing rice to cook for myself every time, he took the dog instead.(56)

저승사자는 군인의 모습(조선시대 불교), 영혼을 염라대왕에게 바치는 영혼의 명부전에 등장(박주리 44). 인격 부여: 보답을 하는 존재, 개의 보은을 이해하는 존재. 도교 + 불교 + 민속. 죽음으로 옮겨 저승사자가 지닌 누앙스가 사라지고, 단순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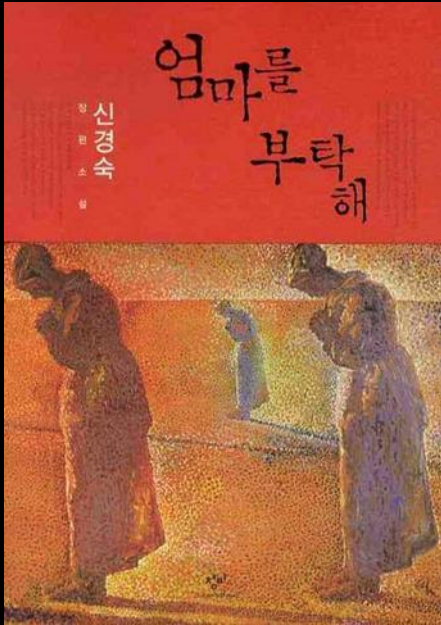


# 사고방식의 전환

ST 1 엄마가 **죄가 많다**. 너에게 미안하다, 형철아.(《엄마를 부탁해》110)

TT 1 “It’s **all my fault**. I’m sorry, Hyong-chol.”(103)

RT 1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형철아.



죄가 많다=> “all my fault”

사고 방식의 전환

- \* 내 죄를 만들어낸 것은 가치관: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죄, 잘 살지 못한 죄, 남들처럼 헛바라지를 해주지 못한 죄, 부는 성공의 상징이며 복의 상징
- 한국인의 가족주의: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황태향 491).
- 전생에 지은 죄와 이 생의 보잘것없음. 결과적으로 죄는 업(karma)과 연관.
- \* 내 죄는 순환적인 불교적 사고와 한국 특유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표현.
- \* ‘잘못’은 직선적인 사고. 어떤 행동에 대한 잘못을 형철에게 맡긴 행동을 잘못으로 읽음.
- 순환적 사고에서 직선적 사고로 바뀌면서 죄가 사라짐.
- 가족주의 + 불교적 가치관=>합리적 가치관



엄마를 부탁해

Please Look After Mom

가치관

죄, 덕, 저승사자

유불민간신앙 순환적  
가치관

fault, kind, death

직선적 가치관

진이엄마, 올케, 큰딸애

집단주의, 역할과 기대

my wife, her, Chi-hon

개인주의, 개인

머리 검은 짐승

인간의 기준 내포

a person

포괄적 개념, 지역적  
색채 사라짐

죽어서도 고모 심부름하  
게  
요

가부장제, 강요

I can do your errands.

가능성(선택)

## 문화 사항

소 같은 눈	농경사회에서 비롯한 표현	big, guileless eyes	의미
공동전화	시대변화	public phone	공중전화로 바뀜
토방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중간지대	wall	의미 사라짐.
닐니리 맘보	전통악기 + 라틴 음악, 대중 가요	Mola mola,	리듬 살림





*The Vegetarian*은 극찬을 받으면서 맨 부커 국제문학상을 수상.

대상문화 독자들 사이에서 이 작품은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림.  
번역에 관한 의견이 아니라 작품 자체에 관한 의견=> 번역이 잘 받아들여짐.  
대상문화 독자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착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 대상문화에서 원본에  
상응하는 이미지를 생산해냈다(Venuti 1-2)는 추측이 가능.  
현재도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 상반된 의견.

# 어떤 번역전략이 이처럼 큰 호응을 이끌어냈는가?

## 문화, 사고방식의 차이:

동양인과 서양인 사이에는 매우 큰 사회심리적 차이가 존재한다. 동양인들은 상호의존적인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self)를 전체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지만, 서양인들은 독립적인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를 전체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여긴다. 동양인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 전체에 반영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성공과 업적 성취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서양인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개인적 장점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한다. 동양인들은 인간관계 속에 조화롭게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비판을 하지만, 서양인들은 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동양인들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인간관계의 조화를 추구하지만, 서양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인간관계를 희생해서라도 정의를 추구한다(Nisbett 7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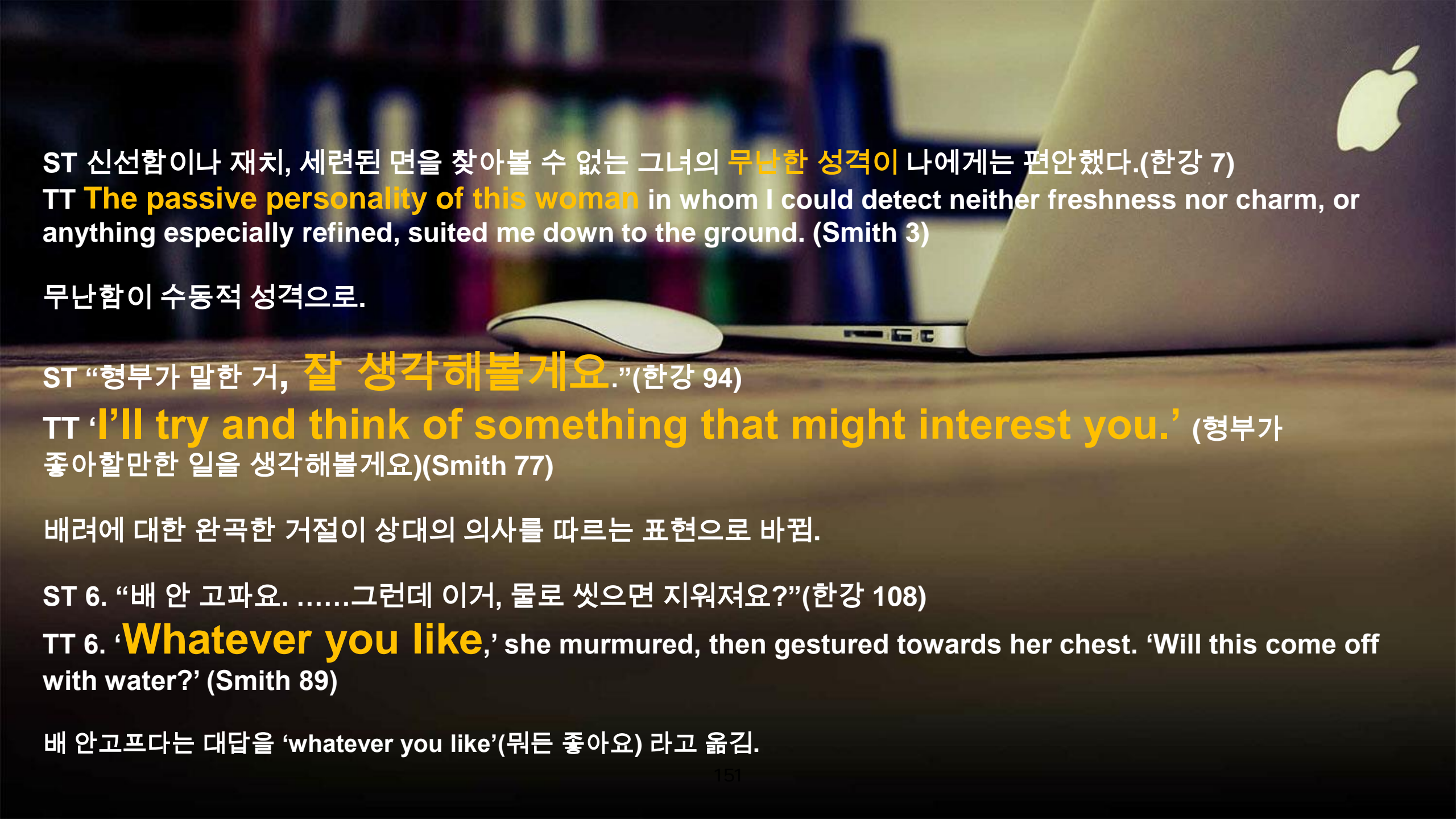
**고맥락 문화:** 집단 중시, 관계 중시, 집단 속의 나.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 정황에 따라 개인의 행동에 대한 해석이 달라짐. 한가지 가치관, 비슷함, 평범함, 무난함 중시.

**저맥락 문화:** 개인 중시, 개성 중시, 전체에서 떨어져 나온 나, 자신에게 충실, 정황이 달라져도 개인은 달라지지 않음. 독특함, 개성, 의사소통 중시.

# 실제 번역: 동양과 서양의 차이 건너가기



ST	TT
키, 머리칼 길이 중간	동일
노르스름한 피부, 까맣지도 하얗지도 않음. 중간	황달을 앓은 듯 노란 피부, 병색
외꺼풀 눈과 약간 튀어나온 광대뼈	전형적 한국인의 얼굴
무채색 옷: 눈길 끌지 않음	언급 없음. 소심하고 병적 면모
구두가 극히 단순해서 평범.	구두는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눈에 띈
걸음걸이조차 독특한 점 없음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음
개성 있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함	독특한 인상
특별한 매력도 단점도 없어 보이므로 결혼.	특별한 매력과 단점이 없다면 결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매력과 단점이 없어 야 결혼한다



ST 신선함이나 재치, 세련된 면을 찾아볼 수 없는 그녀의 무난한 성격이 나에게서는 편안했다.(한강 7)

TT **The passive personality of this woman** in whom I could detect neither freshness nor charm, or anything especially refined, suited me down to the ground. (Smith 3)

무난함이 수동적 성격으로.

ST “형부가 말한 거, **잘 생각해볼게요.**”(한강 94)

TT ‘**I’ll try and think of something that might interest you.**’ (형부가 좋아할만한 일을 생각해볼게요)(Smith 77)

배려에 대한 완곡한 거절이 상대의 의사를 따르는 표현으로 바뀐.

ST 6. “배 안 고파요. ....그런데 이거, 물로 씻으면 지워져요?”(한강 108)

TT 6. ‘**Whatever you like,**’ she murmured, then gestured towards her chest. ‘Will this come off with water?’ (Smith 89)

배 안고프다는 대답을 ‘whatever you like’(뭐든 좋아요) 라고 옮김.



ST 무난함	TT 평범함
신선, 재치, 세련미 없어 대하기 쉬운 여인	'the most run-of-the-mill woman in the world' 공장 제품처럼 획일적이라는 의미, 사용처에만 맞춤.
한국사회의 대세인 남성우월주의를 받아들인 여인	남성의 의사를 순순히 따르는 <b>수동적인 여인</b>
굳이 영혜가 아니더라도 <b>무난한 여인이면 결혼</b>	화자에게 <b>꼭 맞는 여인</b> (suited me down to the ground)(Smith 3)이므로 결혼
전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는 여인일 것이라고 기대	수동적이라는 개인적 특성을 지닌 여인

## 집단 내 역할: 회사의 수장

ST 8.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요.”

**사장이 호탕한 어조로 물었다.**

“외국에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이 더러 있죠. 우리나라에선 이제 좀 형성돼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엔 언론에서 하도 육식을 공격해대니.....오래 살려면 고기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30-31)

TT 8. ‘My word, so you’re one of those “vegetarians”, are you?’ my boss asked. ‘Well, I knew that some people in other countries are strict vegetarians, of course. And even here, you know, it does seem that attitudes are beginning to change a little. Now and then there’ll be someone claiming that eating meat is bad. . . after all, I suppose giving up meat in order to live a long life isn’t all that unreasonable, is it?’(Smith 23)

ST 사장은 한 집단의 우두머리, 부하의 실수를 감싸고 약점을 너그럽게 수용할 의무. 영혜의 채식주의를 호탕하게 받아들임. 채식주의자가 당연하지 않지만 용인한다는 의미. 언론을 대다수의 의견으로 묘사. 언론과 자신을 동일한 의견으로 묘사, 집단과 자신이 한 의견임을 드러냄.  
TT 호탕한 어조’를 삭제. 사장은 My word(세상에)라고 말하면서 놀라고 있음. 특이한 식성으로 민망해하는 부하를 배려하는 마음은 없음. 원본의 언론은 번역본에서 몇몇 사람의 주장이 됨.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자신의 의견으로 묘사. 집단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

## 집단 내 역할: 회사의 부하직원



ST 7 “오늘 잘해야 해. 사장이 부부동반 모임에 **과장급**을 부른 것은 내가 처음이야. 그만큼 날 잘 보고 있다는 거야.”(한강 28)

TT 7. ‘I need this evening to go well. You know it’s the first time the boss has invited **me** to one of these dinners.’(Smith 21)

ST 자신만 과장이고 다른 사람들은 상사임을 언급, 모임의 중요성과 아내가 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직급은 호칭과 말투, 행동, 책임을 결정. 아내에게도 ‘오늘 잘 해야 해’라고 부하 역할 잘 해내라고 강조.

TT ‘과장’이라는 언급을 삭제. 특별한 초대라는 느낌이 사라짐. I로 표현, 아내에게 요구하는 역할 당부가 없음.



## 사회적 정황



ST “이제 너희 걱정은 잊어버렸다. 완전히 자리를 잡았구나.” 장인이 수저를 들며 한마디 했다.(한강 43)

TT 14. ‘Now you’ve forgotten all your worries,’ my father-in-law pronounced, taking up his spoon and chopsticks. ‘Completely seized the moment.’(Smith 34)

ST는 우리(집단)의 관점에서 서술. 더 이상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할 필요가 없고, 생활이 안정되었을 것이라는 의미 함축. 아버지가 딸 부부를 뜻한 너희 걱정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딸의 고생 의미. 한국인에게 집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나온 표현.

TT는 개인(당사자)의 기쁨을 말하면서 기회를 잘 잡았다고 칭찬. 기회를 잘 잡았다는 것은 좋은 집을 때맞춰 잘 샀다는 뜻. 온갖 고생을 한 다음 비로소 집을 구했다는 의미는 없음.  
사회적 정황이 사라지고 개인의 능력, 특성이 강조됨.

## 고유 문화 특성 사라짐

ST 요샌 **사상체질** 때문에 채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저도 체질을 알아보려고 몇 군데 가봤더니 가는 데마다 다른 얘길 하더군요(한강 31).

TT 'People mainly used to turn vegetarian because they subscribed to a certain ideology . . . I've been to various doctors myself,(Smith 23).

ST 사상체질은 한국의 독창적인 의학이론으로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는 내용으로 음식과 관련 있어 널리 알려졌음. 한국인들은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강의 내용을 알고 있음.  
TT 독특한 문화적 요소를 a certain ideology로 표현. 사상체질을 아무런 설명 없이 단순히 이념으로 명시. 이해가 쉬워지고 문화적 특성 사라짐.



▶ 개도살

▶ ST 19. 아버지는 녀석을 나무에 매달아 불에 그슬리면서 두들겨 패지 않을 거라고 했어. 달리다 죽은 개가 더 부드럽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대(한강 52).

▶ TT 19. While Father ties the dog to the tree and scorches it with a lamp, he says it isn't to be flogged. He says he heard somewhere that driving a dog to keep running until the point of death is considered a milder punishment(Smith 41).

▶ ST 일반적인 개도살 방법은 개를 나무에 매달아 두들겨 패 죽인 다음 그슬리는 것, 새 방법은 달리게 해 죽이는 것. 육질 비교. TT는 새 방법을 더 온화한 벌이라고 번역, 이해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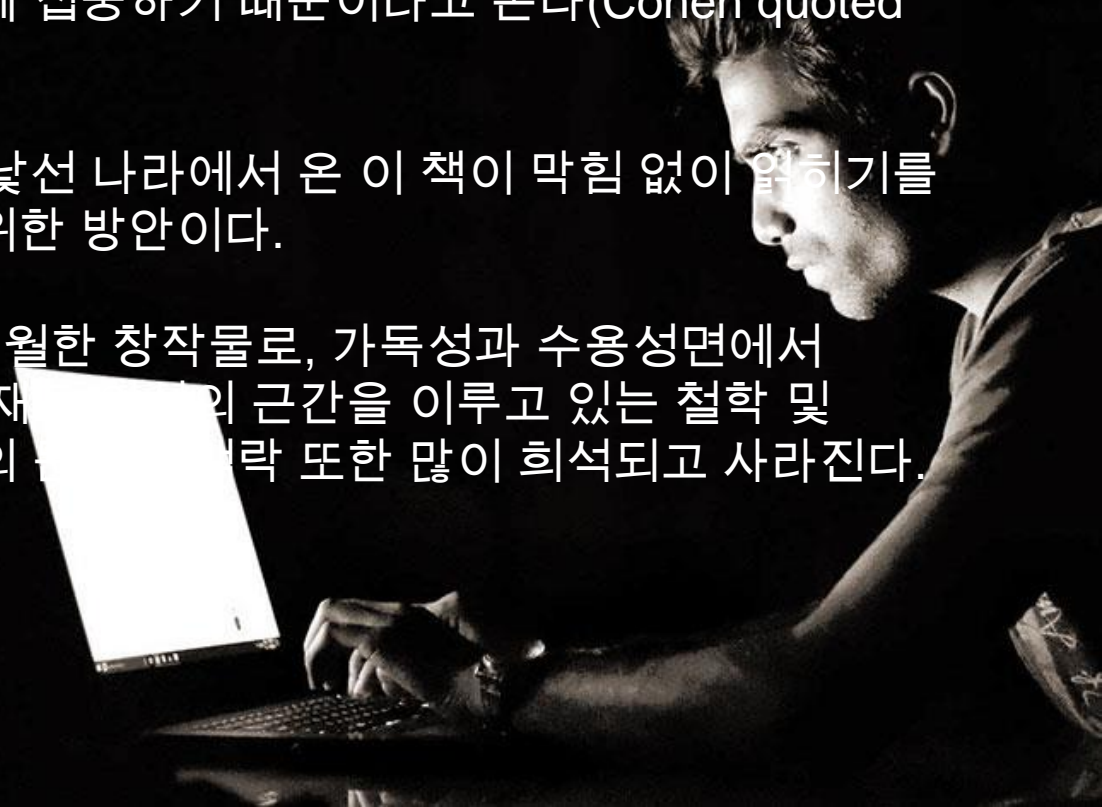


*The Vegetarian*은 문장 하나하나에 충실한 번역이라기보다는 서구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나름대로 해석, 번역했고,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문장을 변형하거나 내용을 덧붙이거나 수정, 문장 순서를 바꾸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시작부분에서 배경이 되는 집단 문화의 특징들을 개인 문화의 특징으로 바꿈으로써 대상 독자들에게 낯설지 않게 다가간다. 이러한 번역은 과학교육과 정확성을 중시하는 교육의 영향을 받아 형태와 방식의 모방은 무시한 채 산문의 뜻과 해석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본다(Cohen quoted in Venuti 6).

*The Vegetarian*에는 역주가 없다. 번역가는 자신에게도 낯선 나라에서 온 이 책이 막힘 없이 읽히기를 의도했던 것이다. 이는 가독성을 높여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The Vegetarian*은 합리적이며 논리적으로 의사소통이 수월한 창작물로, 가독성과 수용성면에서 뛰어나다. 그러나 원본의 문화, 과거의 역사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철학 및 사고방식, 그리고 작가의 독특한 문체는 사라진다. 원본의 문체와 맥락 또한 많이 희석되고 사라진다.



# 원본 텍스트

# 대상 텍스트



읽기—(해석, 분석)—쓰기(재창조)

번역은 본질적으로 두 언어, 두 문화 사이를 가로질러 일어나는 의사소통으로 대상 독자의 수용성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단순히 원본텍스트를 잘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대상 독자에게 원본 독자와 같은 효과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 대상 문화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번역에서 리터러시가 일어나지만 번역의 특성상 대상 독자의 수용성을 감안한 번역이 특히 번역 리터러시가 잘 발휘된 것으로 본다.



# THANK YOU

Source Text

Translation Literacy

Target Text

## 문화(사회)리터러시 관점에서 본 탈산업사회에서 이민자 유입 :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sup>1)</sup>

손동기 (호남대)

### 서론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말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결혼이주여성의 짧은 기간 내에 급속히 증가하면서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를 잡았다. 최근에는 이주민 혹은 다문화계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포용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김경화 2010; 민지선 외 2013; 우충완 외 2014; 유난영 2009; 이명진 외 2010; 인태정 2009; 임도경 외 2011; 전영자 외 2010; 황지민 2012). 물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학문적 성과도 있었다. 우선 ‘다문화주의를 수사어로만 활용하는 한국적 현실에 대한 비판’ (김영옥, 2007; 김혜순, 2008; 최종렬, 2009; 김정선, 2011; 양현아, 2016, 김혜영, 2014:13 재인용)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결혼이주자에 한국사회의 동화를 위한 협소화된 정책으로 정책대상의 ‘표적화·대상화’ 한다는 견해를 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리’ 및 ‘통제’의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주민 대상 현재 한국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현아, 2013). 지금까지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다문화 구성원들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나아가야 한다는 논의가 점차 커지고 있다(김영옥, 2007; 오현수, 2012).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논의는 여전히 노동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뿐 이민자 개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프랑스는 오래된 이민과 식민지 역사로 인해 이민 역사가 매우 오래됐다. 그 역사가 19세기 중반 비교적 늦게 산업화가 시작된 프랑스는 충분한 생산활동인구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 당시 인구가 급증하던 다른 유럽의 국가와는 달리 프랑스 인구증가는 정체되었다. 이에 프랑스는 필요한 노동력을 외부에서 데려오는 방식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긴 이민의 역사를 가진 프랑스인 만큼 프랑스에서 지하철을 타면 다양한 인종을 만나게 된다. 다양한 인종들이 살아가는 프랑스 파리에서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13구, 아프리카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18구, 19구의 파리의 북쪽은 얼마나 많은 이민자가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아 온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물론 이렇게 다양한 이민자들로 인해서 종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2005년 파리 북쪽에서 경찰에 쫓기던 흑인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프랑스에서 이민자 사회가 크게 분노를 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긴 이민의 역사를 가진 프랑스에서도 여전히 이민자들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에서는 이주민들에 대한 프랑스 사회로의 동화 혹은 편

1) 본 글은 공동학술대회를 준비하며 쓸 글로 미완성되었습니다. 본 글의 인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프랑스 주요 사례연구는 2016년 ‘탈산업사회에서 이민자 유입에 대한 일고찰 :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주로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입을 위한 사회보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Chauveau, 1993; Penet, 2000).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는 ‘사회적 배제(Exclusion sociale)’와 사회통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국가’ 혹은 ‘시민-사회연대’ 수준에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개입원칙’을 시행하고 있다(Rosanvallon, 1995). 즉 프랑스 정부와 사회는 전생애적 관점에서 이민자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서 개인과 사회의 상호인정 관계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점은 프랑스 이주민 고령화와 사회통합과 관련된 것이다.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정책과 관련된 ‘공화주의적 동화모델(le modèle républicain d’assimilation)’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은 프랑스적인 문화와 규범과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문제는 이민 1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민 2세, 3세대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최근 가장 강하게 표출된 사례가 바로 앞에서 언급한 2005년도 이민자 소요사태라고 볼 수 있다.<sup>3)</sup>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야엘 브린봄(Yaël Brinbaum)와 사브리나 이세난(Sabina Issehnane)은 이민자 후손들의 최초 일자리의 질(Qualité)에 대한 연구에서 마그레브(Maghreb) 지역 출신의 이민자들이 프랑스나 남유럽국가 출신보다 훨씬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는 문제를 지적했다.<sup>4)</sup> 올리비에 몽소(Olivier Monso)와 프랑스와 글레이즈(François Gleizes)는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들의 언어구사능력이나 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접근성에 관한 연구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이민자(Immigré)와 비이민자(Non-immigré) 간의 실업률이나 고용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한편,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이민자가 비이민자에 비해서 실업률이나 고용율에서 뒤처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sup>5)</sup> 한편 스테판 주노(Stéphane Jugnot)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민자 자녀들의 학업 이후 취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2009년 기준으로 학업 이후 5년 안에 비이민자들의 자녀들은 82%가 직업을 갖게 되는 반면, 이민자 자녀들은 61%만이 취업을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이민자란 꼬리표가 여전히 프랑스 사회에서 직업을 구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sup>6)</sup> 또한 파니 미콜(Fanny Mikol)과 클로에 타얀(Chloé Tavan)은 1990-1999년 사이에 이민자들이 취업 이후에도 승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터키, 아시아, 튀니지에서 온 이들은 높은 학력을 가진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sup>7)</sup>

2) Jocelyne Streiff-Fénart, “Un dilemme français : Modèle républicain et discriminations ethniques”, Faire-Savoirs: Sciences de l’Homme et de la Société en Provence-Alpes-Côte d’Azur, Association A.M.A.R.E.S éditions (2002), pp. 69-76; Walzer Michael, Traité sur la tolérance (Gallimard, 1997), p. 62.

3) 김승민, “프랑스 이민자 소요사태의 발발 원인 분석” 『한국프랑스학논집』, 제74집 (2011), pp. 265-282; 신동규, “프랑스 방리유(Banlieue) 이민2세대 청소년들의 사회적 저항과 국가의 대응” 『역사와 담론』, 제60호, pp. 149-187.

4) Yaël Brinbaum, Sabina Issehnane, “Quelle qualité de l’emploi pour les descendants d’immigrés en début de carrière?”, Céreq, Relief n°50 (Décembre 2015).

5) Olivier Monso, François Gleizes, “Langue, diplômes: des enjeux pour l’accès des immigrés au marché du travail”, Insee Première, N° 1262 (Novembre 2009).

6) Stéphane Jugnot, “L’accès à l’emploi à la sortie du système éducatif des descendants d’immigrés”, Insee Références (2012).

7) Fanny Mikol, Chloé Tavan, “La mobilité professionnelle des ouvriers et employés immigrés”, Données sociales: La société française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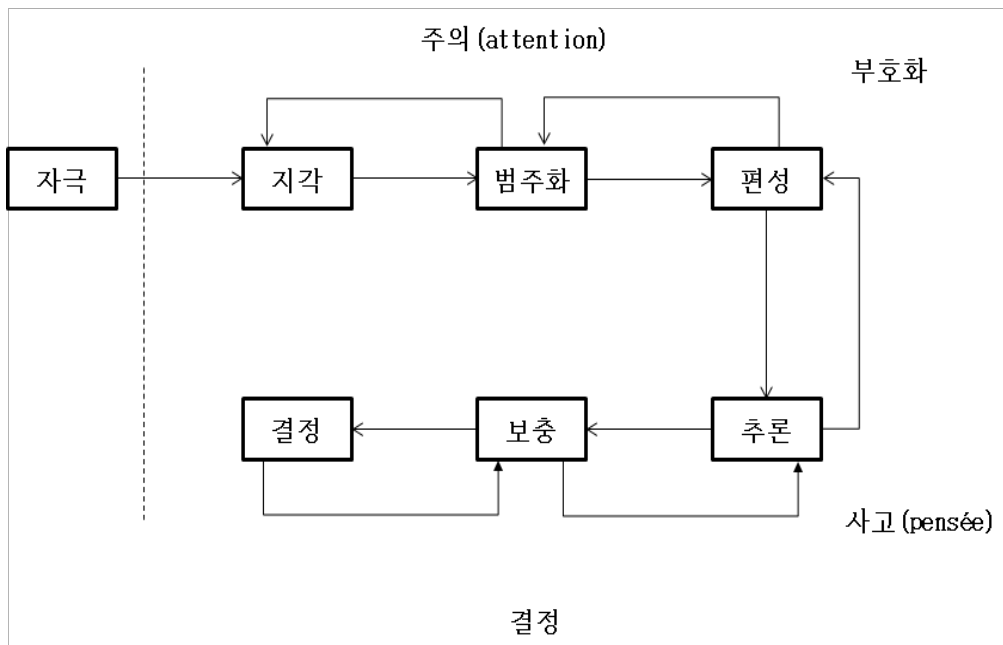
본 연구는 사회적 리터러시를 통해서 이민자들의 차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오랜 이민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회에서도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1. 사회적 리터러시와 권력

리터러시는 문맹 퇴치라는 인간 존엄과 해방 차원에서 출발했다.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으므로 해서 교회의 권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신문을 읽을 수 있으므로 해서 자본가에게 저항 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를 이룰 수 있었다. 리터러시의 개념을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오늘날에는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수단이자, 지식에 접근하는 능력과 사회적 환경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능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리터러시는 단어, 문장,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 이상의 비판적 분석을 통한 비교, 추론 등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 포하고 있고 이를 ‘사회적 리터러시’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 리터러시를 통해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권력구도를 파악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시민은 사회적 리터러시를 통해서 사회를 분석하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리터러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고정관념’ 을 어떻게 개인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고정관념은 공유하고 있는 믿음의 총합. 이러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Hamilton et Sherman(1994)은 특징적인 범주화의 한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인의 인식의 도식(des schémas de perception d'un individu)과 같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림 1] Fiedler의 사회적 정보 취급 과정



자료) Valérian Boudjemadi, 2009, p. 23, 재인용.

고정관념은 ‘부호화(encodage)’ 되고 이후 도식화(Schéma)가 되어서 각 대상에 대한 인식이 비슷하게 처리된다.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인식이 회귀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고정관념은 변화 혹은 수정이 될 수 있긴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한 사회에 이미 형성된 고정관념을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는 형성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인식의 도식들로 인해서 고정관념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고 간주하게 되고, 고정관념은 개인 혹은 집단의 판단과 행동을 끌어내기도 한다. 개인은 고정관념을 매개(l'intermédiaire)로 성(sex), 연령과 같이 드러나는 특징들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범주화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범주에 속한 다른 구성원들에게 같은 특징을 부여하기도 한다(Snyder, 1981). 우리가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이민자들을 한 범주에 넣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인의 인식에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이나 특권 계층의 인식이 영향을 끼침으로 인해서 사회적 가치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판단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개인은 권력에 대한 비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적 리더러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개인은 ‘비판적 리더러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사회의 권력구조를 파악하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주체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민자들의 사회적 리더러시는 과연 어떤가? 이들은 한 사회에서 비판적 리더러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는가? 만약 이러한 역량을 갖추는데 있어서 개인과 사회 혹은 국가의 책임 중 어느 쪽에 책무가 부실했는가? 마사 누스바움은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책무를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누스바움은 개인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과도한 노동으로 지식을 쌓지 못할 때 개인에게 ‘실질적 자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민자들에게 실질적 자유를 줌으로 인해 자신의 선택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자 한다. 프랑스는 이민자들을 역량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해왔다. 이를 위해서 기본교육, 기본수당 등 모든 프랑스 시민들과 평등한 조건에서 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런데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현재 프랑스 이민자들의 역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민자들의 학력수준이나 실업률은 국적의 취득 혹은 출생국가에 상관없이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다. 이는 과거의 이민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이민자들은 프랑스 사회 내에서 살아가며 역량을 왜 키우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스스로 남고, 정착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프랑스 사회 내에서 함께 살기 위한 공감능력과 공공의 가치와 질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을까?

프랑스의 이민자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프랑스의 과도한 동화주의를 비판한다. 이주민들의 문화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맞지만 동화를 거부한채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려고하는 이민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민자들은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때때로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약자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서 바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왜 인정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글은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는데 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다.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프랑스 이민사와 이민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자.

## 2. 프랑스 이민 역사와 정책

### 1) 프랑스 이민 역사<sup>8)</sup>

프랑스 이민의 역사의 큰 굴곡은 법적인 장차기 존재 하기 이전인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어서 프랑스의 경제적 호황기로 불리던 ‘영광의 30년(Trente glorieuses)’ 이 끝나는 1970년까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영국보다 늦은 산업화를 시작한 프랑스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19세기에 들어서 노동인구에 대한 수요가 사회적 문제화 되었다. 이로 인해서 단기간에 노동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제 2제정기(1850-70: 니폴레옹 3세)기에 크게 이민자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그 결과 1851년 약 40만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수는 꾸준히 늘어나 1890년에는 약 100만명이 넘었다. 프랑스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 혹은 이주민들은 꾸준히 늘었나 1911년에는 약 116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이민자 유도가 아닌 노동을 위한 개인적 이동이 많았다. 때문에 지리적으로 접근이 쉬운 이탈리아와 벨기에에서 프랑스로의 유입이 많았다. 한편 1889년의 숙지주의와 숙인주의를 결합한 독특한 국적법은 외국인을 이전 보다 상대적으로 더 쉽게 프랑스인이 될 수 있게 하였고, 이민자 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박단 2009, 353-354). 실제로 1920년-1930년 대에는 일자리를 찾아서 혹은 프랑스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은 단순히 거주지 구청에 신고만 하면 프랑스에서 체류가 가능했다. 특히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허덕이던 프랑스는 정부는 직접 나서서 대규모의 이민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폴란드의 경우 정부 간 협약으로 1921년 약 5만 명에 불과했던 폴란드 이민자는 1931년 약 100만 명에 달함).<sup>9)</sup>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 유럽 국가들과의 협약을 통하여 이민을 유치하기도 했다. 1924년에는 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통해서 노동이민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이 시기의 프랑스는 이민 수요량에 있어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를 기록하는데, 인구 대비 이민 노동자 비율로는 세계 제1위를 기록한다.<sup>10)</sup> 이때까지만 해도 외국인 혹은 이주민은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나라에 오래 거주하거나 거주할 의도가 있는 이들을 지칭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한 이들은 ‘단순 노동자’ 라고 지칭했다.

하지만 1930년대의 경제공황으로 인해 이주민 노동자는 실업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잠시 유입이 주춤하게 된다. 1932년 농업 부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제한하는 법이 상정됐고, 노동허가증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추방 대상이 됐다. 이들을 추방하기 위한 전용 열차 칸이 마련되어 적지 않은 수의 폴란드 노동자들이 프랑스를 떠났다. 1936년 이후 노동허가증은 외국인이 프랑스 국내에서 노동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가 됐다. 1930년대 외국인 유입을 막고 노동허가증이 없는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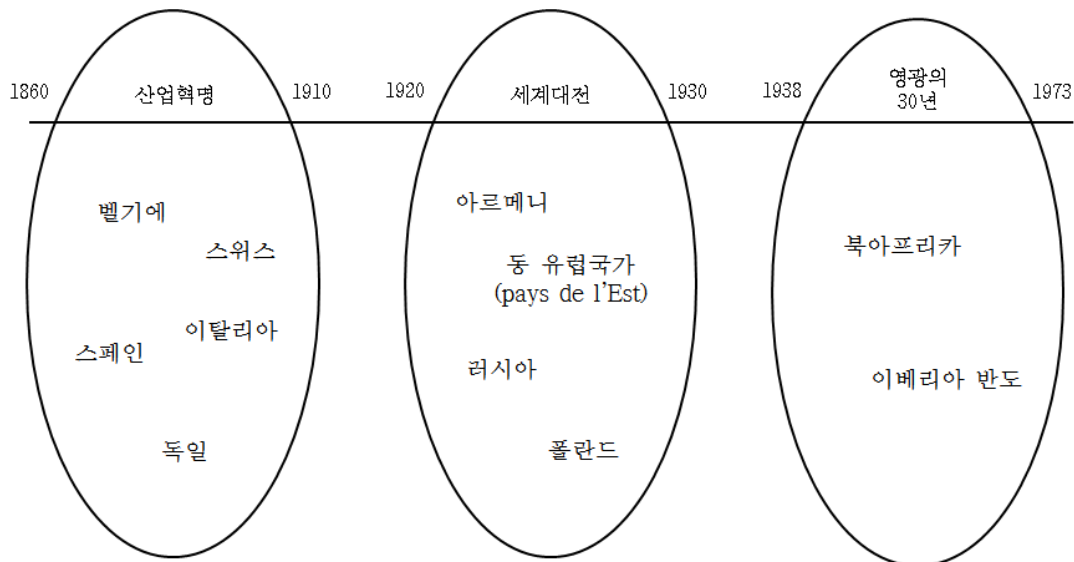
8) 프랑스 이민사와 관련해서는 <이기라, 강진희 외, ‘공존의 기술 : 방리유 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민’, 2007>을 주로 참조.

9) 사회통합위원회(<http://17harmonykorea.pa.go.kr/>) 홈페이지 참조, 2015년 5월 19일 검색

10) 1921-1935년 이상 이탈리아인, 폴란드인, 러시아인, 길고 라그레브인(북부아프리카인,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들이 주로 이민을 왔는데 그 수가 대략 192만명에 다다랐다. 가장 많이 이민을 온 이들은 이탈리아인으로 33%, 폴란드인 32% 순이었다. 1921년 전체 인구에서 이민자는 3.96%였는데 1931년에는 7%에 이르렀다. (임문영, 1993, p. 5)

러 가지 법안이 구체화됨에 따라, 외국인 수는 점점 감소했다. 1931년 약 270만 명에 달했던 외국인 인구는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1946년에는 약 170만 명까지 감소하게 됐다. 이러한 이주민 노동자의 감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게 된다. 특히 1956년에서 1973년 사이 ‘영광의 30년’ 동안에는 이민자 유입이 최고조에 달한다(이기라 외, 2007, p. 213). 이 시기에는 경제주체들의 노동력 필요성에 의해서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이 된다. 이러한 노동유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민 노동자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이민 장려책’도 실시가 된다.<sup>11)</sup> 한편 프랑스 정부는 1961년 프랑스-스페인 이민 협정, 1963년 프랑스-포르투갈 협정, 같은 해에 프랑스-튀니지와 프랑스-모로코 이민 협정을 통해서 대량 노동이민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와 함께 알제리 전쟁(1954년-1962년) 직후의 알제리 이민자의 유입<sup>12)</sup>, 1964년부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민자가 대량으로 빠르게 이뤄졌다(장리나, 2010, p. 98-99).

그림 1> 시대에 따른 이민자 출신 국가 변화



Source : CREAL, Immigrés vieillissants, 2015, p.4.

이렇게 급증하던 프랑스로의 이민자들은 1970년대 세계적인 오일파동으로 인한 경기축소로 인해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프랑스 정부도 1974년을 기점으로 정치망명 혹은 기업의 요구에 의해서 이뤄지는 제한적인 이민을 제외한 기존의 자유롭고 대량으로 이뤄졌던 이민은 중지한다는 공식 선언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은 꾸준히 유입되는데 이러한 유입은 노동을 위한 유입이 아니라 이민자들의 가족 합류가 주를 이뤘다. 그 위에는 포르투갈인, 마르레브인, 동남아시아인 피난민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프랑스로의 이주가 많았다. 이 시기에 프랑스로 이주한 이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나라에서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프랑스로 유입된 이주민들의 증가로 인한 프랑스 국내에서는 이들에 의한 실업문제, 사회적 일탈행위, 문화적 충돌 등으

11) 이 시기에는 체류증도 1년, 3년, 10년의 형태로 세분화가 되었고, 인구증가 차원에서 가족 이민이 적극 권장되기도 GOTE. 1945년에는 프랑스 국적 취득이 자유로워졌고, 1958년 ‘로마조약’에 의해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졌다.

12) 프랑스와 알제리 간 협정은 1968년 12월에 도입.

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2년에는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신분안정과 노동의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이민자들의 신분안정과 노동에 대한 불안정성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 2) 프랑스 이민 정책

앞에서 살펴봤듯이 프랑스가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는 산업화로 인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sup>13)</sup> 이민자들 덕분에 프랑스는 부족한 노동인구를 충당 할 수 있었고, 경제의 발달도 함께 이룰 수 있었다. 특히 1차 대전으로 인해서 심각한 노동력을 상실한 프랑스는 전후 복구과정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이민자들로 충당한 것이다. 프랑스에서 1970년대 이전까지는 필요한 이주 노동자들 수용과 관련된 정책들 중심으로 이민 정책이 운용되었다. 이민자들이 프랑스에 들어온 이후에 이들의 삶 또는 노동과 관련된 정책들은 미비했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함이 1974년 이후에는 새로운 이주가 어려워지고, 이미 프랑스에 정주한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주자들의 삶들이 점차 어려워지고 이들과 프랑스인들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화되기 시작했다. 이때의 이주민들은 대부분 가족 합류를 위한 입국이 대부분이었다. 이 전에는 대부분 노동을 중심으로 이동이 이뤄졌던 것이 이 때부터는 남성과 여성 이민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졌다. 여성 이민자들이 늘어난 이유는 결혼을 통해서 였다.

Giscard d'Estaing 정부는 새로운 이민자들의 유입을 강력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서 프랑스에 불법으로 프랑스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늘어났고, 이들의 수용에 대한 프랑스 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논쟁이 거세졌다. 사회당 대통령 후보였던 Mitterrand<sup>14)</sup>은 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강조하면서 1988년 재선에 성공하기도 했다.

1991년부터 프랑스 정부는 이민문제를 프랑스 국내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민자들의 프랑스 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기 시작한다. 이를 위해서 불법이주민들의 노동이나 학생들의 학급권에 대한 보장이 조금씩 이뤄지기 시작한다. 이후 1999년부터는 ‘서류 없는 사람들(sans-papiers)’에 대한 합법화가 조금씩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 물론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이민자들의 수용과 관련한 프랑스 내부에서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주의 등의 논쟁은 계속됐다. 이렇게 프랑스가 이주민들의 프랑스 사회로의 유입을 하려고 한 이유에는 불법으로 머물고 있던 이주민들의 노동을 양성화하고, 세수 확보라는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가 되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03년에는 불법이민과 사회통합 관련한 법을 만든다. 이를 통해서 이민자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받아 들인 이후에는 사회적응에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노력하게 된다. 그 대안으로 언어교육이 주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즉 ‘선택적’으로 이민을 수용한다는 것은 효과적인 이민은 장려하고, 불법 이민에 관해서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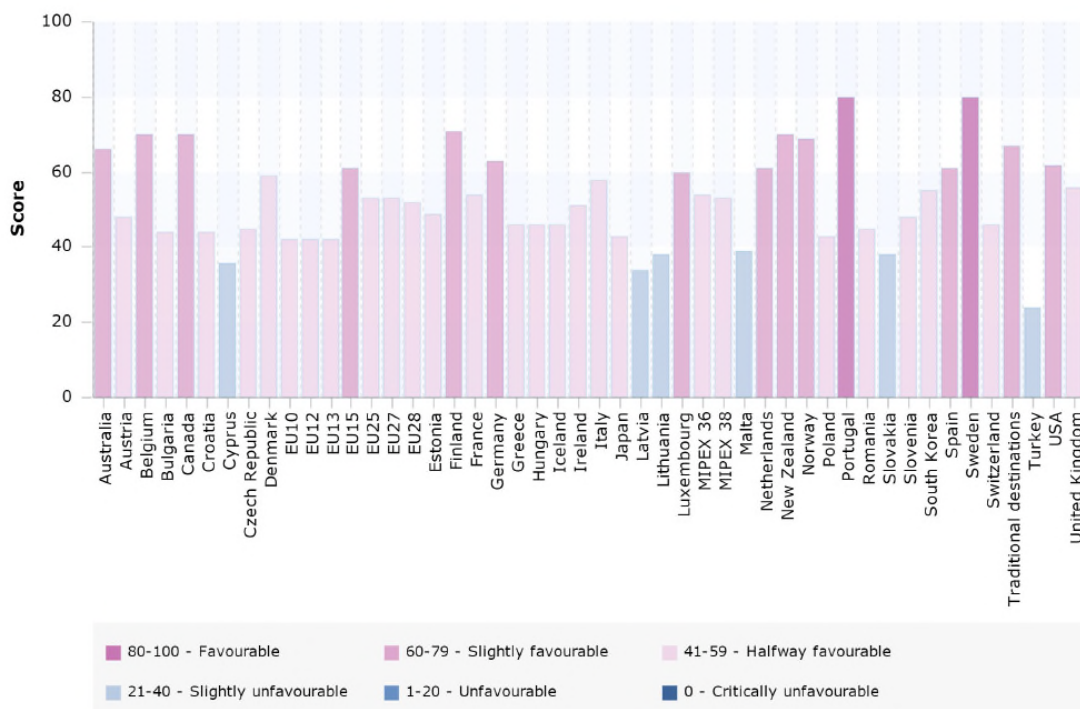
이처럼 이민자들에게 장벽을 쌓기보다는 기회를 불균등하게 주는 방식으로 선택적 이민을 받는 프랑스는 유럽연합 회원국 및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이민자 통합정책을 단일한 기

13) 프랑스에서 이주 노동자들 받아 들였던 것은 16세기까지 올라간다. 이 시기에 직물산업에 주요 산업자들 중에는 네덜란드 출신이 많았고, 코냑으로 유명한 ‘헤네시(Hennessy)’는 아일랜드 출신이었다. 이 처럼 프랑스에서 이름을 날린 많은 노동자들 중에는 프랑스인이 아닌 사례가 많다.

14) François Mitterrand은 대통령 당선 이후 13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합법화시켰다.

준으로 평가하는 2014년 이민자통합정책평가(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MIPEX)에서 54점을 획득했다. 프랑스가 받은 평가는 한국 55점, 영국 56점, 독일 63점, 스웨덴 80점과 비교해서도 낮은 편이다. 유럽연합 28개국 평균이 52점인데 겨우 평균을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100년이 넘는 이민의 역사를 가진 프랑스이지만 여전히 이민자 통합을 위한 정책에는 미비한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을 비롯해서 이민자 수용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국가로 전향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변하고 있다. 국가가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는 이민자 개인의 노력과 의지를 국가의 책무 보다 사회통합 측면에서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2014년 유럽국가 이민자 통합정책평가(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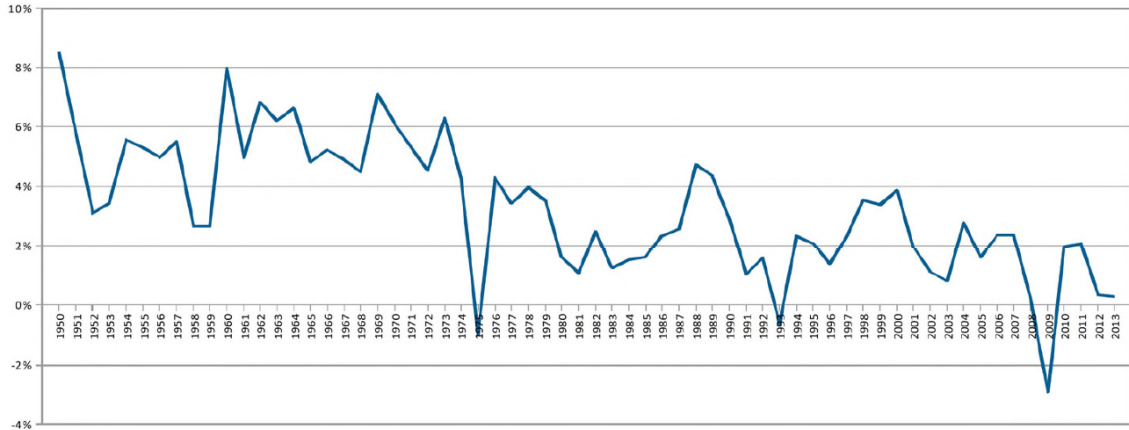
출처) <http://www.mipex.eu/play/>. (2016년 3월 15일 검색)

한편 이민자 중에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70년 이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민자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받아들였을 당시에는 이민자들의 노동문제, 주거문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정책들이 논의가 많이 되었다면 1980-90년 저성장 사회에 진입한 이후에는 새롭게 들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해서 프랑스 사회는 자신들의 ‘프랑스 민족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낼까 하는 고민과 프랑스 미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시장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논의가 거세졌다.

아래 <그림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추세에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정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프랑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년 혹은 그 이상 실업상태로 있는 이들이 실업자들 중에서 42.4%를 차지하고, 전체 경제활동인구에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2000년 초에 2.6%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나 증가한 수치

다.29) 이처럼 프랑스 노동시장은 한번 실업에 빠지면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1950-2013년 프랑스 연간 경제성장률 변화



출처) <http://www.insee.fr/fr/themes/comptes-nationaux/>. (2016년 10월 19일 검색)

특히 노동시장에서 이주민에 대한 프랑스 미숙련 노동자들의 인식은 그리 좋지 못하다. 프랑스 미숙련 노동자들은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민자들의 유입에 대한 반대의 논리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프랑스 민족 정체성’ 훼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 프랑스에 유입된 노동력은 대부분 프랑스 인근 국가들인 이탈리아, 폴란드, 벨기에 등이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 지역도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굳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이 프랑스로 갈 이유가 없어졌다. 그 결과 프랑스는 주변국에서의 노동력 유입이 줄어들면서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60-70년대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마그레브인이나 아프리카인과 같은 새로운 문화권으로부터 노동력을 공급받게 된다. 초기 프랑스로 유입된 노동 이주민들은 자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입된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노동력을 시장에 팔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과는 상관없이 자국의 경제적·정치적 문제를 피해서 프랑스 사회에 정주할 목적으로 들어온 이들이 많아졌다. 그 결과 이 시기에 들어온 이주민들은 프랑스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이 잘 이뤄지지 못했다. 프랑스 사회의 사회보장 혜택만 보는 자들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면서 점차 이들로 인해 프랑스 내에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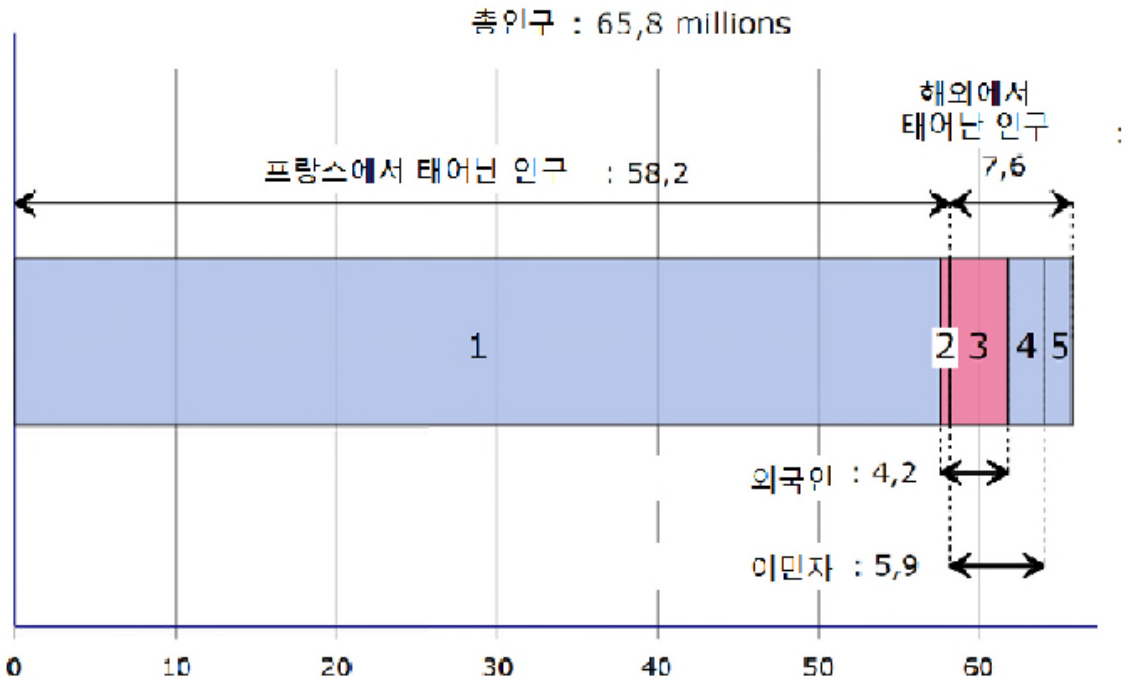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들 개개인의 경쟁력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강화되고 이로 인해 대량 실업과 새로운 빈곤의 증가도 큰 영향을 끼쳤다. 즉 탈산업사회에서는 자본의 생산력이 노동의 생산력보다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고 우선 오늘날 프랑스 이민자들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프랑스 이민자 실태

#### 1) 프랑스 최근 이민동향 및 특징<sup>15)</sup>

2014년 기준으로 프랑스 전체 인구는 6천 580만 명이다. 이 중에서 5천 820만 명은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7백 60만은 해외에서 태어났다. 5천 820만 중에서 5천 760만 명은 프랑스 국적이거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고, 60만은 외국인이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경우 부모가 외국인인 14세 이만의 어린이는 5명 중 4명이다. 이들은 11세 이후 적어도 프랑스에서 5년 거주를 하고 난 이후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다.

<그림 4> 2014년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인구 분포도



- 1 : 프랑스 국적의 프랑스 출생
- 2 : 외국 국적의 프랑스 출생
- 3 : 외국 국적의 해외 출생

15) 프랑스에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5가지 이다. 첫째, ‘속인주의’에 의해서 부모 중에 최소한 한 명이라도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자녀는 프랑스인으로 간주된다. 둘째, ‘속지주의’에 의해서 부모가 외국인일지라도 자녀가 프랑스에서 태어난 경우 자녀의 나이가 13세, 혹은 18세에 프랑스 국적을 신청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프랑스 공교육을 5년 이상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셋째는 결혼에 의해서이다. 프랑스인과 결혼을 할 경우 결혼생활 4년이 지나면 프랑스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프랑스어의 수준과 체류기간에 대한 국가의 감시와 평가가 강하다. 프랑스의 경우 국적을 위한 위장 결혼인 ‘백색결혼’을 검열이 매우 강하다. 넷째, 프랑스 국적을 가진 부모에 의해서 입양이 된 자녀의 경우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영토 내에 최소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경우 프랑스 국적을 신청하고 취득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체류기간과 프랑스어에 대한 습득도 국적 취득 평가에 중요한 요소이다. 2014년에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미성년자에게 교부되는 공화국 신분증(Mineur étranger né en France: titre d’identité républicain, TIR)’이 만들어 졌다.



4 : 해외에서 출생했고 프랑스 국적 취득자

5 : 프랑스 국적을 갖고 해외에서 출생

Champ : France hors Mayotte.

Source : Insee, estimations de population.

2006년에서 2014년 프랑스 인구는 260만 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연간 평균 약 0.5%의 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출생 650만 명 사망 430명으로 자연증가분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 이주로 인한 증가는 40만 명으로 250만 명이 들어오고, 210만 명이 프랑스를 떠났다. 이민자가 프랑스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8.1%에서 2014년 8.9%로 증가했다.

이민자 중에서 360만 명은 외국 국적을 갖고 있고, 이민자 중에 39%는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다.<sup>16)</sup> 귀화로 인한 프랑스 국적자는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부모가 외국인이지만 프랑스에서 출생한 이들이 추후에 프랑스 국적을 갖게 되는 ‘사전 신고에 의한 취득’의 경우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이 경우가 국적 취득자 사례에서 2014년 기준 23.7%나 된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결혼에 의한 국적 취득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체에서 18.7%를 차지하고 있다.

<표1> 2012년 외국인과 이주민 인구 : 성별, 나이별 (단위 : %)

	1990		1999		2007		2012	
	외국인	이민자	외국인	이민자	외국인	이민자	외국인	이민자
남성	55.1	52.0	53.0	50.2	51.5	49.3	50.6	48.8
15세 미만	22.4	<b>6.5</b>	14.8	<b>4.9</b>	16.9	<b>5.0</b>	16.7	<b>4.8</b>
15-24세	14.3	11.5	11.3	9.2	9.8	9.0	9.5	8.6
25-54세	48.1	<b>54.7</b>	52.2	<b>56.1</b>	48.7	<b>55.0</b>	48.7	<b>54.4</b>
55세 이상	15.2	<b>27.3</b>	21.7	<b>29.9</b>	24.5	<b>31.0</b>	25.1	<b>32.2</b>
합계	100.0	100.0	100.0	100.0	99.9	100.0	100.0	100.0
인구 수 (천명)	3,661	4,238	3,338	4,387	3,682	5,253	3,981	5,714
전체 인구에서 비율 (%)	6.3	7.3	5.5	7.3	5.8	8.3	6.1	8.7

Source : Insee, recensements de la population.

2012년 프랑스에 사는 이민자들의 평균 연령은 45세로 프랑스 거주하는 전체 인구 평균 연령 40세보다 높다. 2012년에 새롭게 들어온 이민자들의 평균 연령은 28세로 비교적 젊다. 19세에서 36세 사이가 새롭게 들어온 이들의 절반에 달한다. 2012년에 들어온 17%가 16세 미만이다. 프랑스에 들어오는 남성이나 여성의 평균 연령을 비슷하다.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들어오는 이들이 다른 대륙이나 국가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이들보다 비교적 연령이 높다. 벨기에에서 들어오는 4명 중 1명은 49세 이상이고, 영국의 경우는 56세가 넘는다.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20에서 33세 사이에 프랑스에 새롭게 들어와 가장 젊은 이민자들이다. 특히 중

16) 2008년 기준으로 보면 18세에서 50세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이들 중에서 50 %는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

국민들은 20세에서 26세 사이에 프랑스에 들어온다. 프랑스 국적 취득자는 2006년에는 147,000명에서 2013년에는 97,0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2006년 이후 프랑스를 떠나는 프랑스 국적인구는 새롭게 들어오는 이들에 두 배에 달했다. 표5>에서 보듯이 55세 이상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인구에서 중요한 25-54세 이민자는 점차 줄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오랜 프랑스의 저성장 경제에서 오는 결과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학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2년 프랑스에 들어온 63%의 이민자는 중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25%가 무학력자였다. 포르투갈이나 터키에서 온 이민자들이 가장 학력이 낮았다. 반면 미국, 중국,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에서 온 이들 2명 중 한 명은 대학 교육에 준하는 학력을 가졌다. 2004년에서 2012년 사이 중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이들이 7%이상 증가했다. 중국 출신의 이민자 경우 2012년 프랑스에 들어온 10명 중 9명은 중등교육 이상 마쳤다. 북아프리카 혹은 마르리브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은 프랑스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점차 프랑스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학력을 중요시하고 있고, 프랑스에 들어온 이후에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학업을 하려는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 2) 프랑스 이민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출신, 인종, 종교의 구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공화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sup>17)</sup> 이에 이민자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기보다는 프랑스 사회로의 동화를 중시하고 있다. 이는 제5공화국 1조에도 잘 나타난다.

« 프랑스는 단일하고 분리될 수 없는, 비종교적인, 민주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의 구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ïque, démocratique et sociale. Elle assure l'égalité devant la loi de tous les citoyens sans distinction d'origine, de race ou de religion. »

그 때문에 이민자들은 프랑스에 들어온 이후에 프랑스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중시된다. 그리고 이러한 프랑스 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 프랑스 시민이 될 수 있다. 프랑스 이민사의 초기에는 이러한 통합보다는 노동인구 확보 측면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였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프랑스 사회에 남아 프랑스 가치와 충동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머물던 이주민들이 점차 장기적이고 지속적 혹은 영구히 프랑스 사회에 정착하게 되면서 프랑스는 이민자들의 프랑스 시민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점차 강화시켰다. 2003년부터 프랑스 시민권 혹은 장기체류권을 받기 위해서는 ‘수용과 통합 계약(contrat d'accueil et d'intégration)’ 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 언어와 제도뿐만 아니라 프랑

17) 프랑스에서 평등은 이민자들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졌다. 프랑스에서 이민자들은 ‘우호적 차별 (discrimination positive)’ 정책의 대상이었다. 지금은 폐지가 되었지만 1980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된 ‘교육우선지역(zones d'éducation prioritaires)’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정책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민자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더 많은 교육자원을 공급하는 정책이었다. 이 지역은 학생들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에 맞는 교육과 함께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특혜가 주워졌다.

스의 공화국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이민자에 대한 이민에 대한 정책이 점차 강화되는 것은 프랑스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의 2세, 3세대 후손들이 여전히 프랑스에 동화를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약 600만명의 이민자들이 살고 있다. 이는 영국 200만명, 독일 190만명과 비교해도 2-3배 이상 많다. 프랑스 전체 인구에서 거의 1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이민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확대는 1974년 제 1차 석유파동과 함께 한다.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프랑스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는 급감하고, 이로 인한 실업의 문제가 프랑스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실업은 프랑스 국민들로 하여금 불만 혹은 불안을 증폭 시킨다. 프랑스인들은 실업에 어려움에 처하고, 이미 프랑스에 들어와 정착한 이민자는 실업으로 인해서 실업수당을 받으며 프랑스 정부에 부담이 되어 간다. 문제는 이 당시 프랑스인의 실업률보다 이민자의 실업률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프랑스 정부의 재정의 부담이 증가한다.(조항덕, 20014, p. 303).

최근 프랑스가 이민자와 관련한 고민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노동 이주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프랑스로 오는 이민자들 중에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이 1999년에는 46%였는데 2004년에는 41%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아시아계, 아랍계, 아프리카계 출신의 노동 이주자들은 1999년에 51%였던 것이 2004년에는 56%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다른 국가의 출신들이 프랑스에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아랍, 아프리카계 이주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들은 프랑스 내에서 큰 소요사태의 중심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프랑스에서 이민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살펴볼 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파 Jean-Marie Le Pen(16.86%)이 사회당의 Lionel Jospin(16.18%)을 이기고 Jacques Chirac(19.88%)과 2차 결선투표에 진출을 했다는 것이다. Le Pen의 2차 결선투표 진출은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그는 모든 프랑스 불법 이민자들의 즉각적인 추방, 이민자 유입에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는 프랑스에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이민자가 많은 지역과 치안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큰 지지를 받았다. Le Pen을 지지한 이들은 실업자, 노동자, 농민, 상인 등으로 비교적 블루칼라가 많았고, 학력은 중등교육 이하를 받은 이들이 많았다. 이들이 Le Pen을 지지한 이유는 치안 불안, 실업, 경제적 어려움 등을 꼽고 있었다. 이와 같은 Le Pen에 대한 지지는 어쩌면 유럽연합의 확대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개방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 실업과 이민을 연결시키면서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9.11사태 이후 유럽의 어느 국가보다도 북아프리카계와 아랍계가 많은 프랑스에서 느끼는 불안은 50-60년대 노동이민으로 받아 들인 이들의 2세대, 3세대 젊은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의혹과 함께 더욱 커졌다. 이렇게 프랑스 내부에 존재하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이주민 2세대, 3세대에 대한 불안은 이주민 전체에 대한 검열강화 혹은 추방을 주장한 Le Pen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두 번째가 한국에서도 많은 프랑스 이민통합모델의 위기와 관련해 연구가 이뤄졌던 ‘2005년 이민자 소요사태’이다(김승민, 2011 ; 박단, 2006 ; 엄한진, 2007 등). 이 사건은 2005년 파리외곽지역에서 경찰 추적을 피하던 이민자 출신의 아이들이 사망하면서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된 소요사태이다. 이 당시 프랑스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통

행금지도 시행했다. 이 사태는 약 3주간 지속되었는데 인종차별과 편견, 이민자들의 고용불안, 이민자계급의 게토(Ghetto)와 등 프랑스 내부에 있는 이민자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서 프랑스 정부가 강조한 이민자들의 프랑스 정체성으로의 동화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즉 종교와 문화적 측면에서 프랑스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기 어려운 북아프리카 출신 무슬림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기존의 삶을 부정하면서 프랑스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프랑스 사회에 동화가 되기는 불가능했다. 이러한 이주민들이 많아 지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프랑스인들의 시선이나 인식이 ‘이주민=사회에 적응을 하려고 하지 않는 자’ 화 되어 가면서 점차 내부에서의 갈등이 커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드러나고 있지 않던 내적 갈등이 앞의 두 사례처럼 어떠한 계기만 있으면 큰 사태로 촉발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Nicolas Sarkozy 전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 이민자들이 프랑스에 왔다면 프랑스라는 단일 공동체에 동화되어야 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프랑스에서 환영 받을 수 없다.’ 라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Sarkozy 전 대통령의 발언은 프랑스인들의 공화주의 원칙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오랜 동안 프랑스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있어왔다. 하지만 간간히 프랑스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이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폭동으로 확대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프랑스 사회에서 이민자들로 인한 사회적 논란은 1970년 초에 세계 경제상황이 악화가 되었던 석유파동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 갈등을 발생시키는 불씨가 아닌가 한다. 전 후 1953년부터 1973년까지 프랑스의 기업생산력, 가계소비, 임금은 약 3배 정도 증가했고, 프랑스의 경제성장률 또한 5-6%에 이르는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 있었다. 이에 이민자들이 새롭게 유입이 되어도 이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일이 없었다. 하지만 70년대 세계경제의 호황기가 끝나고 프랑스가 서비스 경제를 중시하는 탈산업화로 인해서 실업과 고용불안정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임금사회(société salariale)의 기반이 약화되는 문제를 안게 된다. 특히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노동력 중심이지만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낮기 때문에 노동빈곤이 생산된다. 즉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의 이동은 다수의 노동자가 더 높은 생산성 분야로 이동하면서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지만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의 이동은 다수가 더 낮은 생산성의 분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소득의 축소가 발생하게 된다. 1970년 중반 이후 프랑스 사회가 저성장 국면에 빠지게 되면서 근로빈곤, 소득의 양극화의 문제는 프랑스 사회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 이민자들은 질 낮은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려면 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거나 프랑스 정부의 복지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즉 사회적 서비스(의료, 교육, 돌봄, 주택)에 대한 이민자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이민자들이 빼앗아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이민자들이 혜택을 보고 이로 인해서 프랑스 정부의 재정에 이민자들이 부담만 주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처럼 경제가 고성장을 할 때 필요한 노동력을 보충 받기 위해서 받아 들였던 이민자들이 이제는 프랑스 사회의 부담 혹은 골칫거리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인들보다 이민자의 실업률이 훨씬 높다. 이민자들의 학력이나 업무능력은 프랑스인들보다 현저히 낮다. 때문에 질 낮은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민자들은 생활을 할 만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을 하지 못하거나, 실직 상태로 오래 머무는 경우가 빈번하다. 처음 프랑스에 들어오던 유럽의 주변국가 출신들과 달리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 출신지역은 북아프리카나(마그레브(Maghreb) 지역) 혹은 중동 국가로 이들은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들어오지만 낮은 학력(표 6)과 노동 기술의 미비로 인해서 프랑스 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표 7과 그림 3). 프랑스는 프랑스 내에 머무는 모든 이들에게 국적과 상관 없이 동일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 이에 이민자라 할지라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이민자와 이민자 가족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생활보조, 실업, 자녀교육, 주택보조, 의료 등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의 수혜를 부릴 수 있다. 이렇게 프랑스 노동시장에 진출을 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프랑스 국민들에게 이민자들은 결국 사회적 경제지출의 대상자 그리고 조세의 부담으로 인식되면서 프랑스 사회에서 이민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줄어들고 있지 못하다.

〈표 2〉 학위에 따른 실업률 (단위 : %)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무학
부모가 프랑스인인 프랑스 출생	4.7	6.1	8.9	14.1
유럽연합 소속 이민자	7.4	8.0	7.0	8.9
유럽연합 이외 국가 출신의 이민자	14.8	18.0	24.4	23.8

Source : ministère de l'Immigration - Données 2011 - © Observatoire des inégalité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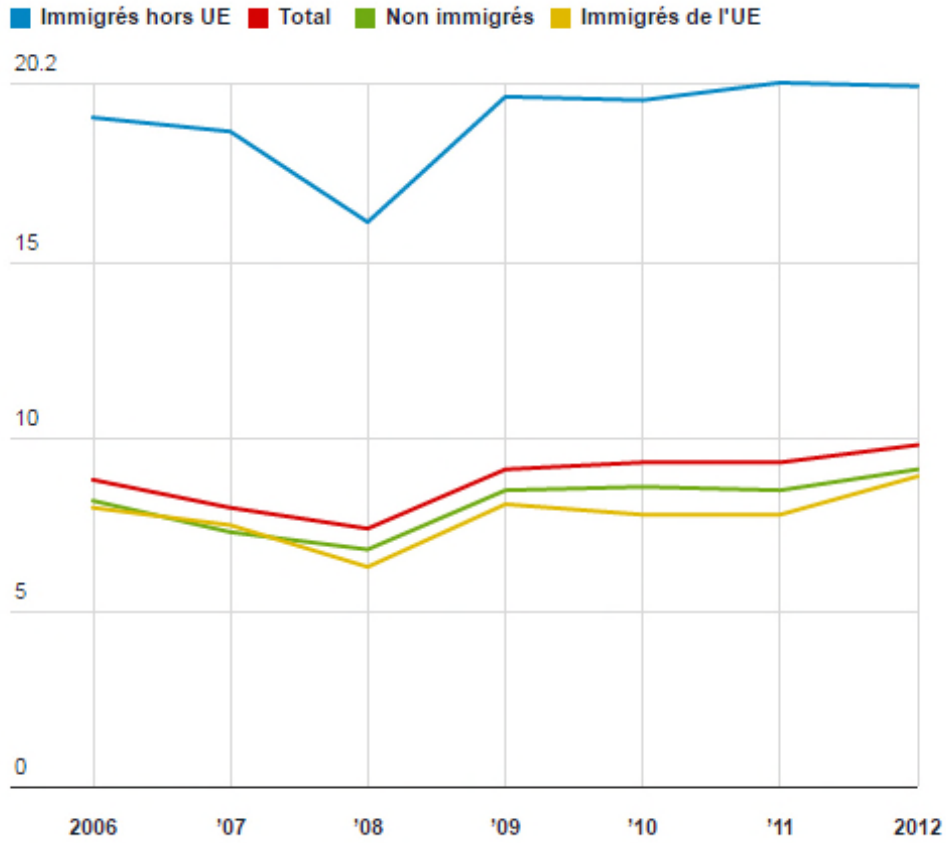
〈표 3〉 실업률 : 성별, 국적별 (단위 : %)

	남성	여성	평균
프랑스 출생	9.4	8.9	9.1
이민	17.7	16.7	17.2
- 유럽연합 소속*	-	-	9.3
- 유럽연합 이외 국가	20.9	20.4	20.7
평균	10.2	9.6	9.9

\* 유럽연합 27개국

Source : Insee - Enquête emploi- Données 2014 - © Observatoire des inégalités

〈그림 5〉 출신 국가에 따른 실업률 변화 추이



Source : Insee. le monde.fr. 2014년 5월 19일 ‘Non, le taux de chômage des étrangers n’est pas de 40%, [http://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14/05/19/non-le-taux-de-chomage-des-etrangers-n-est-pas-de-40\\_4421196\\_4355770.html#HrtXtQ3Vsm7eAk0f.99](http://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14/05/19/non-le-taux-de-chomage-des-etrangers-n-est-pas-de-40_4421196_4355770.html#HrtXtQ3Vsm7eAk0f.99). 2016년 5월 20일 검색

위에서 살펴봤듯이 프랑스 이민자들은 국적 취득과 개인의 역량과 상관없이 여전히 과거의 이민자 고정관념에 따른 사회적 잣대로 평가되고 있다. 뱅크스(Banks, 2003)는 “민주적인 가치와 다문화 리더러시를 사회를 읽는 힘과 사회를 개선 시키는 능력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를 읽는다는 것은 교육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고, 사회를 개선 시킨다는 것은 획득한 지식을 사회 정의를 위한 실천적 행위의 바탕이자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는 여전히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 능력을 키워주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 결론

리더러시는 ‘문해력’ 이라고 해서 언어를 읽고 쓰는 피상적인 의미만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다. 리더러시는 복잡한 사회적 환경을 파악하고 본질을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리더러시는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적응 및 대처하는 능력으로까지

그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적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한 사회 내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이해와 공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개인의 역량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이민자들을 수용해야 하는 사회 혹은 국가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도 한 사회로 이주해서 정착하는 가운데 사회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리더십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는 어쩌면 이민자들이 사회적 동화를 거부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고, 프랑스 사회는 변화된 이민자들에 대한 비판적 리더십을 통한 새로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이민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들과 공존하기 위해서 사회적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 개선을 위해 실천적인 영역까지 이를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민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이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리더십을 모두가 갖추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경화 (201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발표논문.
- 김두년 (2013),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법학연구, Vol.49, pp. 325-347.
- 김성곤 (2002), *다문화시대의 한국인*, 서울: 열음사.
- 김영옥 (2007),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46(2), pp. 129-159.
- 김영주 (2010),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젠더 관점과 다문화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1), pp. 51-73.
- 김정선 (2011),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사회, pp. 205-246.
- 김재우 (2006),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교육지원 방안,' 오늘의 청소년, 제22권 제6호 통권211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pp. 10-15.
- 김재원 (2007), '현대의 다문화가족: 인터뷰: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부산지역 이민여성을 찾아서,' 민족연구, 제 31권, 한국민족연구원, pp. 140-153.
- 고상두, 하명신 (2012), '독일 거주 이주민의 사회통합 유형,' 국제정치논총, 52(5), pp. 233-256.
- 민지선, 김두섭 (2013),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제36권 4호, pp. 71-94.
- 박단 (2009), '프랑스 공화국과 이민: 새로운 공화국을 향하여,' 프랑스사연구, 제21호, pp. 151-172.
- (2013), '이주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고찰,' Homo Migrans, Vol. 8, pp. 70-79.
- 박승용 (2014), '국제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측면 고찰,' 한국정책연구, 14(3), pp. 107-130.
- 설동훈 (2006), *국민, 민족, 인종 :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체성,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 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 설동훈, 김운태 외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안성근 (2008),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이주민과 인권현황: 이주 노동자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새국어생활, 제18권 제1호, pp. 71-85.
- 엄한진 (2007), '프랑스 이민통합 모델의 위기와 이민문제의 정치화: 2005년 프랑스 도시외곽지역소요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1집 3호, pp. 253-286.
- 여성가족부 (2012),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이기라, 양창렬 외 (2007), *공존의 기술 : 방리유, 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면*, 그린비.
- 이명진, 최유정, 최섯별 (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제11권 1호, pp. 63-85.
- 이현아 (2013), '다문화시대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방향에 대한 일고찰,' 인간·환경·미래, 제10호, pp. 151-178.
- 인태정 (2009), '다문화 사회 지향을 위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 연구,' 국제지역연구, Vol. 13(2), pp. 339-369.



- 임채완, 이소영 (2014),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시민권리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민족문화, Vol. 50, pp. 155-182.
- 오현수 (2012), ‘다면적 관점에서의 다문화사회 이해,’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 185-199.
- 우충완, 우형진 (2014),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보도 노출과 접촉 경험이 내국인의 제노포비아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7권, pp. 185-227.
- 유난영, (2009),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김포시 일반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제21권 단일호, pp. 174-203.
- 장윤수, 김혜련, 강군 (2011), ‘다문화시대 여성결혼이민자의 시민권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pp. 359-388.
- 전영자, 전예화 (2010),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9권 1호, pp. 1-13.
- 정재각 (2011), ‘독일의 이주정책과 사회통합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 과학논총, Vol. 21(3), pp. 79-106.
- 조항덕 (2014), ‘프랑스에서 이민자들과의 갈등 문제 고찰,’ 프랑스문화연구, 제28집, pp. 289-320.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6), *한국의 이주 노동자 정책과 노동시장. 사회통합*, 한국국제노동재단.
- 황지민 (2012),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2권 1호, pp. 174-210.
- ATTIAS-DONFUT Claudine (2006), ‘*L’ enracinement, Enquête sur le vieillissement des immigrés en France,*’ Armand Colin.
- ATTIAS-DONFUT Claudine, DELCROIX Catherine (2004), *Les femmes immigrés face à la retraite*, Retraite et Société, n° 43,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aris, pp. 137-163.
- AGGOUN Atmane (2002), *Vieillesse et immigration: Le cas des femmes kabyles en france*, Retraite et Société, n° 37,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aris, pp. 209-233.
- BAS-THERON Françoise, MICHEL Maurice (2002), ‘*Rapport sur les immigrés vieillissants,*’ Rapport n° 2002 126, IGAS.
- BERNILLON Françoise (1998), *Vieillir ici, Écarts d’identité*, n° 87, pp. 51-54.
- BOMMES Michael, GEDDES Andrew (2002), ‘*Immigration and welfare: Challenging the Borders of the Welfare State*’, TaylorFrancis.
- CARADEC Vincent (2008), ‘*Sociologie de la vieillesse et du vieillissement,*’ Editions Armand Colin, 2èmeédition.
- Chaib Yassine (2008), *Vieillesse et fins de vie : vivre vieux et vivre mieux dans la migration*, Migrations Santé, n° 131, pp. 83-92.
- CLAUDIO Bolzman, ROSITA Fibbi, MARIE Vial (1993), *Les immigrés face à la retraite : rester ou retourner ?*, Revue suisse d’ économie politique et de statistique, n° 3, pp. 372-384.
- CHAUVEAU Vincent (1993), ‘*La protection sociale des personnes âgées migrantes maghrébines*’, in : *Vieillir et mourir en exil : immigration maghrébine et vieillissement*, Lyon, Presses Universitaires de Lyon, pp. 15-19.

- CHENILET Philippe (1990), '*L'immigré et sa vieillesse*', in : *Immigration et protection sociale*, Paris, Sirey, pp. 111-129.
- DESPLANQUES Guy (1989), *Les étrangers âgés en Ile-de-France*, Hommes et Migrations, n° 1126, pp. 5-8.
- (1994), *Connaître les migrations*, Espace, Population, Société, n° 1, pp. 31-39.
- DESRUMAUX Gilles (1998), *Les nouveaux visages de l'immigration vieillissante*, Écarts d'identité, n° 87, pp. 12-18.
- FASILD (2007), '*La vieillesse des immigrés, isolés ou inactifs en Franc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HANSEN Randall (2009), *The poverty of postnationalism: citizenship, immigration and the new Europe*, Theory and Society, 38(1), pp. 1-24.
- JOVELIN Emmanuel (2003), *Le dilemme des migrants âgés Entre le désir du retour et la contrainte d'une vie en France*, Pensée plurielle, n° 6, pp. 109 à 117.
- JOPPKE Christian (2004), *The retreat of multiculturalism in the liberal state: theory and polic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5(2), pp. 237-257.
- (2007a), *Transformation of Immigrant Integration in Western Europe: Civic Integration and Antidiscrimination Policies in the Netherlands, France, and Germany*, World Politics, 59(2), pp. 243-273.
- (2007b), *Beyond national models: civic integration policies for immigrants in Wester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30(1), pp. 1-22.
- (2008a), *Comparative citizenship: a restrictive turn in Europe?*, journal of Law and Ethics of Human Rights, Vol.2, pp. 128-168.
- (2008b), *Immigration and the identity of Citizenship*, Citizenship Studies, 12(6), pp. 533-546.
- KYMLICKA Will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NNOU, M.-A. (1986), *Vieillir immigré, le vieillissement des résidents de foyers de travailleurs migrants*, Ministère de l'Équipement,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des Transports, octobre 1986.
- LUCQUIN J.-C. (1989), *Comment crois-tu qu'ils ont vieilli, les immigrants ?*, Migrations et pastorale, n° 204, pp. 3-4.
- MUYSKEN Joan, CÖRVERS Frank, ZIESEMER Thomas (2011), '*Immigration Can Alleviate the Aging Problem*' , Netspar Discussion Paper No. 07/2011-058.
- MOHAMED Madoui, MARCELI Jaeger (2015), *Les migrants face aux défis du vieillissement*, HommesMigrations, n° 1309, pp. 6-7.
- NOIRIEL Gérard (1988), '*Le creuset français: histoire de l'immigration, 19eme-20eme siècles*' , Le Seuil, Paris.
- NOIRIEL Gérard, GUICHARD Eric, LECHIEN Marie-Hélène (1992), '*Le vieillissement des immigrés en région parisienne*,' Fonds d'Action Sociale pour les travailleurs immigrés et leur famille, Paris.
- PAILLAT Paul (1997), *L'influence des travailleurs migrants sur le vieillissement de la population française*, Hommes et migrations documents, n° 932, pp. 11-16.
- MCDONALD Peter, KIPPEN Rebecca (1999),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Ageing of Australia's Population*.' Edward Elgar Publishing.
- GALLOU Rémi (2005), *Le vieillissement des immigrés en France. Le cas paroxystique des*

*résidents des foyers*, Politix, n° 72, p. 57-77.

- (2006), *Le vieillissement des immigrés vivant seuls en France : Les différences entre hommes et femmes*, Les Annales de la recherche urbaine, n° 100, pp.121-128.
- PENET Marie-Pierre (2000), *Quelle aide à domicile possible pour les migrants vieillissants*, Écarts d'identité, n° 94, pp. 27-31.
- ROSANVALON Pierre (1995), *'La nouvelle question sociale: repenser l'État-providence,'* Seuil, Paris.
- SERRA SANTANA Ema (2000), *L'éternel retour ou l'impossible retour*, Migrations société, Vol.12, n° 68, pp. 77-84.
- TITMUS Richard Morris (1970), *'The Gift Relationship: From Human Blood to Social Policy,'* London:Allen & Unwin.
- HUDDLESTON Thomas , TJADEN Jasper Dag (2012), *'Enquête sur les citoyens immigrés. Comment les immigrés vivent-ils l'expérience de l'intégration dans 15 villes européennes ?,'* Fondation Roi Baudouin et le Migration Policy Group.
- WISNIEWSKI Jean (1975), *Immigration et personnes âgées*, Hommes et migrations documents, n° 892, pp. 4-7.
- (1997), *'Les personnes âgées de 65 ans et plus dans l'immigration en France,'* Hommes et migrations documents, n° 932, pp. 25-42.

인터넷 사이트

<http://www.inegalites.fr/>

<http://www.insee.fr/fr/>